2002 월드컵 계기

북촌 장소마케팅 방안 연구

- 한옥 민박체계 확립을 통한 전통 문화지역 활성화 -

The Place Marketing Plan for Bukchon Area

2001. 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월드컵지원연구단
Research Center for the 2002 World Cup,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연 구 진

연구책임	한 영 주	(월드컵지원연구단장)
연 구 원	신 지 혜	(월드컵지원연구단 연구원)
	해 람	(월드컵지원연구단 연구원)
	도도로키히로시	(월드컵지원연구단 연구원)
	노 영 순	(월드컵지원연구단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 차 례

I. 연구의 개요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체계 및 성격 4
가. 지역 행위 주체 '네트워크'에 입각한 연구 4
나. 향후 과제 제시형 연구 6

3. 연구 방법론 및 방향 7
가. 장소마케팅 7
(1) 장소마케팅이란 7
(2) 메가 이벤트와 장소마케팅 9
(3) 북촌 장소마케팅의 지향성 10
나. 북촌의 장소마케팅 10

II. 북촌의 장소성(Placeness)과 문화관광 15

1. 북촌의 장소성 15
가. 재산권 투쟁의 장에서 '문화 정치', '의미의 정치'의 장으로 15
나. 역사 속의 북촌 16
다. 북촌의 장소를 재현하는 요소들 18
(1) 하드웨어(Hardware) 18
○ 전통적 생활 양식의 재현 공간(Where they have lived) 18
○ 헤리티지의 공간(Space of Heritage) 19
○ 역사적 공간(Historical Space) 21
○ 전통의 새로운 구현물들 (Where Old Meets New) 21
○ 새로운 지역 전통을 만드는 문화적 심미성(삼청/성북동) 25

(2) 소프트웨어(Software) 33
○ 라이프웨어(Lifeware): 북촌 '사람', 그들이 '사는 방식'과의 조우 33
○ 휴먼웨어(Humanware): 북촌의 전통성을 이어가는 사람들 34
○ 마인드웨어(Mindware): 북촌을 지켜 나가는 따뜻한 마음 36

2. 북촌의 장소성과 활성화 방향 : 문화관광 37
가. 북촌의 장소성 37
나. 북촌과 문화관광 38
(1) 문화관광 38
(2) 북촌 장소마케팅의 방향 40
○ '문화관광'적 개발의 추진 40
○ 문화의 생산, 유통, 소비, 향유의 '순환적 뿌리내림' 40
○ 지역적 네트워크 구축 41
○ 지역 고유의 차별적 연계성 확보 41
○ 지역간 유동적 연계성 확보 42
○ 북촌 전통문화 활성화의 방향 42

III. 북촌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47

1. 북촌 장소마케팅의 기본 틀 47
가. 북촌 장소마케팅의 기본 방향 47
나. 북촌 장소마케팅의 당면 과제 48

2. '점(Point)'의 활성화 49
가. 전통 민박의 활성화 49
(1) 민박 희망 가옥의 특성 50
(2) 민박희망 가옥의 상태 51
(3) (가칭) 북촌민박조합 형성 55
(4) 운영 방식 58
(5) 통역/예약 지원 60
나. 전통문화생활체험관 구축 61
(1) 매입 주체 62
○ 기업메세나 전략을 통한 체험관 조성 62

(2) 운영 주체 64
○ 지역주민단체 65
○ 기존 기관 및 업체 66
다. 안국역 문화쉼터 67

3. '선(Line)'의 활성화 69
가. 흩어진 문화인프라를 연계하는 투어 코스의 개발 69
(1) 벤치마킹 70
○ Seoul Mystery Walk(서울 신비 찾기 여행) 70
○ Beijing Hutong Tour : 뒷골목을 관광상품으로 71
○ 보스톤 프리덤트레일(Freedom Trail) 투어 72
(2) 북촌 도보여행 제안 73
○ 북촌 시간여행 (북촌의 사적 둘러보기) 73
○ 한옥 및 골목길 투어 73
○ 장인의 길 투어(Craft Tour) 73
○ 선(Zen) 혹은 불교문화체험 75
○ 궁중문화 체험 (Walking like a King) 76
○ 갤러리 투어 76
나. 문화의 거리 조성 77
(1) 삼청동 테마 거리 77
(2) 계동길 문화상품의 거리 78
(3) 비원 담장 거리 78
다. 시티투어 코스의 확대 80

4. '면(Surface)'의 활성화 82
가. 빌리지드레싱(Village Dressing)의 구현 82
나. 문화지도 작성 83

5. 홍보(Channel) 활성화 85
(1) 사이버 공간 홍보 85
(2) 지면 홍보 88
(3) 독자적 브랜드(TM)제작 89

6. 민관 파트너쉽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의 구축 89
가. 북촌 네트워크 형성 89
나. 북촌 네트워크의 역할 90

IV. 북촌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기계획 93

1. 전통문화관련 장인 및 업종의 점진적 입지 유도 93
2. 민간의 한옥매입 및 체험관 운영 유도를 위한 지원 94
3. 서울시 지정 사적의 부분적 개방 유도 95
4. 삼청동·성북동·가회동·인사동 문화벨트구축 95
5. 사안별 추진 단계 96

부록 99

부록 1. 민박신청서 99
부록 2. 한옥민박지침서 103
부록 3. 라보의 민박 사업 107
부록 4. 중저가 숙박시설의 지정 기준 114
부록 5.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공급 업체 116
부록 6. 문화 체험 관광 프로그램의 사례 122
가. Seoul Mystery Walk (서울 신비 찾기 여행) 122
나. Beijing Hutong Tour : 「뒷골목을 관광상품으로」 125
다. 보스톤 프리덤트레일(Freedom Trail)투어 127
라. 지례예술촌의 전통가옥 민박체험 129
마. 워터포드 페어(Waterford Homes Tour & Crafts Exhibit) 130
바. 낙안읍성 민속마을 133
사. 제주도 성읍 민속마을 134
부록 7. 7/28 실시 북촌 문화 관광 프로그램 사례분석 136
부록 8. 인사동 학교 프로그램 142
참 고 문 헌 144

그 림 차 례

〈그림 1〉 북촌 전통문화활성화의 추진체계 5
〈그림 2〉 장소마케팅의 절차 8
〈그림 3〉 북촌 한옥의 일반적 구조 18
〈그림 4〉 한옥 내부의 모습 18
〈그림 5〉 북촌의 역사문화자원 현황 20
〈그림 6〉 도서관 전경 21
〈그림 7〉 관내 김옥균집터 21
〈그림 8〉 서울교육사료관 22
〈그림 9〉 전시관 내부 22
〈그림 10〉 전시된 작품들 22
〈그림 11〉 박물관의 외관 22
〈그림 12〉 안국동 중앙선원 전면 23
〈그림 13〉 가회동 안국선원 전면 23
〈그림 14〉 선원내 불상 23
〈그림 15〉 궁중음식연구원 23
〈그림 16〉 전통병과교육원 23
〈그림 17〉 궁중다례연구소 23
〈그림 18〉 금현국악원 외관 24
〈그림 19〉 금현국악원 안내문 24
〈그림 20〉 전통인형 제작자의 공방 24
〈그림 21〉 전통인형 전시 24
〈그림 22〉 경복궁길 미술관의 거리 안내 표시판 25
〈그림 23〉 이리자 한복(전시관) 26
〈그림 24〉 아트선재센터 26
〈그림 25〉 학고재 26
〈그림 26〉 아트샵 26
〈그림 27〉 삼청동 까페거리의 시작을 알리는 진선북카페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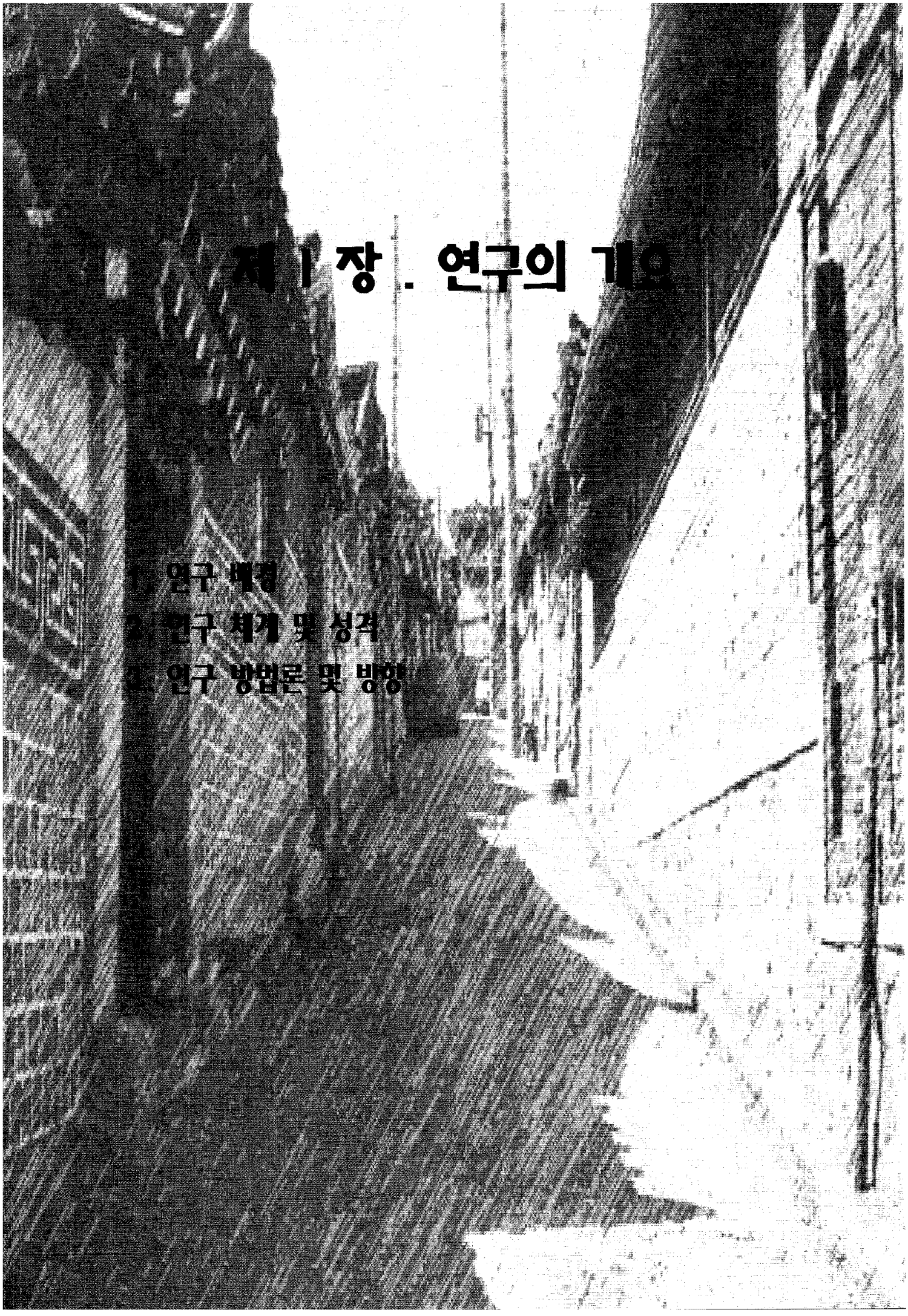
〈그림 28〉 한방차로 유명한 찻집 27
〈그림 29〉 유명한 수제비집 27
〈그림 30〉 특이한 디자인의 라이브카페 27
〈그림 31〉 카페의 내부 27
〈그림 32〉 삼청동길 테마카페 28
〈그림 33〉 재즈카페 28
〈그림 34〉 테마카페 28
〈그림 35〉 공방 28
〈그림 36〉 소격동의 공방 28
〈그림 37〉 전시장 28
〈그림 38〉 오색딱따구리가 사는 삼청공원의 산책길 29
〈그림 39〉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변신할 삼청각 29
〈그림 40〉 길상사 내부 모습 29
〈그림 41〉 북촌의 문화 인프라 30
〈그림 42〉 조선시대 3대 민가 정원중의 하나인 성락원 31
〈그림 43〉 전통 찻집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태준가 31
〈그림 44〉 만해 한용운선생이 살았던 심우장 31
〈그림 45〉 간송미술관 입구 32
〈그림 46〉 한국가구박물관 외관 32
〈그림 47〉 성북동의 문화자원들 32
〈그림 48〉 한옥에서의 일상과 만남 33
〈그림 49〉 원서동의 골목길 33
〈그림 50〉 골목길의 뛰노는 아이들 33
〈그림 51〉 가회동 한옥 밀집지역의 골목길 34
〈그림 52〉 생옻칠 기능보유자 신중현씨 34
〈그림 53〉 북촌의 장인 분포도 35
〈그림 54〉 서울게스트하우스의 이미자씨 36
〈그림 55〉 게스트하우스의 따뜻한 배려 기사가 실린 영자신문 36
〈그림 56〉 북촌의 장소성 37
〈그림 57〉 각 지역의 특화문화 개념도 42
〈그림 58〉 북촌의 장소마케팅 추진 체계 47

〈그림 59〉 점·선·면 의 개발 개념도 49
〈그림 60〉 민박가능자 분포도 51
〈그림 61〉 들어가는 골목 52
〈그림 62〉 대문 52
〈그림 63〉 마당의 소품들 52
〈그림 64〉 화단이 가꿔진 안뜰 52
〈그림 65〉 마당의 수돗가는 한옥의 특징 52
〈그림 66〉 민박 방 52
〈그림 67〉 한옥 대문 53
〈그림 68〉 내부 전경 53
〈그림 69〉 손수 제작한 쪽 보자기 53
〈그림 70〉 손수 만든 이바지 음식 53
〈그림 71〉 들어가는 입구의 대문 54
〈그림 72〉 내부 전경 54
〈그림 73〉 마당 54
〈그림 74〉 민박 방 54
〈그림 75〉 청결한 옥외 화장실 54
〈그림 76〉 들어가는 대문 54
〈그림 77〉 내부 전경 54
〈그림 78〉 내부 전경 2 54
〈그림 79〉 방 내부의 자개장 55
〈그림 80〉 내부 전경 3 55
〈그림 81〉 청결히 관리된 화장실 55
〈그림 82〉 교토의 전형적 민박집 56
〈그림 83〉 '꿈꾸는 베개' 57
〈그림 84〉 '꿈꾸는 베게'에 수록된 민박가옥의 지도 57
〈그림 85〉 '꿈꾸는 베게'의 내용 57
〈그림 86〉 게스트하우스의 침실 58
〈그림 87〉 인터넷 컴퓨터 구비(서울게스트하우스) 58
〈그림 88〉 민박 상표인 「지트 드 프랑스」의 표시 58
〈그림 89〉 외관 64

〈그림 90〉 정원 64
〈그림 91〉 위에서 내려다 본 사진 1 64
〈그림 92〉 위에서 내려다 본 사진 2 64
〈그림 93〉 안국역 문화쉼터 68
〈그림 94〉 안국역 문화쉼터 68
〈그림 95〉 문화쉼터내 안내센터 68
〈그림 96〉 문화쉼터에서 제공하는 인사동 정보 68
〈그림 97〉 안국역문화쉼터 69
〈그림 98〉 북촌문화쉼터 69
〈그림 99〉 중국의 전통 가옥 사합원 71
〈그림 100〉 레드라인이 시작되는 보스턴 관광안내센터 72
〈그림 101〉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의 Craft Map 75
〈그림 102〉 미술관 순회버스 76
〈그림 103〉 미술관순회버스노선도 77
〈그림 104〉 미술관순회버스 정류소 표시 77
〈그림 105〉 훼손된 비원 담장길 79
〈그림 106〉 문화의 거리 위치도 79
〈그림 107〉 북촌일대의 마을버스 및 미술관 순환버스 노선 80
〈그림 108〉 서울시 시티투어 모식도 81
〈그림 109〉 노란색 상징물을 이용한 서울게스트하우스 82
〈그림 110〉 진부한 디자인의 가회동의 바닥 82
〈그림 111〉 정보전달의 역할만 하는 성북동 명소 안내표지판 83
〈그림 112〉 전체적으로 통일된 디자인을 견지하는 영국 버밍햄 ..83
〈그림 113〉 보스턴프리덤트레일의 상징인 도로바닥의 메달리온 ..83
〈그림 114〉 Click Culture에서 제작한 화장실 문화지도 84
〈그림 115〉 인사동 · 북촌 살펴보기지도 84
〈그림 116〉 민박주선업체 라보의 홈페이지 85
〈그림 117〉 라보의 온라인 예약 화면 85
〈그림 118〉 월드컵 대비 증저가 숙박업소인 월드인의 홈페이지 ..87
〈그림 119〉 영어 메인 화면, 온라인 예약이 가능함 87
〈그림 120〉 프랑스민박 브랜드「지트 드 프랑스」 89

〈그림 121〉 한국의 일상적 5첩반상 104
〈그림 122〉 5첩반상의 메뉴 104
〈그림 123〉 서예체험 116
〈그림 124〉 장구치기 116
〈그림 125〉 김치담그기 116
〈그림 126〉 손스홈의 홍보 팜플릿 116
〈그림 127〉 프로그램과 이용안내(영어/일어) 116
〈그림 128〉 전통을 살린 내부 인테리어 117
〈그림 129〉 전통을 살린 대청과 깨끗이 정돈된 수세식 화장실 118
〈그림 130〉 안뜰과 장독대 등 전통적 요소들이 풍부 118
〈그림 131〉 2개 국어로 된 홍보 팜플릿 119
〈그림 132〉 제공 프로그램 및 이용방법 안내 119
〈그림 133〉「음풍농월」의 상품화 119
〈그림 134〉 한산기획 팜플렛 121
〈그림 135〉 홍보 타겟 : 고급 취향의 일본 관광객 121
〈그림 136〉 미스터리워크의 코스 : 절두산 성지 122
〈그림 137〉 미스터리워크의 코스 : 광화문 해태 123
〈그림 138〉 미스터리워크의 코스 : 유관순기념관 123
〈그림 139〉 "후통행"이라고 쓰여진 관광객용 인력거 125
〈그림 140〉 후통은 문화와 소통의 공간 125
〈그림 141〉 중국 전통 가옥(사합원)의 구조 126
〈그림 142〉 꾸미지 않은 후통의 모습 126
〈그림 143〉 베이징 거리거리를 연결하는 후통 126
〈그림 144〉 중국서민들의 삶의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126
〈그림 145〉 후통에 위치한 가정에서의 중국식 식사 126
〈그림 146〉 프리덤트레일의 레드라인 127
〈그림 147〉 프리덤트레일의 상징 128
〈그림 148〉 보스턴 관광안내센터 128
〈그림 149〉 보스턴의 역사유적 코스 128
〈그림 150〉 지례예술촌의 한옥 129
〈그림 151〉 지례예술촌의 전경 129

〈그림 152〉 워터포드페어의 모습 130
〈그림 153〉 워터포드의 하우징 투어 131
〈그림 154〉 공예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132
〈그림 155〉 Leslie Myers House 132
〈그림 156〉 낙안객사 133
〈그림 157〉 마을의 전경 133
〈그림 158〉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 134
〈그림 159〉 마을 내부 135
〈그림 160〉 갈옷 135
〈그림 161〉 한복전시관의 외국인들(동아일보 7/30) 136
〈그림 162〉 전통목공예 전문가 신명덕선생댁을 찾은 외국인들 136
〈그림 163〉 자연염색에 대해 설명하고 계신 조일순선생님 137
〈그림 164〉 '쪽'을 이용한 전통염색을 체험 137
〈그림 165〉 한지부채에 수묵화 체험 137
〈그림 166〉 국악의 매력을 감상하는 참가자들 137
〈그림 167〉 오후 5시 막을 내린 북촌 투어 137
〈그림 168〉 북촌 문화 탐방 코스 국문판 지도 140
〈그림 169〉 북촌 문화 탐방 코스 영문판 지도 141



제 1 장 .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2. 연구 체계 및 성격
3. 연구 방법론 및 방향

빈 면

I.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 북촌지역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이 연구는 실질적으로 월드컵 개최 시 전통숙박을 마련하려는 현실적인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하였음. 현재,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외국인 방문객들의 수는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에는 이들을 수용할 우 있는 설비와 프로그램을 갖춘 이와 같은 전통숙박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임. 따라서, 월드컵 개최 시 외래방문객들의 숙박수요를 양적으로 충족시킴과 동시에, 서울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박 공급의 질적인 측면을 제고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에서 이 연구의 목적이 도출되었음

◦ 그러나, **전통숙박이라는 '점(point)'적 존재는 주변 지역과의 기능적 · 물리적 연계를 통해 선(line)적, 면(surface)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최적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또한, 북촌 지역에는 현재 한옥 등록제 실시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 경관 및 전통을 보전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월드컵이라는 메가이벤트가 북촌 지역 활성화의 촉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숙박 뿐 아니라 이와 연계된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까지 한께 고려하게 되었음

◦ 실제로, 메가 이벤트 개최를 통해 쇠락한 도시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도시정부의 노력은 바르셀로나 올림픽 등 여러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음. 메가 이벤트는 전세계 미디어의 관심이 집중되고 대량의 관광객들이 유입됨에 따라 해당 도시의 문화 및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도시마케팅(City Marketing)'**에 최적의 기회를 제공함

◦이와 같은 배경에서, 서울 시내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한옥이 밀집해 있는 북촌 지역을 대상으로 전통숙박시설 공급과 더불어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전통문화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음. 따라서, 이 보고서는 현재 서울시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북촌 전통경관 보존계획을 뒷받침하고 북촌의 '장소마케팅'을 본격화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임

◦결국, 이 연구는 서울시에서 진행중인 '전통한옥지구 보전 전략'이라는 뼈대위에 월드컵이라는 대형이벤트를 계기로 하여 전통문화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과정이라는 살을 덧붙이는 성격을 지님. 이를 시작으로 향후 전통한옥지구 보전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임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일련의 노력과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목표는, 북촌지역에 전통숙박 및 전통 문화적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서울시 장소마케팅의 기반을 마련하고 '현대 도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전통 이미지'를 제고**하며 나아가 월드컵 및 향후 문화 관광 진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임

2. 연구 체계 및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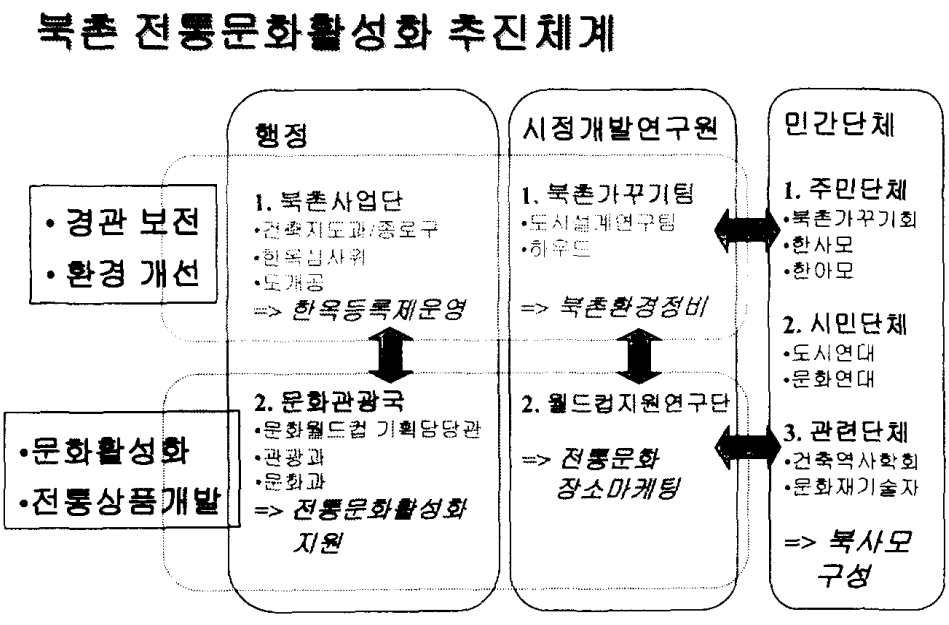
가. 지역 행위 주체 '네트워크'에 입각한 연구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북촌지역의 전통문화 재활성화 계획은 지금까지 서울시 건축지도과와 시정개발연구원 도시설계팀이 진행해 온 북촌가꾸기 사업에 기본 토대를 두고 있음. 서울시의 한옥 매입은 2000년도부터 진행되었으며, 한옥 개보수에 대한 지원 역시 2001년 1월 건축조례 개정/공포를 시작으로, 4월 건축조례규칙 제정/공포 및 한옥등록제 시행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북촌 한옥 지구 보전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상태임

◦이와 발맞추어 전통숙박 등 북촌의 전통문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월드컵지원연구단은 서울시 관광과와 더불어 2001년 4월부터 본격적인 실태조사와 주민조사를 실시함. 본 연구진은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 건축지도과 및 시정개발연구원 북촌가꾸기팀과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해 왔음

◦한편, 과제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서울시의 카운터파트로는, 한옥등록실행 및 인센티브 제공, 한옥매입 등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지도과와 전통문화활성화 및 상품개발 등을 담당하게 될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 및 관광과가 됨

◦한편,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북촌가꾸기' 사업과 월드컵지원연구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북촌 전통문화 활성화' 사업은 지방자치 본연의 정신을 살려 일상 생활환경의 계획과 개선, 정비과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이른바 **'마을만들기'**의 관점을 견지함.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가는 과정에 **마을주민들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여'가 핵심**이 됨



<그림 1> 북촌 전통문화활성화의 추진체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 모임(한옥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한옥을아끼는시민들의모임, 북촌가꾸기회, 그 밖의 개별 연구원 및 박물관 소유인 등)과의 커뮤

니케이션 과정을 거쳤으며, 다양한 집단의 상이한 이해관계 속에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음

◦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 주민과 행정, 그리고 전문가로 이루어진 **긴밀한 행위주체 '네트워크'에 입각한** 과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 보고서에 제시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제안은 관련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한 활발한 의사소통을 결과로 도출된 것임

나. 향후 과제 제시형 연구

◦ 이 연구는 북촌 전통문화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이러한 계획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연구진 스스로 '발로 뛰는' 연구의 기본을 견지해 왔음. 즉, 관련주체들과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며,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직접 행동하는, 이른바 **CPI (Consultation-Planning-Implementation)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이를 위해, **관련 주체들간에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음. 그 예로, '(가칭)전통민박조합' 등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며, 서로 다른 단체에서 진행되어 오던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만남의 자리를 만들기도 하였음. 이러한 노력의 결과, 북촌 전통문화 구현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이미 연구진에서 제시한 민박신청서와 민박지침서를 기준으로 하여, 북촌 지역 내 실질적 전통 민박 사업이 틀을 갖추어 가고 있으며. 지난 7월 28일에는 한 시민 단체에 의해 북촌의 문화탐방코스가 기획되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려는 50여명의 외국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음

◦ 따라서, 이 보고서는 북촌 지역활성화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별개로 진행되어 온 과업간에 유기적 연계고리를 부여하고, 향후 진행될 과업들을 제시하는 하나의 출발점이며, 10여년의 기간이 필요하리라 예상되는 북촌 지역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관심을 유도하는 디딤돌이 될 것임.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지속성'**에

초점을 둔 연구를 진행하였음

◦ 본 연구진은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현실화하고,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좀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북촌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임

3. 연구 방법론 및 방향

◦ 본 보고서에서는 '북촌'이라는 특정 지역의 전통 문화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략 개념으로서 '장소마케팅'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함

가. 장소마케팅[1)]

(1) 장소마케팅이란

◦ 장소마케팅이란, 기업, 자본, 관광객,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까지 지리적으로 규정된 **'장소'의 이미지를 '팔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주체들이 벌이는 다양한 노력을 지칭함.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장소마케팅이란 그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재생을 위한 노력을 지칭하기도 함[2)]. 장소마케팅에서 **장소는 '장소 상품'을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간주**되고 있음

◦ '마케팅(Marketing)'이라는 개념은 보다 '수요 지향적' 가치관을 견지한다는 면에서 '판매(Selling)'와는 다른 의미를 지님. 이런 면에서, 마케팅은 어떤 장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Identity) 판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관점을 지니게 됨

---

1) Yeong-Joo HAHN and Laam HAE, "The 2002 World Cup and City Marketing", 17th Pacific Conference(Portland, Oregon, USA, June, 30 ~July, 4, 2001) 발표논문

2) Kearns, G. & Philo, C., 1993, 「Selling Places: The City as Cultural Capital, Past and Present」, Pergamon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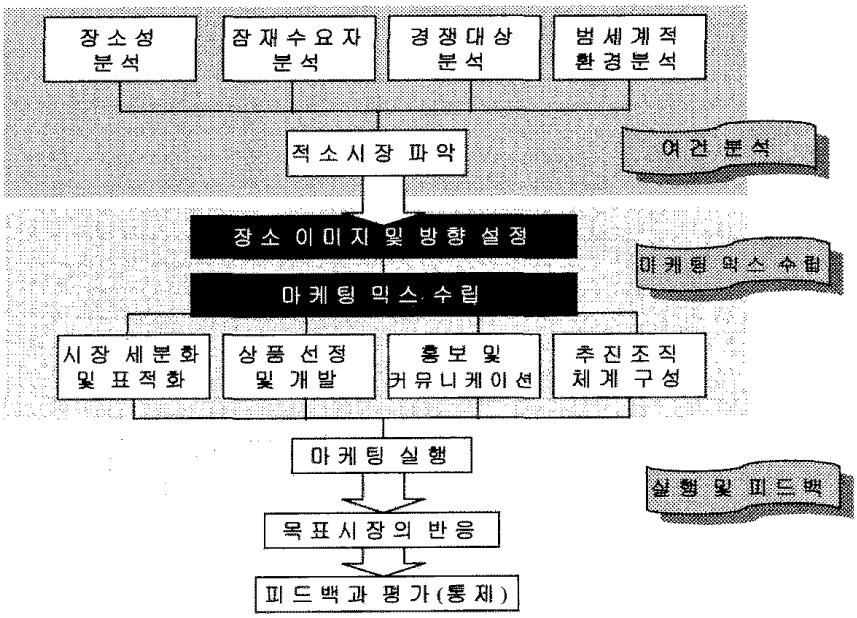
◦ 또한, 마케팅은 도시개발에 있어 **지속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도시의 **고유성**을 구현하는데 집중하고 **문화, 사회적 활성화**를 염두에 둔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하고 통합적인 접근**을 취함

◦ 따라서, 장소마케팅은 한 장소를 바람직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근원적 계획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장소마케팅은 그 접근방식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절차**를 취함

- 첫째, 현재 그 장소를 둘러싸고 있는 범세계적 문화관광환경과 장소가 보유한 자원 및 잠재적 장소 소비자들의 수요, 그리고 경쟁장소의 여건을 파악한 후,
- 둘째, 지역발전의 장기비전과 목표, 그리고 지향하는 이미지를 수립하고 장소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소 시장을 파악하여,
- 셋째, 이러한 목표를 최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 세분화와 표적화를 정밀하게 수행하고 이에 따라 상품개발, 홍보, 조직구성 전략을 수립함

◦ 이와 같은 마케팅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2> 장소마케팅의 절차

◦ 장소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마케팅 믹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요함

- 차별화된 도시 정체성과 이미지를 수립하고 집중적으로 홍보
- 장소의 특정 지구를 재개발하거나 재생
- 물리적 인프라 구축
- 도시 건조 환경의 개선 및 심미화
- 장소 축제들의 재활성화

◦ 특히, 북촌이 가지고 있는 **Image, Point, Target, Channel (IPTC)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분석**[3]을 통해 장소의 장기적 비전과 이미지, 적절한 마케팅믹스를 도출해 내야 할 것임

(2) 메가 이벤트와 장소마케팅

◦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메가 이벤트는 비록 짧은 기간에 일시적으로 개최되지만 개최기간 및 사후의 사회/경제/문화적 파급효과 등 측면에서 단순한 이벤트 자체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전 세계 미디어가 메가이벤트 그 자체뿐 아니라 그것이 개최되는 도시 및 장소에 집중하여 해당 도시의 관광, 문화, 주민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 모두가 관심의 초점이 되기 때문임

◦ 따라서, 각 개최도시는 그들이 보유한 문화·관광적 잠재력이 높은 자원들을 상품화하고 마케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됨. 즉, **메가이벤트는 '도시마케팅의 효과적인 촉매로 기능**하게 됨

◦ 따라서 메가이벤트을 유치하는 지역에서는 개최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장소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장소마케팅'이라는 전략을 통해 장소라는 '브랜드'를 미디

3) 지역의 관광 요소를 개발하고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은 대개 이미지(Image), 포인트(Point), 타겟(Target), 채널(Channel)의 요소들을 개발하고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이루어짐. 「세일즈이미지」는 해당 지역의 대표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구현하는 다양한 이미지 구성요소를 설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세일즈포인트」는 설정된 이미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나 상품의 선정을 의미함. 「세일즈타겟」은 선정된 「세일즈포인트」를 집중적 으로 향유할 수요자 집단이나 홍보층의 설정을 의미하며, 끝으로 「세일즈채널」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개발된 지역의 매력요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일종의 통로를 의미함

어에 노출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게 됨

(3) 북촌 장소마케팅의 지향성

◦ 장소마케팅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정교하고 통합적인 접근방식으로서 **장소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일련의 통합적 지역개발 방식**임. 특히, 메가이벤트 개최를 위해 준비하는 전략들은 자칫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성격을 지닐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의 개발 정책과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장기적 시각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소의 장기적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소마케팅 전략은 다음과 같은 지향성을 지녀야 할 것임

○ 장소의 장기적 비전을 수립한 후 개별 전략이 통합될 수 있는
거시적 시각의 구축

○ 장소 이미지 및 상품이 장소성을 반영하고 차별성을 지닐 수 있는
장소의 고유성 확립

○ 발굴·개발된 상품들이 기능적·물리적·심미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효율적 연계성의 구축

○ 타 장소와의 기능적·물리적·문화적 상호 보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삶의 질을 고려하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내부지향성의 견지

○ 개발된 상품과 전략이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전략의 지속성 유지

나. 북촌의 장소마케팅

◦ 앞서 기술한 장소마케팅의 전략적 틀을 토대로 북촌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이 지역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음

○ '문화관광'적 개발의 추진 : 체험과 소통의 문화 보전 개발

◦ 북촌의 현재 생활 형태들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대규모·대량 관광이 아니라 대안적인 문화관광 개발 모델이 구축되어야 함

○ 전통문화의 생산, 유통, 소비, 향유의 '순환적 뿌리내림'
: 전통문화의 인큐베이터

◦ 전통문화가 지역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의 생산, 유통, 향유가 순환적이고 전후방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역적 토대를 마련해야 함

○ 범지역적 민관 네트워크 구축

◦ 행정주도가 아닌, 주민과 행정의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주민참여적 마을만들기 운동의 모델을 만들어야 함

○ 지역 고유의 차별적 연계성 확보 : 지역간 기능적 네트워크 구축

◦ 북촌과 그 주변지역의 고유성에 입각한 개발을 통해서, 북촌지역을 구성하는 지역들간에 차별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지역적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함

○ 지역간의 유동적 연계성 확보 : 보행과 시티투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외적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서 내부는 보행위주로, 외곽은 시티투어와 기존 마을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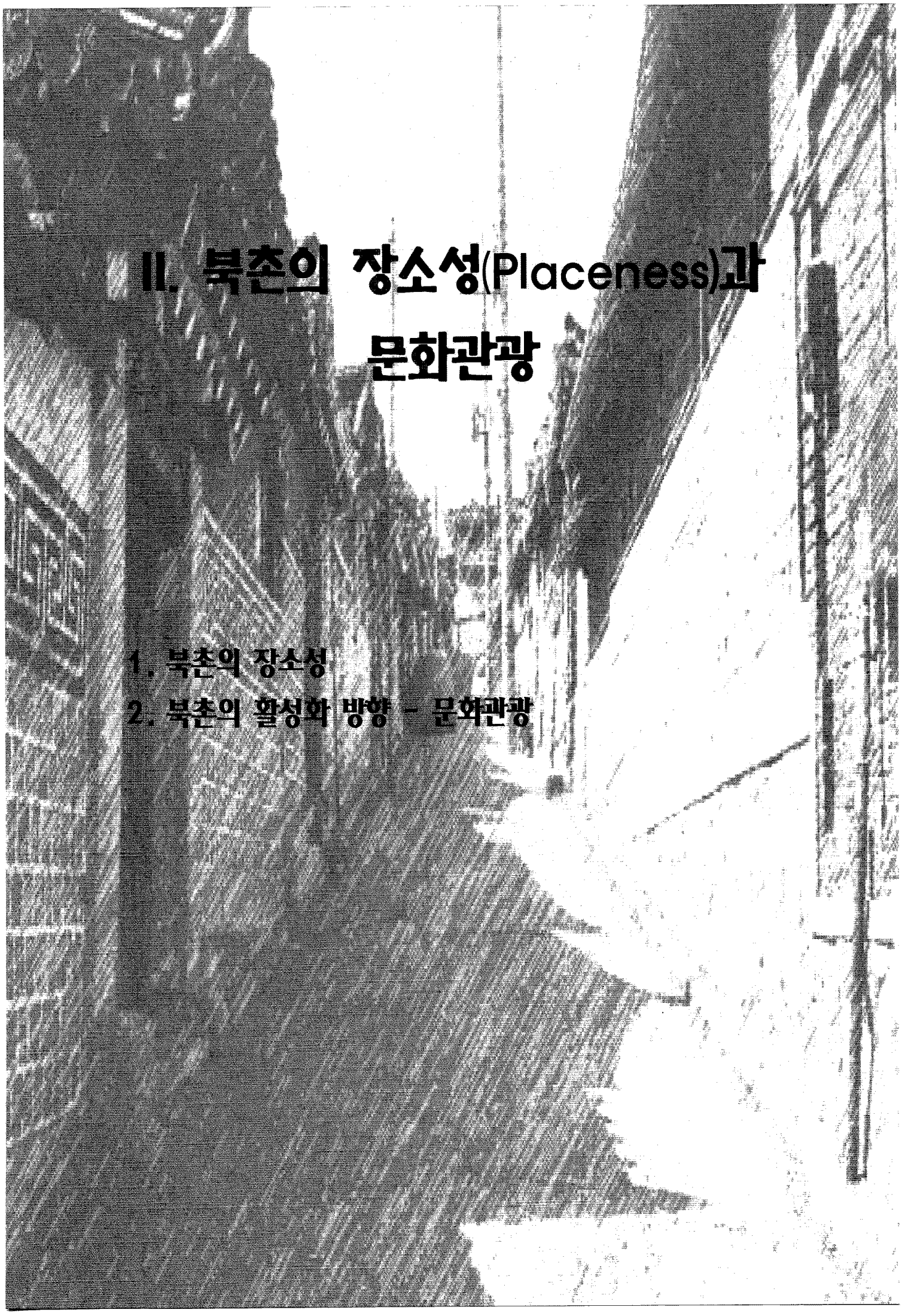
⇒ 이에, 북촌 지역의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한 장소마케팅의 컨셉을

(1) **<u>전통문화 및 생활문화의 체험과 교육</u>**

(2) **<u>다문화(多文化)간 소통</u>**

으로 삼고자 함

빈 면



II. 북촌의 장소성(Placeness)과 문화관광

1. 북촌의 장소성
2. 북촌의 활성화 방향 - 문화관광

빈 면

II. 북촌의 장소성(Placeness)과 문화관광

1. 북촌의 장소성[4)]

가. 재산권 투쟁의 장에서 '문화 정치', '의미의 정치'의 장으로

◦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서울의 다른 곳의 한옥은 대부분 모습을 감추었으나, 1970년대 가회동 일대가 민속경관지역(법적 효력은 없었음)으로 지정되면서 이 지역에서 한옥 보전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했음

◦ 이어 1983년 7월 집단 4종 미관 지구로 지정되었으며, 1984년 4월에는 한옥보전비구로 지정, 그에 따르는 건축 관계 기준과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물의 높이, 양식, 건축선 등 세세한 부분에까지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었음

◦ 그 이후, 서울시민은 물론, 서울시 당국이 이 지역이 한옥군을 주로 하는 전통적 거주지역으로 가꾸어져 갈 것으로 기대하였던 반면, 이 지역 주민들은 위의 조치들을 재산권의 침해로 받아들여 몇 차례의 진정과 집단 시위를 계속하는 등 장기간 속앓이를 해왔음

---

4) 장소성에서의 장소(place)는 공간(space)과는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공간(space)」이 동일한 소환경에 대한 물리적 개념이라면, 「장소(place)」는 문화적이고 지역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여 나타나는 맥락적 의미임. 즉 공간은 거리, 방향, 위치 등의 가치를 지니는 지구 표면의 공간인 반면, 장소는 인간의 눈과 마음, 태도와 가치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과 공간이며, 체험을 통해 공간을 더 잘 이해하고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형성됨. 즉 장소는 의미가 부여된 공간을 의미함. 장소성은 이러한 장소의 본질, 구체적으로는 장소가 지니는 의미이며, 인간의 체험을 통해 나타나는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의식 또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음(Sense of place, Genius loci, Spirit of place, Placeness 등 학문적 논의가 다양함). 요약하면 장소성이란 개인 또는 집단적 인식, 특수성과 공통성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형성하는 요소로는 자연환경, 인공환경이 가진 특성은 물론, 사람들, 문화적 정체성 등이 포함됨. 결국 장소성은 어떤 장소에 대한 의식적 애착이며, 그 장소가 가진 정체성으로 구성됨(월간 「국토」 2001년 5월호, 39p

◦이와 같은 동결식 한옥보전방식은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혀 1991년 이후, 주거환경 개선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준이 다소 완화되기 시작함.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는 북촌지역에 다층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난립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음, 상황이 이렇게 되자 건축규제를 반대해 오던 주민들도 늦게나마 역사성 보존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함

◦이렇듯 전통가옥지구의 보전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재산권의 보호라는 두 가지 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고자 현재, 여러 분야에서 의견이 개진되고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음[5].

◦현재 북촌 개발 담론에 있어 재산권이라는 첨예한 사안이 여전히 중심이 되고 있으나, 북촌 한옥 등록제라는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가 제시되고 북촌 한옥 보전에 대한 새로운 상이 제시되면서, **북촌의 장소성을 어떻게 구현하고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화 정치, 의미의 정치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여전히 서울시 북촌정책에 반대하는 주민들, 전통문화의 상업화를 주장하는 이들, 거주지로서의 북촌 보전을 주장하는 이들 등 **북촌의 장소적 아이덴티티의 규정과 개발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북촌 개발 방향의 설정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음**

나. 역사 속의 북촌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 율곡로와 삼청공원으로 둘러싸인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원서동, 계동, 재동, 안국동, 소격동, 사간동, 송현동, 화동 일원을 지칭하며, 면적은 645,000㎡(약 195,000평)에 이르는 전형적 주거 지구를 이루고 있음

◦인구는 1999년 현재 12,989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한옥구성비는 2000년 2월 현재 전체 주택의 41.2%에 이르며, 이 역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북한산(北岳 또는 白岳)의 남향 자락인 가회동, 삼청동, 인사동 부근의 「北村」[6]

5) 자세한 내용은 (정석, 2000) 참조

과, 청계천 건너 남산 밑의 「南村」은 조선조 한양의 양반촌을 이루고 있었음[7]

◦ 남산의 북향기슭에 자리잡은 남촌은 벼슬에는 별 욕심이 없거나, 아직 벼슬을 하지 못한 딸깍발이 선비들이 모인 동네였음에 비해, 가회동을 중심으로 한 북촌은 동쪽의 창경궁과 창덕궁, 서쪽의 경복궁 사이에 위치하여 조선조 초기부터 왕족과 사대부 계급의 저택이 들어서 있어, 소위 '實勢'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음

◦ 일제의 조선침략과 함께 가회동도 쇠락의 길을 걷게 되어, 조선총독부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라 소규모 '도시형 한옥' 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음. 이로 인해 권문세가의 필지로 남아있던 큰 땅들이 분할되어 30평 정도의 소필지로 나누어지기 시작했음(일례로 가회동 11번지 일대는 원래 2,700여 평의 대규모 필지였음)

◦ 소필지로 나뉘어진 필지 위에 당시의 집 장수들이 한옥을 지어 신흥 중산층에게 분양한 집들이 대부분 현재의 가회동 한옥들임

◦ 북촌에는 **좌우에 위치한 두 개의 궁과 다양한 박물관 이외에도 귀족 및 왕족의 거주지였던 지역의 역사와 1970~1980년대 정부의 동결식 규제 덕분**에, 사적, 민속자료, 천연기념물 등 60개에 이르는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하며, 다행스럽게도 대부분 그 원형을 잃지 않고 있음

◦ 특히, 대도시 서울에서는 좀처럼 발견할 수 없는 **한옥 생활경관 및 생활양식이 보전**되어 있다는 점은 가회동이 인근 다른 역사적인 장소와 차별되는 장점임

◦ 또한 북촌에는 정독도서관, 궁중음식연구원, 한국불교미술박물관, 불교선원, 국악원 등 전통/문화 관련 기관이 다양하게 입지하고 있어, 문화 관광적 개발의 가능성과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음

◦ 이 외에도 사간동 일대의 갤러리 밀집지역, 삼청동의 카페 및 음식점, 삼청공원, 성북동의 삼청각, 심우장, 성락원 등 연계 가능한 매력요소들이 무궁무진함

---

6) 북촌의 어원은 청계천과 종로 북쪽에 입지한 지역적 특성에서 기원함
7) 최재필(1998) '도시문화읽기 : 가회동 11번지 한옥촌'

다. 북촌의 장소를 재현하는 요소들

(1) 하드웨어(Hardw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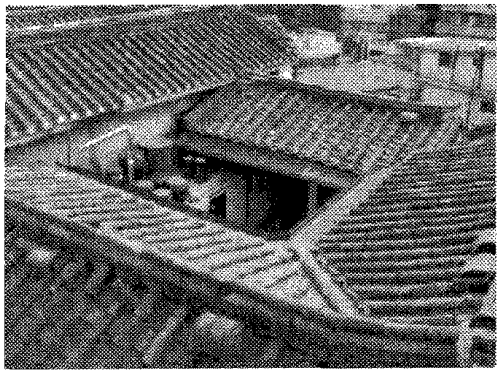
○ 전통적 생활 양식의 재현 공간(Where they have lived)

◦ 북촌에는 조선시대부터 일제시대를 거쳐 지어진 다양한 모습의 전통적 한옥을 보유하고 있는데, 2000년 2월 현재, 북촌의 가옥 중 한옥은 총 947동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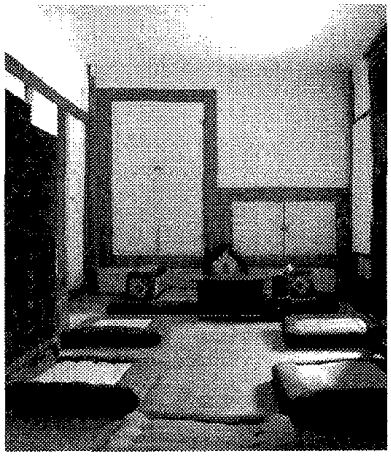
◦ 특히 가회동 31번지, 11번지 및 인촌기념관 인근지역의 한옥들은 상태가 양호하고 규모가 비교적 넓음

◦ 북촌지역 한옥의 평균 대지규모는 약 35.5평으로 단아한 한옥을 모습을 보여줌

◦ 나무 대문, 기와, 처마, 대청마루, 창틀, 장독대, 꽃이 핀 작은 안뜰 등 한옥의 모든 구성 요소 및 한옥의 구조 및 이루는 선까지 모든 것들이 훌륭한 문화 자원이 될 수 있음



<그림 3> 북촌 한옥의 일반적 구조



<그림 4> 한옥 내부의 모습

○ 헤리티지의 공간(Space of Heri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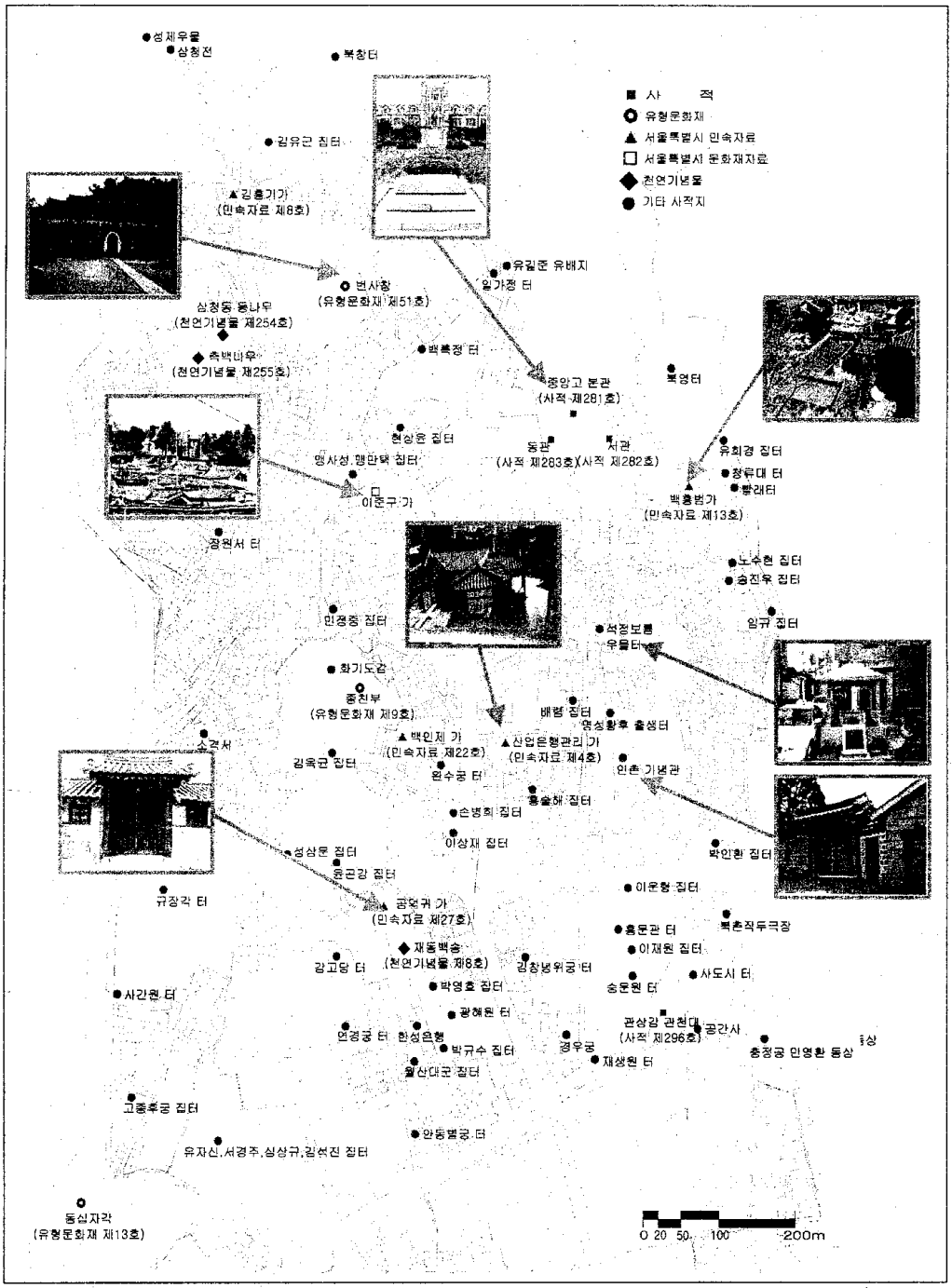
◦ 북촌은 양궁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조선시대 귀족과 양반들의 거주지로 형성되어 유서 깊은 문화 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

◦ 사적 4곳, 서울시 민속자료 4곳, 유형문화재 3곳, 문화재 자료 1곳 이외에, 계동길 석정길 보름우물, 광혜원터 등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자원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음[8],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중 목욕탕의 효시인 중앙탕등 흥미로운 장소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음, 그 현황 및 분포는 다음과 같음

종류	명칭	위치	건축시기	내용	소유
사적 제281호	중앙고등학교본관	계동 1	1937	박동진 설계의 고딕풍건물.	중앙고
사적 제282호	중앙고등학교서관	계동 1	1921	일본인 中村與資平 설계	중앙고
사적 제283호	중앙고등학교동관	계동 2	1923	일본인 中村與資平 설계	중앙고
사적 제296호	관상감 관천대				
민속자료 제13호	백홍범가	원서동 9-9	1910		(주)한샘
민속자료 제14호	산업은행 관리가	가회동 178	1920	서양풍과 일본식의 절충 한옥으로 문화주택 초기양식	연강학술재단
민속자료 제22호	백인제가	가회 93-1	1874	한상룡이 압록강의 흑송으로 지은 한옥	백낙훤
민속자료 제27호	공덕귀가	안국동 8-1	1880	윤보선 전 대통령 살던 집	공덕귀
유형문화재 제9호	종친부	화동 1 정독도서관내	1433	諸君府를 고친 것	교육청
유형문화재 제13호	동십자각	사련동 126			종로구
유형문화재 제51호	번사창	삼청동 28-1			한국은행
문화재자료	이준구가	가회 31-1			이준구
천연기념물 제8호	재동백송	재동 35		박규수의 집 일부 언저리	헌법재판소
기타 사적지	선학원	안국 40	1923	일제 한국불교의 일본화를 막기 위해 건립	
기타 사적지	손병희선생집	가회동 170-12		1919년 2월 28일 3·1운동 최종 회합 장소	
기타 사적지	제생원	계동 140-2		민생구제사업과 약재를 담당하던 관아	
기타 사적지	김옥균집터	화동 106 정독도서관		갑신정변의 주역	
기타 사적지	박인환살던 곳	원서동 215			
기타 사적지	광혜원	헌법재판소	1885	1885년 2월 29일 개원한 왕립병원	
기타 사적지	성삼문 살던 곳	화동 23-9		사육신의 한사람	
기타 사적지	불교미술박물관	원서동 108-4		불교미술문화 전반의 미술품을 전시	
기타 사적지	복주우물	화동 47번지		창덕궁에서 사용하던 우물	

〈표〉 북촌의 역사문화 자원 현황(정석, 2000, 16p)

8) 정석(2000), 14p



<그림 5> 북촌의 역사문화자원 현황

○ 역사적 공간(Historical Space)

◦ 또한 북촌에는 3·1운동의 참여를 이끈 '역사의 현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의미있는 장소임[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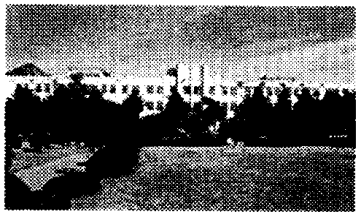
◦ 근대사의 무대가 됐던 건물들 중에는 계동의 인촌 김성수가(家)(1919년 2월11일 최남선의 편지를 받고 상경한 이승훈이 송진우와 만나 기독교측의 3·1운동 참여를 이끌어낸 역사적 장소), 만해 한용운이 거처하던 집(3·1운동 당시 보성고보 교장이었던 최린이 한용운을 찾아가 불교계의 3·1운동 동참을 확약받은 곳) 등이 있음

◦ 갑신정변의 흔적도 곳곳에 남아 있는데, 김옥균, 박영효 등 정변 주역들의 집과 우정국을 비롯한 정변 현장이 개화파의 스승이었던 박규수의 집터(헌법재판소 구내 서북쪽 백송이 있는 자리)를 중심으로 반경 300m 안팎에 모여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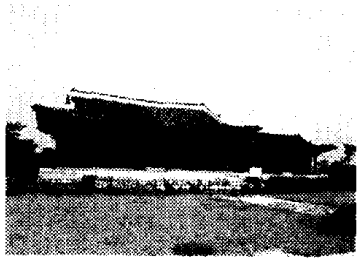
○ 전통의 새로운 구현물들 (Where Old Meets New)

◦ 정독도서관

- 북촌에는 김옥균 생가 터이자 옛 경기고 자리인 정독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곳은 봄과 여름에 만개하는 벚꽃과 장미꽃, 울창한 숲으로 이미 이름 높음



<그림 6> 도서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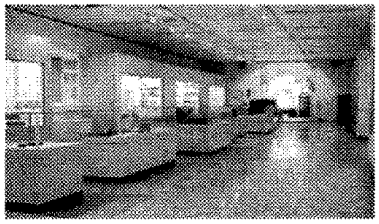
<그림 7> 관내 김옥균집터

- 또한 내부에 위치한 서울교육사료관은 삼국시대부터 오늘에 이르는

9) 동아일보 2001년 7월 3일자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모습을 살펴 볼 수 있도록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활동 등에 관한 각종 도표, 사진, 유물 등을 시대별로 전시하고 있는 교육박물관이기도 함

<그림 8> 서울교육사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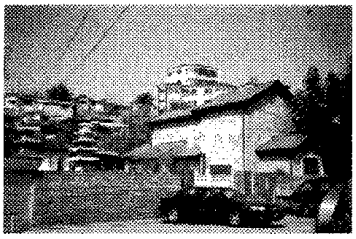


<그림 9> 전시관 내부

◦ 한국불교미술박물관

- 원서동 108번지에 1993년 7월에 개관한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은 조선시대의 불화 및 불상, 조각, 공예품을 비롯하여 한국 불교 미술 문화의 전반을 나타내는 미술품 및 유물 500여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특히 조선시대의 불화 및 불상, 조각, 공예품은 상당한 수준으로 당시 불교미술수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품임. 독립된 전시장 건물에 2개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음

<그림 10> 전시된 작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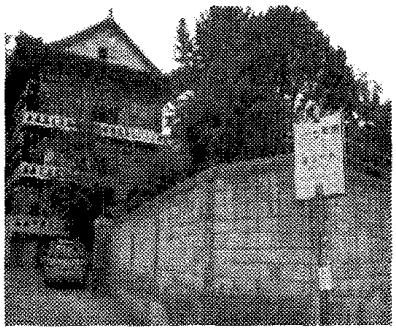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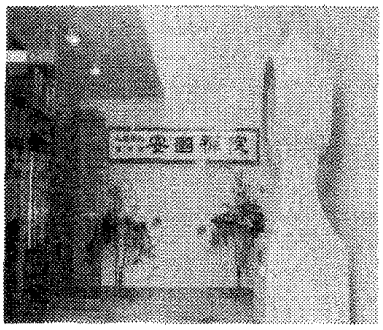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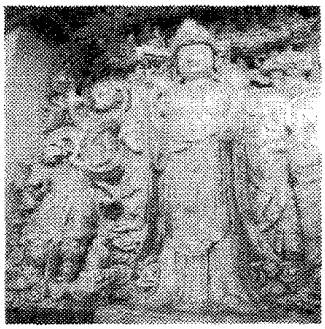


<그림 11> 박물관의 외관

◦ 종교 선원

- 안국동 40번지에 위치한 조계종 선학원 중앙선원은 이국적인 외관으로 방문객들의 눈길을 끄는 독특한 문화 자원이 되고 있음
- 또한 가회동 10-3번지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안국선원은 법당 및 선방, 공양실, 안국다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원 내에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불교 장식품을 보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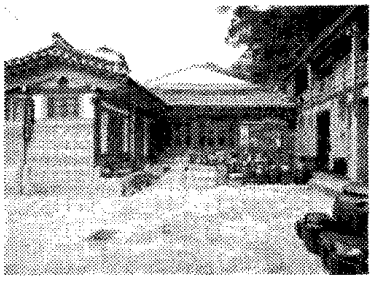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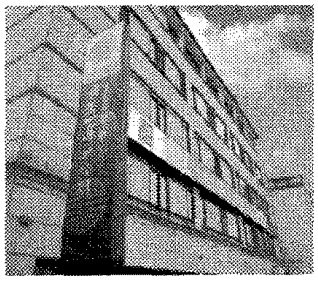




<그림 12> 안국동 중앙선원 전면 <그림 13> 가회동 안국선원 전면 <그림 14> 선원내 불상

- 이와 같은 선원들과 북촌내의 법륜사 불일미술관, 불교미술박물관 등 풍부한 불교 관련 문화 자원들을 적절히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궁중음식연구원/전통병과교육원/궁중다례연구소

- 원서동에 위치한 궁중음식연구원(전수관)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38호 조선왕조 궁중음식 기능보유자인 황혜성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궁중음식의 전수교육 및 발표회를 통한 전시를 활발히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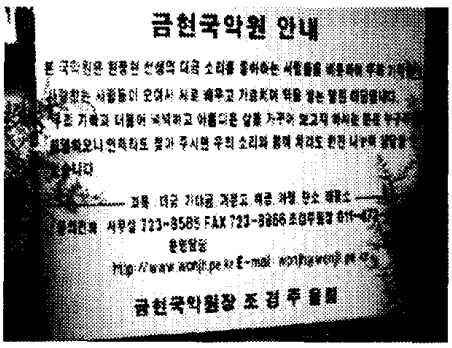
<그림 15> 궁중음식연구원 <그림 16> 전통병과교육원 <그림 17> 궁중다례연구소

- 가회동의 궁중음식연구원 부설 전통병과교육원은 우리의 전통 떡, 과자전문기능인을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진 곳임. 궁중다례연구소는 윤보선가 근처의 현대식 건물 3층에 자리잡고 있음
- 한국의 전통 먹거리와 다도를 전문적으로 전수하고 있는 세 기관은 탐방코스나 체험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크게 기능할 수 있을 것임

◦ 국악원

- 금현국악원은 우리 가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덕을 쌓는 열린 마당으로, 양식 3층 건물에 개인 연습실 및 연구실, 단체 연습실을 구비하여 우리 가락을 좋아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음

<그림 18> 금현국악원 외관



<그림 19> 안내문

- 길을 걸을 때 들려오는 대금과 가야금 가락은 북촌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고 정겨운 감동을 안겨줌

◦ 전통인형작업실 및 전시관

<그림 20> 전통인형 제작자의 공방

<그림 21> 전통인형 전시

- 삼청동에 위치한 전통인형 작업실(한옥)은 전통적 방식으로 천을 이용한 인형을 만들고 전시하는 곳으로, 인형이 입는 옷에 이르기까지 자연염색을 하는 등, 철저히 전통적 방식을 지켜오고 있음

- 「옛 인형일기」라는 주제의 전시창에는 전통적 방식으로 제작된 인형들이 전시되고 있음
- 전통인형 제작 기능 보유자인 임소현씨는 특히 전통인형을 이용하여 표현한 천주교의 성인들을 주제로 몇 차례의 전시회를 가졌던 것으로 유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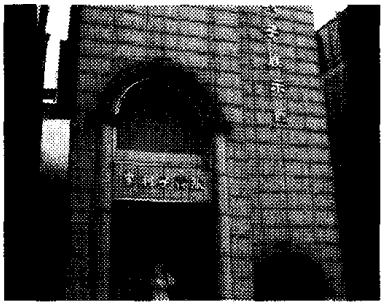
○ 새로운 지역 전통을 만들어 내는 문화적 심미성

: 삼청동, 성북동의 문화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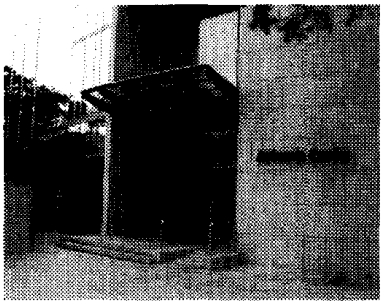
◦ 사간동 갤러리 거리

<그림 22> 경복궁길 미술관의 거리 안내 표시판

- 경복궁과 마주한 삼청동길에는 1982년 개관한 '국제 갤러리'를 필두로 'Inn화랑', '금산갤러리' '갤러리 현대', '금호미술관', '학고재' 등 10여 곳의 갤러리가 늘어서 있음
- 서울에선 드물게 차도보다 인도가 넓은 이 길의 가로수는 은행나무로, 보도블럭에 드문드문 떨어진 듯한 은행잎 문양이 운치를 더해줌
- 월요일을 제외하곤 전시가 계속되는데, 대개의 화랑은 관람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갤러리 건물 자체가 예술작품으로서 가치가 높아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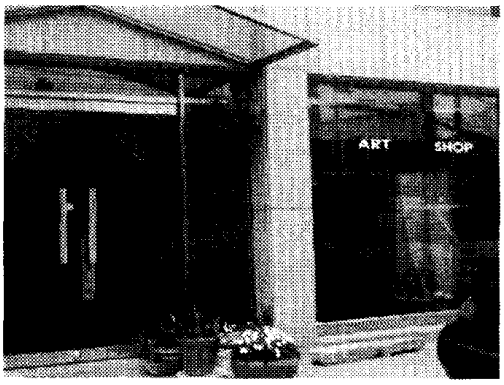
<그림 23> 이리자 한복(전시관)



<그림 24> 아트선재센터

- 서울역에서 삼청동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와 인사동 및 시내중심부의 화랑에서 성북동 및 평창동의 갤러리까지 연결하는 미술관 순회 버스가 운행 중임
- 이 밖에 법련사내 불일미술관, 한국미술연구소, 출판문화회관, 이리자한복점(한복전시실)등 다양한 문화인프라도 이 길에 위치함

<그림 25> 학고재



<그림 26> 아트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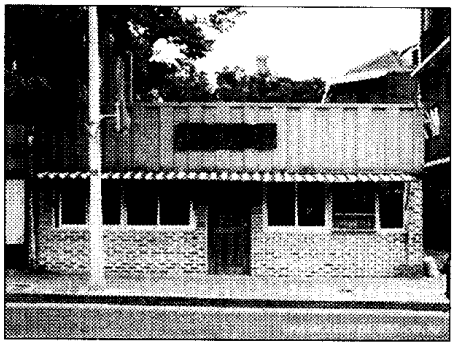
◦ 삼청동 테마카페 및 미식가 경관

<그림 27> 삼청동 까페거리의 시작을 알리는 진선북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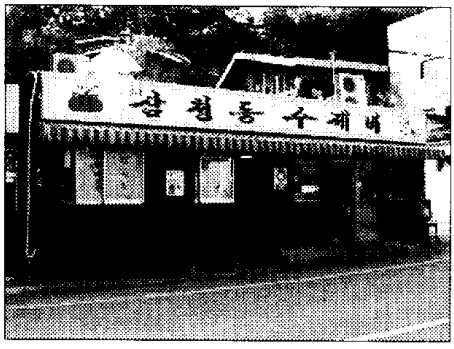
- 갤러리 거리를 지나면 '진선 북 카페' 를 시작으로 흥미롭고 특별한 분위기를 지닌 다양한 테마카페들과 이미 맛으로 유명한 식당들이 연이어 자리잡고 있음
- 진선북카페는 우아한 분위기의 사간동 갤러리 거리와 다소 소란스러운 삼청동길의 먹자거리사이에서 잠시 쉼표를 찍어주는 휴식의 공간의 역

할을 함

- 점심시간이면 길을 길게 서 있는 「삼청동수제비」, 「삼청동설렁탕집」, 한방차로 유명한 「서울서 둘째로 잘하는 집」, 한정식집 「용수산」, 만두전골진문점 「다락정」, 김치말이와 떡갈비가 유명한 「눈나무집」, 홍합정식으로 유명한 「청수정」, 전통적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솔뫼마을」 등 맛으로 이름난 다양한 먹거리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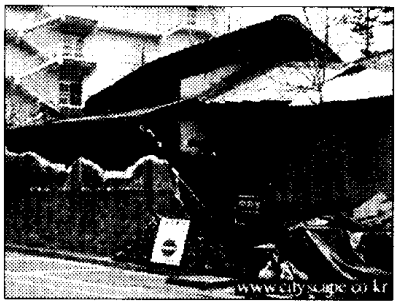


<그림 28> 한방차로 유명한 찻집



<그림 29> 유명한 수제비집

- 또한 '아꼴', '담담' '꼴레' '소리 깊은 집', '더 레스토랑', '재즈 스토리' 등 분위기가 특이하거나 별난 디자인의 카페들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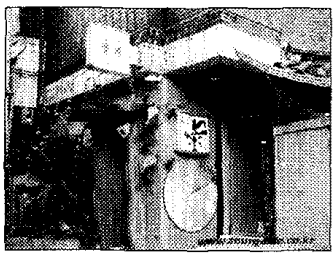


<그림 30> 특이한 디자인의 라이브카페

<그림 31> 카페의 내부

- 이미 이 거리의 카페들은 특이한 인테리어, 라이브공연 등으로 꽤나 이름이 알려져 평일 저녁과 주말이면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있음

<그림 32> 삼청동길 테마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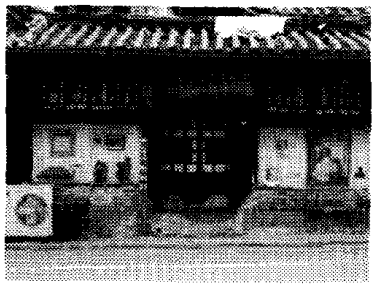
<그림 33> 재즈카페

<그림 34> 테마카페

- 삼청동길 곳곳에 자리한 다양한 공방, 공연장과 아트샵 등도 풍부한 문화자원으로 기능하리라 예상됨

<그림 35> 공방

<그림 36> 소격동의 공방



<그림 37> 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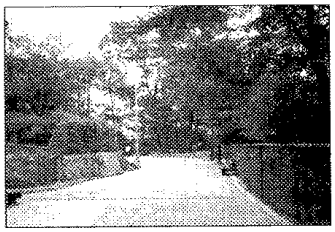
◦ 삼청공원과 새로 태어난 옛 요정들

- 삼청동길의 끝에 자리잡은 삼청공원은 산과 물이 맑고,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삼청(三淸)이라 불린다는 곳답게 맑은 골짜기와 약수터, 희귀조인 오색 딱따구리와 노송과 잣나무, 아카시아, 벚나무 등이 울창한 숲을 이루어, 도심에서 한시간여 떨어진 곳에서 완전한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해줌
- 삼청터널을 지나자 마자 발견하게 되는 '삼청각[10]'은 한국 요정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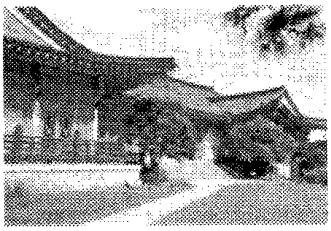
10) 성북구 성북동 330-115의 대지 5,884평 규모인 삼청각은 지하 3층~지상1층의 한옥양식이며 일화당(979평), 유하정(55평), 청천당(49평), 천추당(75평), 취헌당(49평), 동백헌(75평) 등 6채로 구성. 음식점, 연회장, 피로연실로 이용되던 일화당은 지하 3층~지상1층 979평 규모의 전통예술 상설공연장 및 한국전통음식 매장으로 바뀌며 전통찻집인 유하정은 판소리 전문학교로 탈바꿈. 청

의 본산에서 새로운 전통문화공간으로 새로 태어나기 위한 공사중이며, 리모델링을 통해 2001년 9월까지 전통예술 상설공연장, 전통음식 매장, 한국 전통 주거공간 등을 갖춘 전통문화체험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임

- 북촌이 전통과 역사, 삶이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성장하는데, 매우 훌륭한 연계 관광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 또 하나의 요정 대원각은 '길상사' 라는 가람으로 거듭났으며, 고즈넉하고 빼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어, 자체로서 훌륭한 문화자원 역할을 하고 있음



<그림 38> 오색딱따구리가 사는 삼청공원의 산책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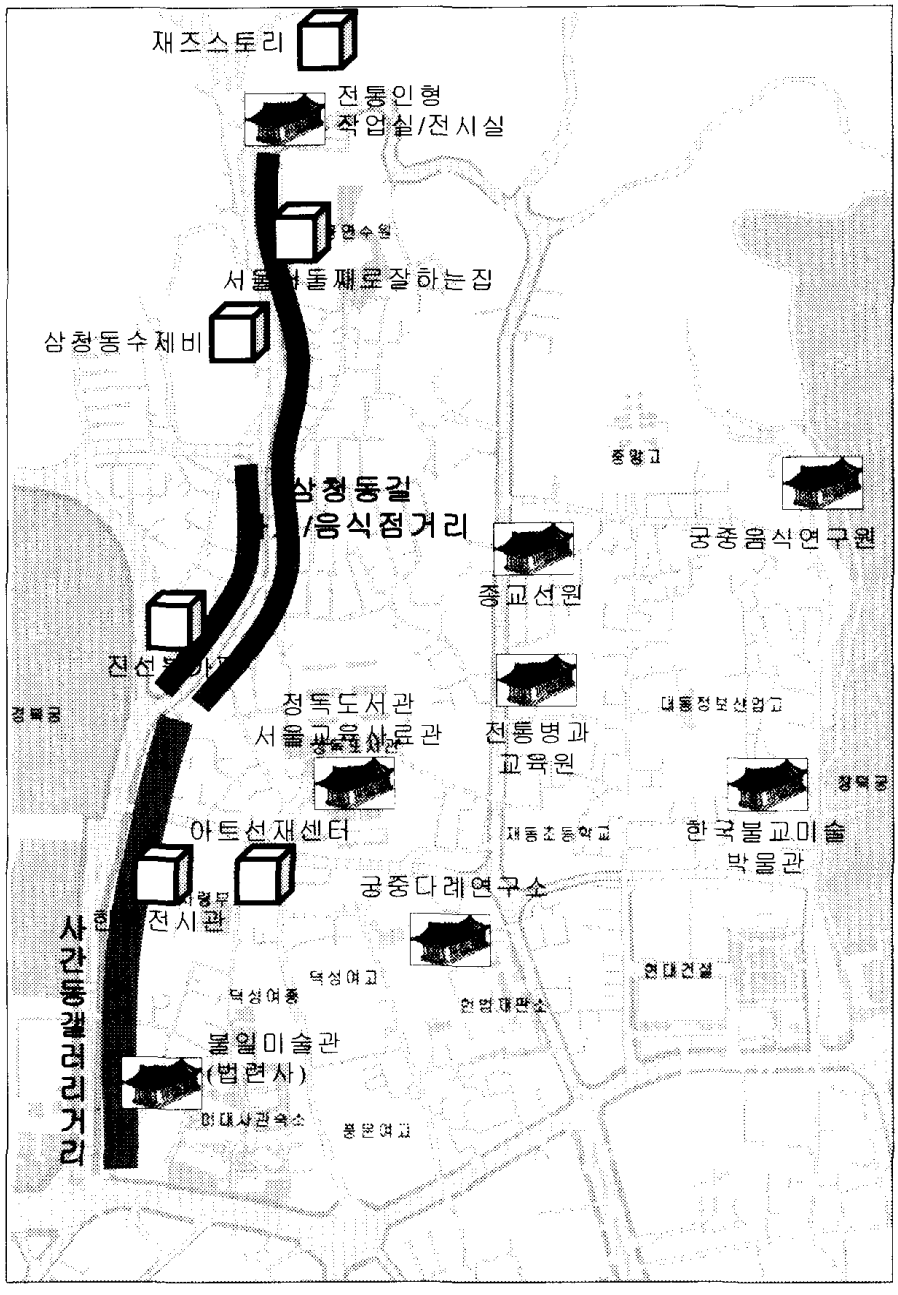


<그림 39>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변신할 삼청각

<그림 40> 길상사 내부 모습
장두식(2000) 에서 인용

천당과 천추당은 전통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취헌당과 동백헌은 대청마루와 방, 툇마루 등 한국의 전통적 주거공간으로 변모할 예정임. 서울시로부터 삼청각 전통문화 시설 조성사업을 위탁받은 세종문화회관은 지난 3월 조성보고회를 갖고 오는 10월 28일 서울시민의 날을 맞아 삼청각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서울경제신문 2001. 6. 4)

◦북촌이 보유한 전통의 새로운 구현물들을 지도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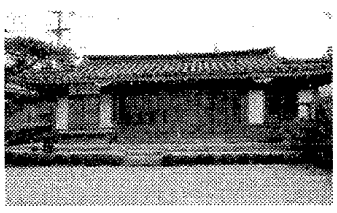
<그림 41> 북촌의 문화 인프라

◦성북동의 문화자원 : 성락원과 심우장, 이태현가, 이재준가

- 사적 378호 성락원은 원래 조선말 순조 때 황지사의 별장으로 조성된 별서(別墅)정원이었음
- 이 저택은 서울시 유형문화재였던 것을 최근에 4,358평을 사적으로 지정하였는데, 조선 말 철종때 이조판서 심상응(沈相應)의 별장이던 것을 의친왕 이강(李堈)공이 별궁으로 사용하다가 그 아들 이건(李鍵)공이 살았다고 전해짐
- 석파정, 부암정과 더불어 조선시대 3대 민가 정원의 하나로 꼽힐 만큼 경관이 매우 수려함, 시내가 흐르는 공간에 물을 막아 못을 만들고 폭포, 괴석, 암석, 수림 등이 조화 있게 어울려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냄

<그림 42> 조선시대 3대 민가 정원중의 하나인 성락원

<그림 43> 전통 찻집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태준가



<그림 44> 만해 한용운선생이 살았던 심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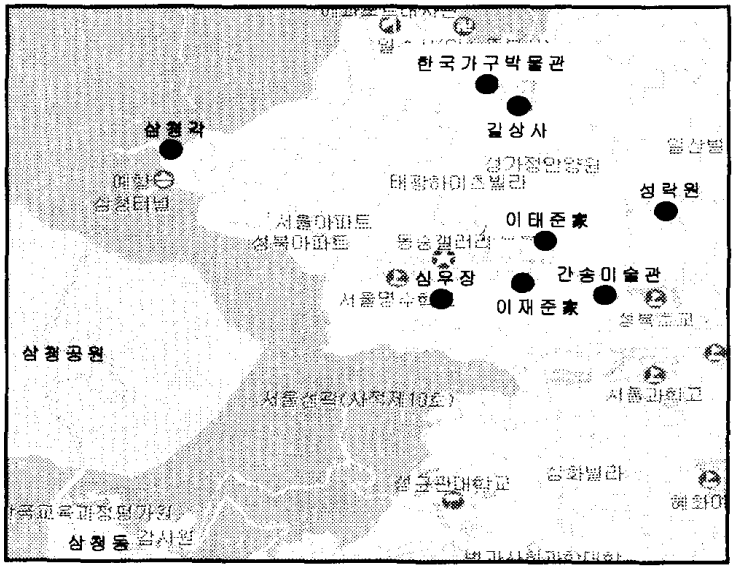
- 현재 성락원의 규모는 4,500여 평이며, 울창한 나무와 까치, 비둘기 등 산새들이 많아 시인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의 배경이 되기도 했음
- 이태준가는 1930년대 문학사를 양분했던 - 시(詩)에는 '지용(정지용)', 소설엔 '태준'이라고 일컬어졌던 - 소설가 상허 이태준의 집필 공간이자 안식처였으며, TV 드라마 〈흐르는 것이 세월뿐이랴〉의 무대로 사용될 정도로 운치와 멋을 겸비했음
- 현재 문인들과 주한 외국인 공사관 부인들, 일본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전통 찻집으로 공개·보존되고 있음
- 성북동 222번지 산비탈에 위치하는 북향집으로 서울시기념물 제107호인 심우장은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 : 1879-1944)이 1933년에 지어 만년을 보낸 곳으로 유명함
- 만해 선생이 쓰던 방에는 선생의 글씨, 연구 논문집, 옥중 공판기록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뜰에는 손수 심은 향나무가 서있음

◦성북동의 문화자원 : 간송미술관과 한국전통가구박물관

<그림 45> 간송미술관 입구

<그림 46> 한국가구박물관 외관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사립박물관인 간송미술관은 4,000여 평의 대지 위에 건립되어 도심 속에 있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주위가 한적하고 조용함
- 고 전형필 선생이 평생동안 수집한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어, 미술사 연구가들 사이에선 미술사의 보고로 일컬어지는 곳임
- 전통가구박물관은 성북동 330번지 일대에 전통가구 개인소장품을 중심으로 조성되었으며,부대시설로 전통찻집, 전통음식점 강당등이 들어설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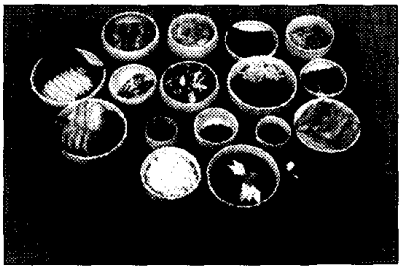


<그림 47> 성북동의 문화자원들

(2) 소프트웨어(Software)

○ 라이프웨어(Lifeware) : 북촌 '사람', 그들이 '사는 방식'과의 조우

◦ 한옥에서의 일상



<그림 48> 한옥에서의 일상과 만남

- 푸짐한 한식 상차림, 대청마루에서의 낮잠, 깨끗이 정돈된 안뜰, 빨랫줄에서 걸려있는 하얀 빨래, 돌계단을 올라가 키를 맞춰 늘어선 장독대, 마당 한 켠의 수돗가 등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매력적 관광요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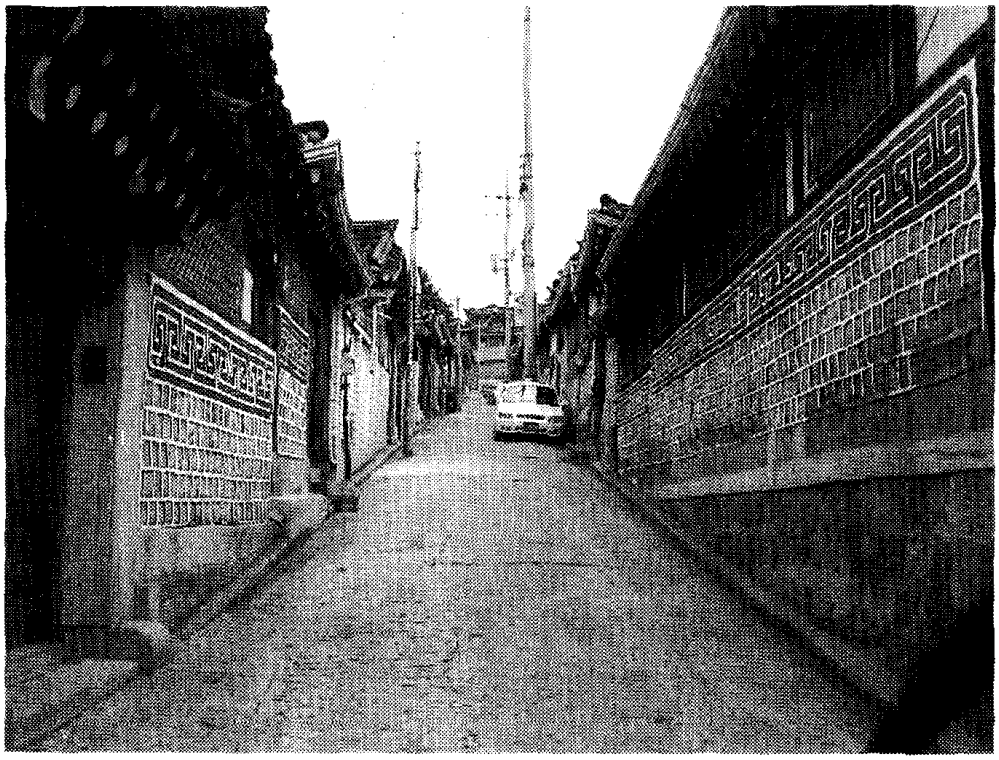
◦ 골목길, 정감이 넘치는 소통의 공간

- 한옥이 밀집된 지역들은 주로 좁은 골목길을 통해 연결되는데, 사람 두어명이 부대껴야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을 포함, 서로 얼굴을 보면서 지나가야 하는 그리 넓지 않은 골목길들이 사람들의 삶터를 이어주고 있음
-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와 고층 빌딩에 익숙해 진 현대인들에게 담장을 사이에 두고 평범하지만 다양한 삶을 이어주는 골목길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향수를 불러일으켜 줌

<그림 49> 원서동의 골목길

<그림 50> 골목길의 뛰노는 아이들

- 골목길은 꾸미지 않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관광 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미 이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베이징의 후통투어가 좋은 성공 사례임



<그림 51> 가회동 한옥 밀집지역의 골목길

○ 휴먼웨어(Humanware) : 북촌의 전통성을 이어가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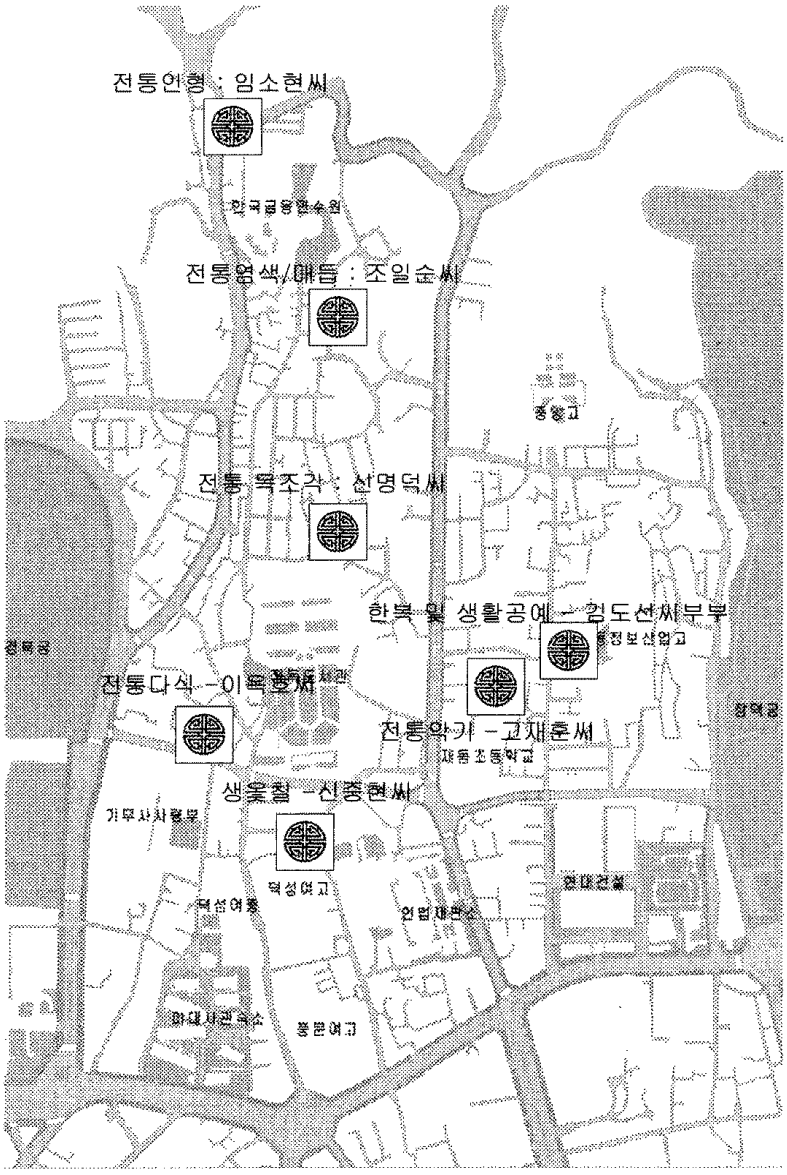
◦현재 북촌에는 묵묵히 전통공예의 맥을 이어가는 장인들이 다수 거주함

<그림 52> 생옻칠 기능보유자 신중현씨

◦안국동의 생옻칠 기능 보유자 신중현씨(1996,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1호지정) , 삼청동 전통염색 및 매듭기능 보유자 조일순씨(2001, 자연염색 서울시 사양 전통 문화로 지정), 소격동 전통 다식 기능보유자 이옥호씨, 계동에 거주하는 한복과 생활공예 기능 보유자 김도선씨 부부, 가회동

의 장승 목조각가 신명덕씨, 가회동 전통악기 제작기능 보유자 고재훈씨, 삼청동 전통인형 제작기능 보유자 임소현씨 등이 그들임

◦ 이들의 분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그림 53> 북촌의 장인 분포도

◦ 이들의 작업실을 견학하거나, 간단한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게 하는 등 가칭 "장인의 길(Craft Tour)"과 같은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함

◦미국 워터포드 페어(Waterford Homes Tour & Crafts Exhibit, 부록 사례분석 참조)와 같이 이들을 중심으로 한 전통 공예 축제를 기획하는 것도 북촌문화관광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또한 창작작업에 몰두하려는 장인들의 특성상 외부의 노출을 극히 꺼려하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거주 장인이외에 더 많은 장인들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들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이 요구됨

○ 마인드웨어(Mindware) : 북촌을 지켜 나가는 따뜻한 마음

<그림 54> 서울게스트하우스의 이미자씨

◦북촌이 가진 가장 큰 관광자원은 소비지향적 상업 관광지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마을 사람들의 인정과 따뜻한 배려임

◦가회동 11번지에서 아름다운 꽃과 채소가 가꿔진 안뜰을 갖춘 전통 한옥을 이용, 서울게스트하우스(Seoul Guesthouse)라는 저렴한 한옥민박(http://www.seoul110.com)를 운영하는 이미자씨는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대접으로 외국인 방문객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음

<그림 55> 일본 여행객들이 게스트하우스의 따뜻한 배려에 대해 이야기한 기사가 실린 영자신문

◦일단 서울게스트하우스를 찾은 손님을 내 집처럼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대접에 꼭 다시 이곳을 찾게 된다고 함[11]

◦삼청동의 전통염색 및 매듭 공예가 조일순씨와 전통 인형 공방을 운영하시는 임소현씨도 북촌의 전통 문화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신들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주민들의 마음가짐이 북촌을 아끼고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려는 소박하고

11) 일본의 여행잡지(도쿄워커 서울판 서울워커)를 시작으로 유명세를 타게된 서울게스트하우스의 정성스러운 손님맞이는 이곳에서 묵었던 일본대학생들에 의해 「중앙일보 헤럴드트리뷴(2001/6/12)」에 "Experiencing a Home Away From Home" 제목의 기사로 실리기도 했음

꾸밈없는 손님맞이로 이어진다면, 기존의 상업적 관광지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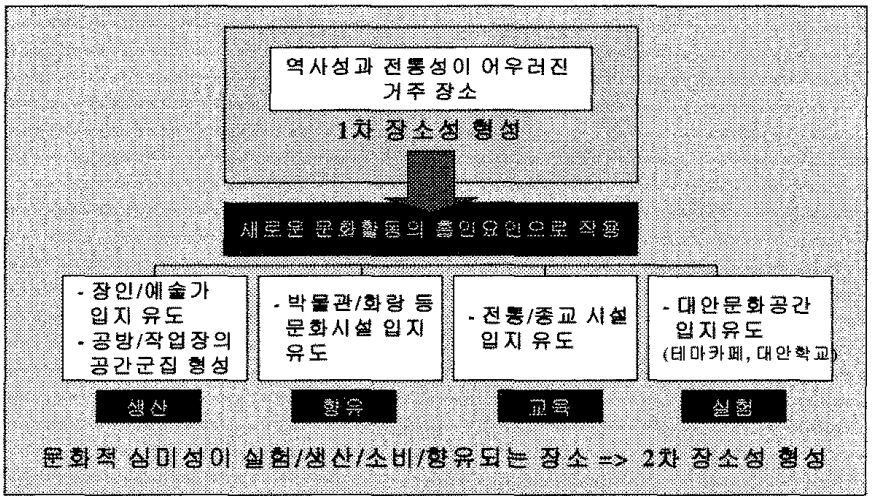
2. 북촌의 장소성과 활성화 방향 : 문화관광

가. 북촌의 장소성

◦ 북촌의 장소성은 1차적으로 북촌의 입지와 형성 과정의 역사성 및 전통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는 북촌 지역의 근본적 이미지를 창출하는 토대이자, 지역의 고유성을 구성하는 하부구조로 작용함

◦ **'전통적 경관과 그 생활양식, 그리고 역사성이 어우러진 장소'라는 북촌의 1차적 장소성은 실험, 생산, 교육, 향유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문화 활동을 담아내고 촉발하는 '토대'로서 기능**하게 됨.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은 기존의 역사성 및 전통적 생활양식과 상생적으로 결합하여 2차적 장소성을 형성하게 됨

◦ 북촌의 장소성이 지역에 뿌리내리게 되면서, **'문화적이고 심미적인' 공간으로서 북촌의 2차적 이미지가 구축**됨



<그림 56> 북촌의 장소성

◦ 따라서, **전통문화, 문화예술, 생활문화의 생산 과정과 그 결과물로서의 경관, 그리고 '장소애(Topophilia)'로 재현되는 장소에 대한 소비 및 향유가 순환적으로 연계되면서, 북촌의 장소 이미지와 정체성을 재생산**하게 됨

◦ 여기서 전통 및 현대문화예술의 박제화된 쇼윈도우인 인사동의 장소 정체성과는 차별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음

따라서, **북촌의 장소 및 문화활성화를 '관광'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 *지역 문화 및 일상생활의 생산 과정과*
- *그 생산물로서의 경관 및 축적물들,*
- *그것이 향유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소애와 생활문화등을 보전 ·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사고해야 함

◦ 이에, 거주 생활공간과 문화공간으로서 북촌의 장소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Cultural Tourism)'**을 제안함

나. 북촌과 문화관광

(1) 문화관광

◦ 원래 관광(觀光)의 말의 의미는 기원전 8세기의 역경(易經)에서 유래한 **'관국지광(觀國之光)'**의 줄임말로서 "그 나라의 우수한 풍물과 문화 역사를 보고 배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12]

◦ 따라서, 어떤 지역의 문화나 역사의 빼어난 요소(光)를 보는 방법이 단순히 겉모습을 '보는 것(見)'을 넘어서 직접 만지고, 느끼며, 깨달아 보는 것이라 할 때, 최근 관광의 세 가지 흐름인 문화관광, 체험관광, 생태관광은 다소나마 진정한 관광의 의미에 다가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음

12) 이동범, '역사 · 문화 관광의 활성화 방안' 월간 국토

◦ 최근에 발표된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 따르면[13], 문화관광이란 '문화의 관광(tourism of culture)'과 '문화적 관광(cultural tourism)'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음

◦ 문화의 관광이란 '문화를 관광한다'는 의미로서 문화의 대상을 범주화해야 함. 그 범주는 다음과 같음 ① 인간의 삶과 어우러진 자연환경, ② 보편적인 인간완성의 상태나 과정추구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종교, 신앙, ③ 지적, 예술적 활동의 산물인 학술과 예술, ④ 특정지역과 집단에 고유한 생활양식과 민속, ⑤ 사회질서와 가치체계의 형성에 기여해 온 정치, 군사적 유물, ⑥ 지역의 독특한 산업, 경제적 산물임

◦ 문화적 관광이란 '관광을 문화적으로 한다'는 의미로서 관광의 방법에 따른 정의임. 이는 다시 ① 관광소비 주체의 측면과, ② 관광자원 개발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음

◦ 관광소비 주체의 측면에서의 문화적 관광이란 관광객의 입장에서 관광의 방법이나 동기, 의미를 문화화하거나, 유희와 오락에 중심을 두는 소비적인 관광에서 벗어나 **문화적 동기를 지닌 관광**, 휴식과 여가를 통한 **자신의 삶의 '성찰'**, **문화적 산물의 '학습'을 통한 자신의 심미적 계발**, **다른 문화의 체험과 교류를 통한 자아의 실현**을 의미함

◦ 다음으로 관광자원 개발의 측면에서 문화적 관광이란 관광자원을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거나, 지역의 고유성이 잘 반영되도록 미학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의미함

◦ 수려한 자연이나 특수한 경관을 '보여주기만' 하는 관광은 대부분 일회성 관광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따라서, 해당 지역에 관광객과 재방문객 수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의 측면에서 '문화관광'은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 줌

13)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한국의 문화관광지도 작성 연구」, pp. 46-49

(2) 북촌 장소마케팅의 방향

◦북촌의 장소활성화는 북촌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역사자원, 우수한 문화자원들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그들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전통적 삶의 방식, 이들을 직접 만들어 가는 주민들을 무대의 중앙으로 불러내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북촌은 한옥밀집지구나 역사문화탐방로 등 '눈에 보이는' 자원만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닌, 고층빌딩들로 뒤덮인 서울의 도심에서 아직도 새소리를 듣고, 처마에 듣는 빗소리를 느낄 수 있는 '사람'과 '삶'의 공간, 즉 문화관광의 장소로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야 함

◦2장에서 이미 언급했던 북촌의 장소 마케팅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문화관광'적 개발의 추진 : 체험과 소통의 문화 보전 개발

◦북촌 지역은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공간임과 동시에 역사성과 전통문화의 심미성을 지니고 있는 장소이기도 함

◦따라서, 이 지역의 현재 생활형태들을 유지하는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대규모·대량 관광이 아니라 대안적인 문화관광 개발 모델을 구축해야 함

◦즉, **스펙터클과 소비 위주로 되는 대규모 '대중관광', '소비관광' 보다는, 장소성을 오감으로 체험하고 체화하여 자아 성찰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문화관광** 컨셉에 바탕을 둔 개발 모델의 구축이 필요함

○ 문화의 생산, 유통, 소비, 향유의 '순환적 뿌리내림' : 전통문화의 인큐베이터

◦전통 및 현대 문화, 생활문화의 소비와 향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들의 생산과정까지 담보될 수 있는 문화 전략을 구상해야 함

◦즉, 장인이나 예술인들의 공방 및 작업장, 이들과 전후방 연계를 지닌 사업체의 입지 유도 등을 통해 **지역문화의 생산성을 담보**해야 함

◦이를 통해 문화의 생산, 유통, 소비, 향유가 순환적으로 연계되고 고유한 문화가 종국적으로는 장소에 뿌리내릴 수 있는 장기적 전망을 세워야 함

○ 지역적 네트워크 구축 : 지역 행위 주체들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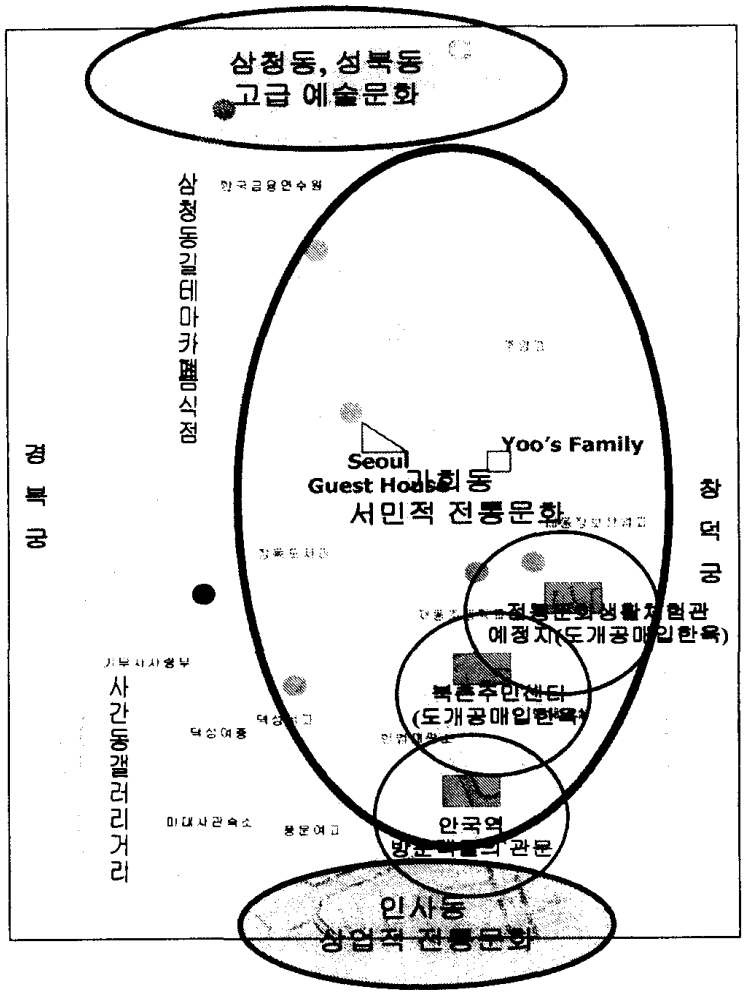
◦이를 위해서는 대자본에 의한 전통 문화의 상품화보다는 **그 지역의 문화를 지역 주민들 스스로 구현하고 체화하며, 궁극적으로 재생산해 나갈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가야 함**. 또한, 지역이 보유한 자원 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휴먼웨어와 마인드웨어, 라이프웨어 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단순히 행정주도형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활성화보다는 주민과 행정이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주민 참여적인 마을만들기 운동의 모델이 되어야** 함.

○ 지역 고유의 차별적 연계성 확보 : 지역간 기능적 네트워크 구축

◦북촌 지역내 인사동, 삼청동, 성북동은 각각의 개발방향을 차별화할 수 있음. 삼청동, 성북동은 고급 예술문화로, 인사동은 상업적 전통문화로, 가회동은 서민적 전통문화로 특화될 수 있음

◦가회동과 그 주변지역의 특화를 통해 북촌지역을 구성하는 지역들간의 **차별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연계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



<그림 57> 각 지역의 특화문화 개념도

○ 지역간 유동적 연계성 확보 : 보행과 시티투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부로는 철저히 보행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보행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함

◦ 지역 내외부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티투어 코스를 확장하거나, 기존의 마을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함

○ 북촌 전통문화 활성화의 방향

◦ 이를 위해, 북촌 지역의 숙박활성화를 위한 장소마케팅의 컨셉을 1) 전통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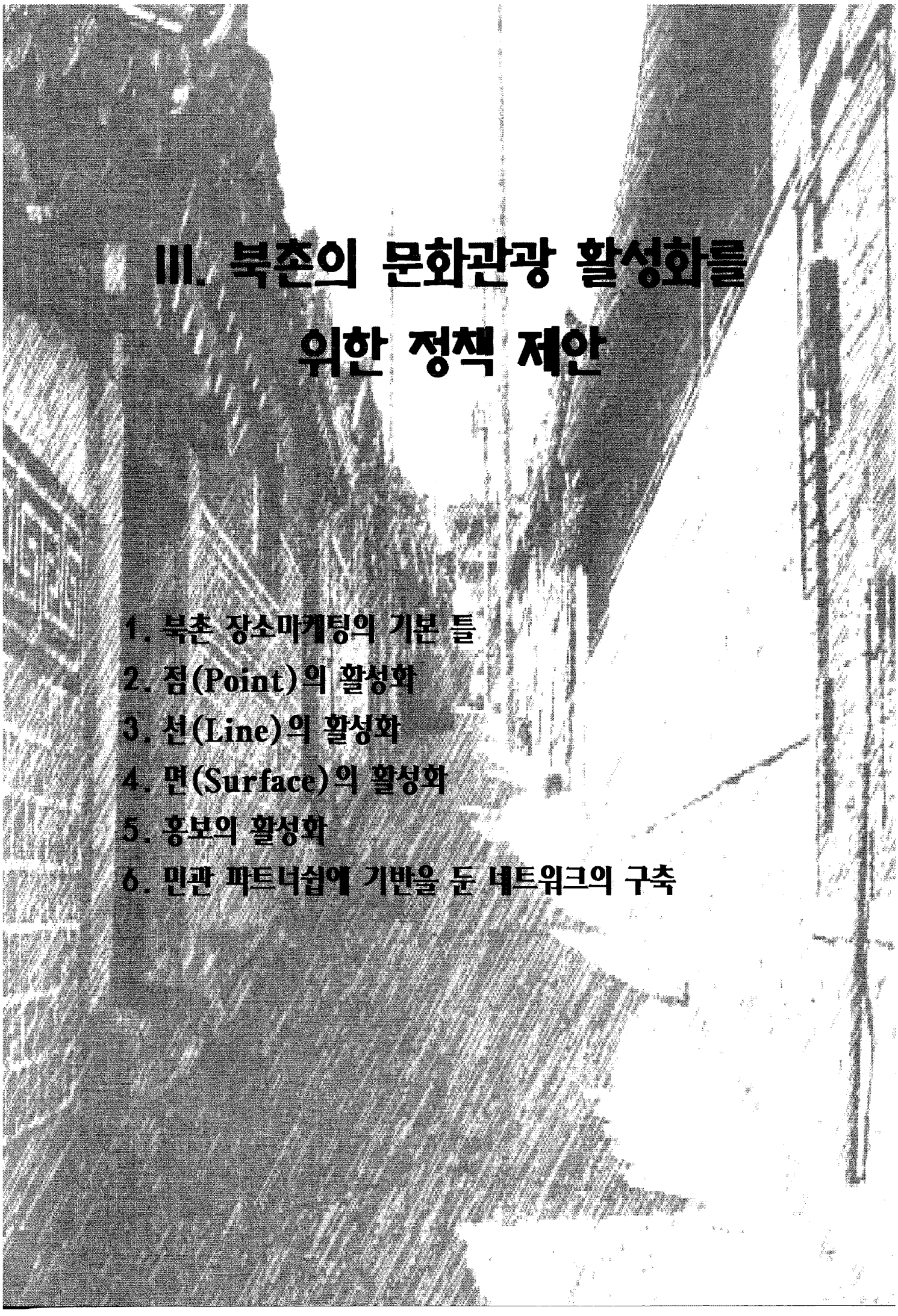
및 생활문화의 체험과 교육, 2) 다문화(多文化)간 소통으로 삼고자 함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가치 확립은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 **거시적 시각의 구축**
- **장소의 고유성 확립**
- **효율적 연계성 구축**
- **지역간 네트워크의 구축**
- **내부 지향성의 견지**
- **전략의 지속성 유지**

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임(9페이지 참조)

빈 면



Ⅲ. 북촌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북촌 장소마케팅의 기본 틀
2. 점(Point)의 활성화
3. 선(Line)의 활성화
4. 면(Surface)의 활성화
5. 홍보의 활성화
6. 민관 파트너쉽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의 구축

빈 면

III. 북촌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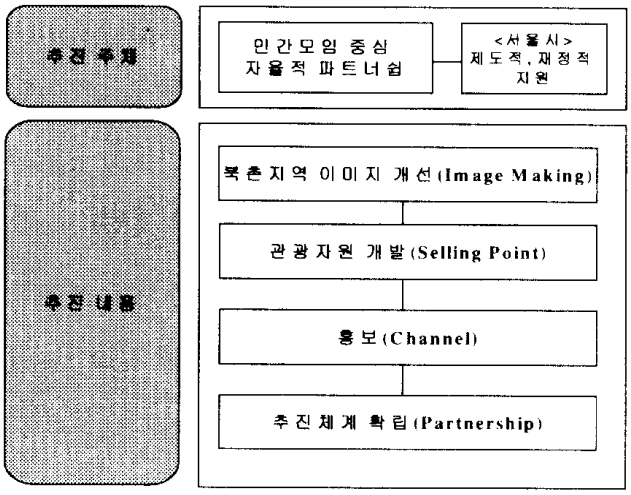
1. 북촌 장소마케팅의 기본 틀

가. 북촌 장소마케팅의 기본 방향

◦ 본 연구에서는 북촌 지역을 새로운 문화관광 지역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개념을 도입함

◦ 장소마케팅적 개념은 단순히 관광지를 정비하여 홍보하는 차원의 것이 아님. 근본적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Image Making)하고 관광상품의 개발(Selling Point)과 홍보 방안(Channel)을 수립함과 동시에, 추진 주체들 간의 안정된 체계(Partnership)를 갖춤으로써 지역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적극적인 개념임

◦ 북촌지역 장소마케팅 추진 방향을 모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58> 북촌의 장소마케팅 추진 체계

나. 북촌 장소마케팅의 당면 과제 : 지역이미지 제고와 관광자원 개발

◦북촌지역 장소마케팅 추진 내용 중 현재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점은 북촌 전통가옥지구를 관광자원화(Selling Point)하는 것임.

◦여기서 제시하는 북촌지역 관광자원화 방안은 기존 개별 관광자원의 개발 및 정비 차원에서 벗어나, **점·선·면의 개념을 도입한 입체적인 지역 개발방식**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점(point)적인 접근**은 북촌지역의 개별 관광자원을 개발 및 정비하는 것으로 전통 한옥을 민박이나 체험관으로 정비하고, 문화센터, 전시관 등을 신설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임. 특히 신설 추진 중인 문화센터와 전통문화체험관, 그리고 기존의 안국역 문화쉼터는 이 지역 **장소마케팅의 핵심거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함. 구체적으로 문화센터와 전통문화 체험관은 지역주민과 장인 등 문화주체들의 네트워크 공간으로, 안국역 문화쉼터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정보센터로 활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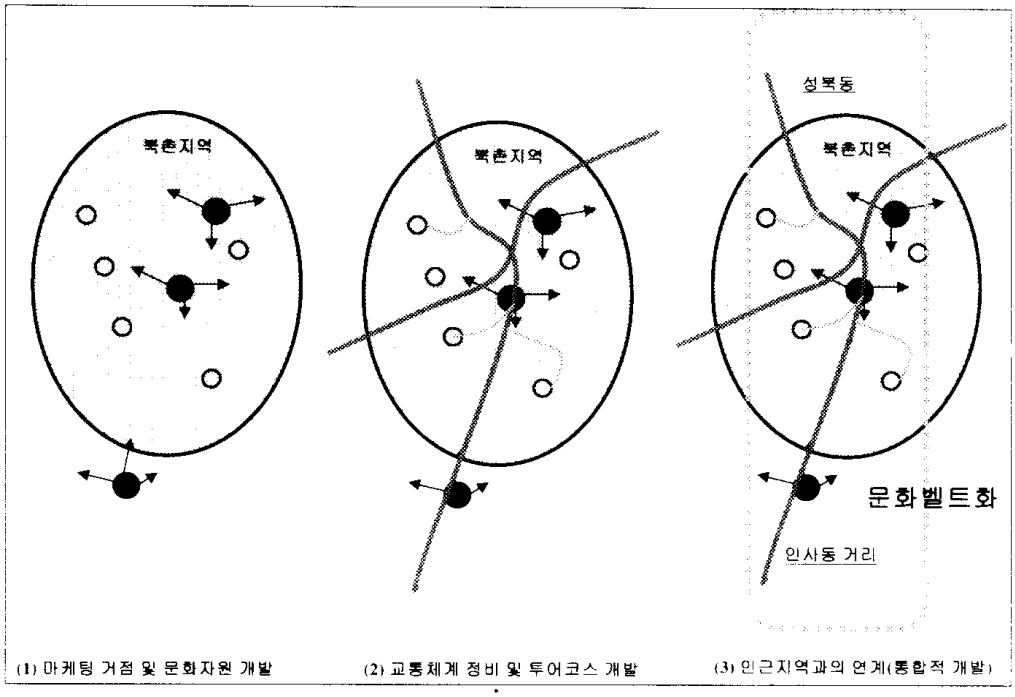
◦둘째, **선(line)적인 접근**은 북촌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결해 지역 전체가 관광상품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임. 이는 크게 북촌지역 도로체계 정비와 같은 하드웨어의 '정비'와 투어코스 개발 등 관광소프트웨어의 '개발'로 나눌 수 있음

◦셋째, 점·선을 아우르는 **면(surface)적인 접근**의 장소마케팅 전략은 궁극적으로 북촌지역 전체를 전통체험 문화공간으로 정비·판촉하려는 것과 동시에 주변의 인사동, 성북동 문화관광지구를 연결하여 하나의 통합된 서울의 전통문화 벨트로 발전시키는 것임.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인사동, 성북동, 사간동 등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과 북촌지역을 연계한 투어코스를 개발하고, 전체를 포괄하는 문화관광지도를 제작·배포하는 작업등을 포함함

◦결론적으로 월드컵의 계기로 이 지역의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방향과 주변 지역의 풍부한 문화관광적 자원들과 연계시킬 수 있는 효율적 방안

에 대한 체계적 계획 수립이 요구됨

◦이러한 점(문화센터, 전통문화 체험관, 안국역)과 이를 구체화하는 선(도로체계, 관광코스 등), 그리고 이들을 아우르는 「전통체험 문화 공간」으로서의 북촌의 면적인 접근을 개념도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과 같음



<그림 59> 점·선·면 의 개발 개념도

2. '점(Point)'의 활성화

가. 전통 민박의 활성화

◦전통숙박은 **외부인이 어떤 장소를 구성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상품**임

◦특히, 전통민박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통 경관이 만들어 내는 전통 문화와**

서민들이 살아가는 생활 문화의 응축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됨

(1) 민박 희망 가옥의 특성

◦현재 북촌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한옥활용형태의 게스트하우스(Guesthouse)인 '서울 게스트하우스(가회동 16-13번지)'의 경우, 일본 여행 잡지인 '도쿄 워커(Tokyo Walker)'의 서울판 '서울 워커(Seoul Walker)' 등에 소개기사가 실리는 등 외국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음. 특히, 이곳에 머물렀던 외국인들의 입소문을 통해 많은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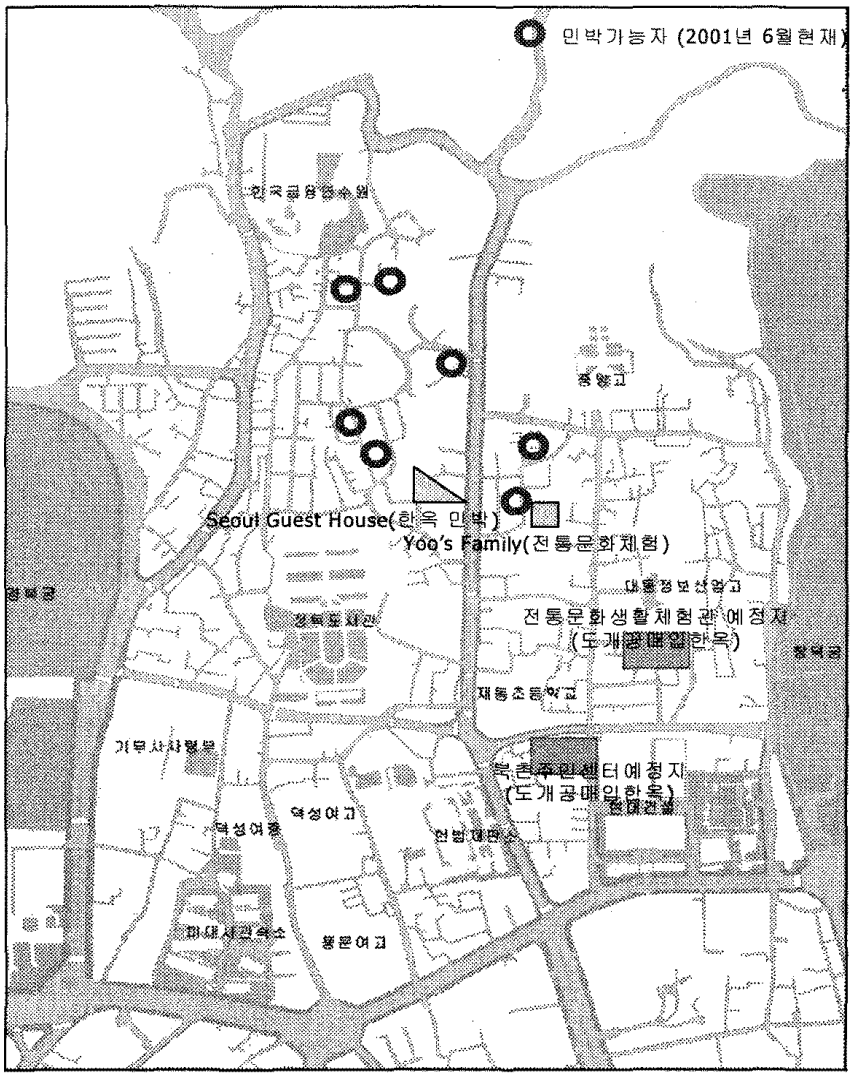
◦그 밖에, 가회동 몇몇 한옥에서 한옥을 이용한 하숙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형태 역시 일반적 하숙방식과 유사하여, 한옥으로서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재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된 '한사모(**한**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중심으로 민박을 희망하는 가구들이 모이고 있으며, 전통민박 운영의 틀이 수립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민박을 희망하는 이들의 한옥 내부 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서울시의 한옥 개보수 지원을 바라고 있는 상태임

◦따라서, 현재의 가옥 상태로 민박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우선 민박을 실시하고, 서울시의 개보수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가능한 민박 신청자들의 신청을 받아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가회동의 한옥민박의 수를 늘리고, 체계적 운영 지침을 수립하는 작업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임. 개보수 이후 민박 운영이 가능한 **'잠재적 희망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임

◦특히, 민박 희망자들 중에는 **전통문화 장인이나 예술가 집단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전통음식 만들기 등에 재능이 있는 중년층 이상의 희망비율이 높아 '테마민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60> 민박가능자 분포도

(2) 민박희망 가옥의 상태

민박을 희망한 가옥 중 일부 한옥들의 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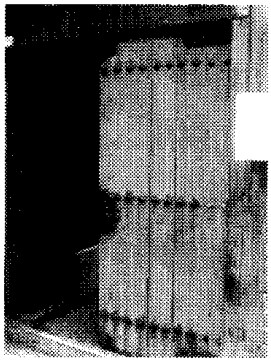
○ 가회동 1번지 K씨 댁

◦K씨 댁이 위치한 가회동 1번지 골목은 영화촬영 장소로 자주 애용되는 등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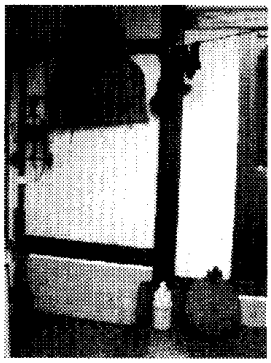
성 및 외관에 있어서 심미성이 보장되는 장소임

◦또한 K씨의 경우 전통 동동주와 묵을 제조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여, 접근성이 가진 심미성과 휴먼웨어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 잠재력을 조화시켜 민박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그림 61> 들어가는 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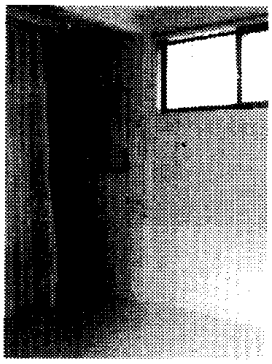
<그림 62> 대문



<그림 63> 마당의 소품들

<그림 64> 화단이 가꿔진 안뜰

<그림 65> 마당의 수돗가는 한옥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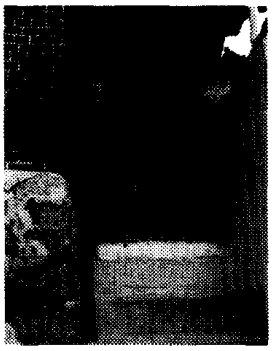
<그림 66> 민박 방

○ 가회동 11번지 K씨 댁

◦K씨 댁은 가회동에서 한옥이 가장 보존이 잘 된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음. K씨 댁 역시 한옥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며 들어가는 골목이나 마당이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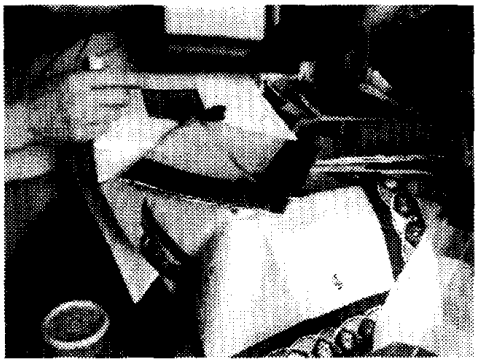
◦특히 K씨의 경우, 입소문을 통해 이바지 음식을 제작해 주는 일을 하고 있으며, 쪽 보자기 제작 등의 전문기술이 있어 이를 활용한 민박 프로그램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 67> 한옥 대문

<그림 68> 내부 전경



<그림 69> 손수 제작한 쭉 보자기

<그림 70> 손수 만든 이바지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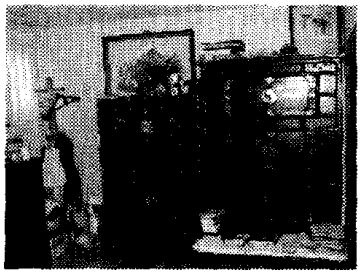
○ 가회동 31번지 C씨 댁

◦ C씨 댁이 위치한 31번지 일대는 한옥이 잘 보존되어 있고 골목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임. C씨 댁 역시 한옥 보존 상태가 비교적 좋은 상태였고 마당이나 뒤뜰 등이 정성스럽게 가꾸어져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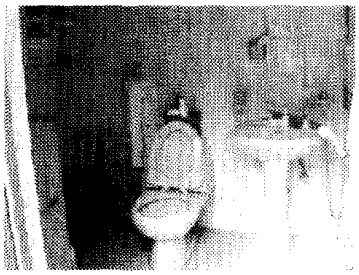
<그림 71> 들어가는 입구의 대문

<그림 72> 내부 전경

<그림 73> 마당



<그림 74> 민박 방



<그림 75> 청결한 옥외 화장실

○ 가회동 177번지 P씨 댁

◦ 가회동 177번지는 비교적 한옥의 보전 상태가 양호하고 마당이나 화장실 등이 청결하게 정비되어 있음. 특히 민박 방안에는 할머니께서 쓰시던 자개장 등이 비치되어 있어 전통적인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그림 76> 들어가는 대문

<그림 77> 내부 전경

<그림 78> 내부 전경 2

<그림 79> 방 내부의 자개장

<그림 80> 내부 전경 3

<그림 81> 청결히 관리된 화장실

(3) (가칭) 북촌민박조합 형성

○ 필요성

◦ 개별적으로 민박을 하는 것보다는, 민박조합이라는 체계적 형태의 조직이 형성된다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유용성을 지닐 수 있을 것임

◦ 첫째, 일반 가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홈스테이와는 달리 전통문화 및 전통경관의 체험이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상호간의 규약과 제재가 필요하고,

◦ 둘째, 역사문화탐방 및 체험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홍보활동을 통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으며,

◦ 셋째, 탐방프로그램이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 장인이나 전통 기능보유자들의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휴먼인프라의 효율적 활용과 능동적 참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고,

◦ 넷째, 상호간의 정보 교환과 향후 발전방향 모색의 효과적인 틀을 생산해 내는 주민들의 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임

○ 외국의 자생적 숙박조합 사례 - 일본의 교토민숙협동조합[14]

◦ 교토의 민박[15]은 '교토민박협동조합'이라는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있으며, 공동 예약 및 홍보, 운영기준 설정 등의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시키고 있음

◦ 교토민숙협동조합에 등록된 민박의 경우, 1박 2식을 기본으로, 식사포함 숙박비는 7천엔 안팎임. 전통가옥인 마치야나 현대 일식집의 살림집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욕실과 화장실 등도 주인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실내에는 침구, 난방용품만 비치되어 있으며, 비누, 수건 등은 스스로 마련해야 함. 장기 체류자들을 위한 세탁기가 마련되어 있으며, 식사는 방마다 개별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식당에서 함께 하는 형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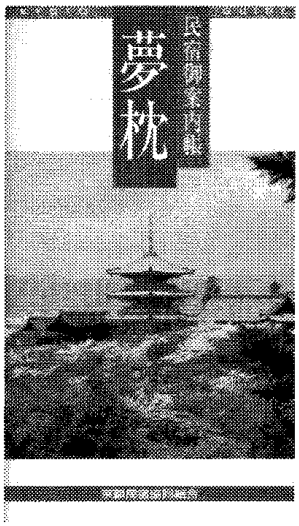
◦ 교토민숙조합의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홍보에서 나타남. 교토 민숙협동조합에서는 각 민박가정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게재한 "꿈꾸는 배게" 라는 정보지를 발간하고 있음. 여기에는 요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민박집의 여건에 대해 매우 상세한 정보가 소개됨(사진 참조)

<그림 82> 교토의 전형적 민박집, 민박집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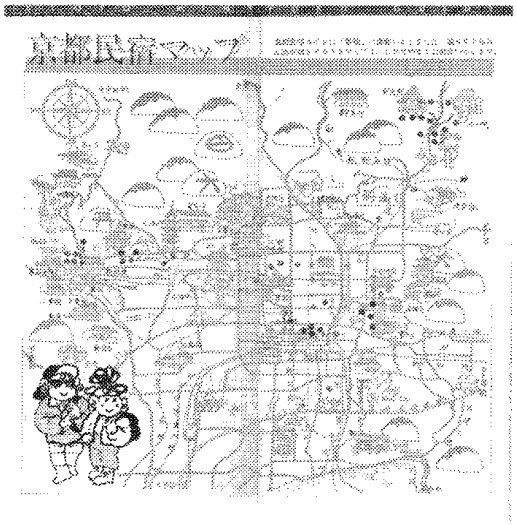
◦ 이와 같은 홍보물들은 시내 관광안내소나 홈페이지, 민박조합 사무실 등에서 구할 수 있음. 또한 오프라인, 온라인 상으로 공동 예약센터를 설치하여 손쉽게 민박 예약을 할 수 있는 것도 교토 민박의 경쟁력을 높여 줌

14) 자세한 사항은 교토민숙협동조합 공식 홈페이지(http://www.kyotoinn.com) 참조

15) 참고로, 교토의 경우 특별히 전통가옥을 민박화하려는 움직임은 없으며, 오래된 고가(古家)들은 주로 전통 일본여관(료칸)으로 이용되고 있음. 민박이 모여 있는 지역은 교토 역전, 오하라, 사가노 등으로, 역전 외에는 모두 교외 관광지에 입지하고 있음



<그림 83> '꿈꾸는 베개'



<그림 84> '꿈꾸는 베게'에 수록된 민박가옥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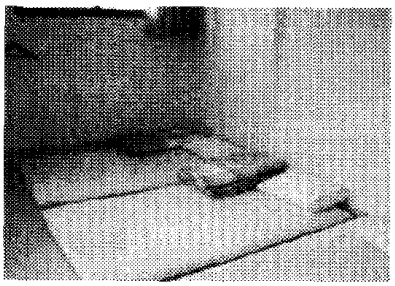
<그림 85> '꿈꾸는 베게'의 내용

(4) 운영 방식

○ 운영 원칙 및 기준의 설정

◦민박조합 가입 가옥들간에 합의된 운영 원칙 및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기준으로는 가격, 숙박시설이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 청결 상태,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의 물리적 인프라 등의 하드적 요소는 물론, 외국인 접대 기준, 방문객 배치 원칙 등의 소프트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부록의 한옥민박지침서 참조)

◦그 밖에 조합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전통적인 요소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주변지역 탐방 프로그램 등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함



<그림 86> 정갈하게 정돈된 서울게스트하우스의 침실, 서양식 침실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그림 87>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구비하는 것은 기본적 사항임 (서울게스트하우스)

○ 해외 사례 : 지트 드 프랑스(Gites de France)[16]

◦프랑스의 경우, 지방의 농가를 이용하여 생태관광 개념을 도입한 「지트 드 프랑스 (Gites de France)」라는 유명한 민박조직이 활성화 되어 있음. 지트는 일반

16) 자세한 사항은 〈http://www.gites-de-france.fr〉 참조

<그림 88> 민박 상표인 「지트 드 프랑스」의 표시

적으로 「지트 드 프랑스 전국연맹」에 가입한 민박의 상표로 통용되고 있음

◦「지트 드 프랑스 전국연맹(Federation Nationale des Gites de France)」은 1955년에 결성되었고, 농촌에 있는 낡은 주택의 보존, 농촌인구의 유출 방지, 저렴한 요금으로 양질의 숙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연맹에서는 스스로 민박의 등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리의 수로 1급부터 등급을 정해서 민박의 품질을 결정하고 있음. 이는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객에게 전국 어느 지트를 이용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준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음

◦등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등급	민박의 구비 내용
	Basic rooms (기본적 시설을 갖춘 방)
	Comfortably appointed rooms, each with at least a private bathroom or shower room (편안한 설비를 갖춘 편, 각 방마다 개인용 화장실과 샤워룸 구비)
	Well-appointed rooms, each with a private, fully-fitted bathroom (shower, bath, wash basin and WC) (설비가 매우 잘된 편, 각 방마다 샤워기, 욕조, 세면기, 변기 등의 시설이 완전 구비된 개인용 욕실을 구비)
	Luxuriously appointed rooms, each with a private, fully-fitted bathroom. Accommodation is in residences with character, in outstanding settings. Additional services are often available. (고급스러운 설비를 갖춘 편, 각 방마다 모든 시설이 구비된 개인용 욕실을 구비, 고급스럽고 특별한 내부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으며, 부가서비스가 가능함)

〈표〉 지트 드 프랑스의 민박 기준

◦북촌의 민박도 자체적 관리 기준을 만들어, 기와나 전통문양 등을 이용한 등급을 메기고 스스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특히, 가옥마다 한옥의 보존 수준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차별적이고 특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등급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와 같은 민박 기준 마련은 서울시에서 작성하여 하달하는 것보다는 조합 가입 가옥들 간에 협의를 통해 도달된 합의안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임

◦프랑스 지트의 경우 주목할만한 점은 **테마 민박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것임.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체험테마 지트가 존재함

- 동계 휴가 지트(Winter Holiday Gite)
- 포도원 지트(Vineyard Gite)
- 자연생태 지트(Panda Gite)
- 승마 지트(Riding Gite)
- 낚시 지트(Fishing Gite)

◦이러한 사례는 가회동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에 좋은 시사점을 가져다 주는데, 가회동에는 여러 가지 장기와 전통적 기술을 지닌 휴먼웨어가 존재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전통체험 프로그램을 겸비한 민박형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5) 통역/예약 지원

◦민박을 운영하는 이들을 위해 외국어 통역 지원이 필요함. 이에 대하여 민박을 운영하는 이들에 대한 직접적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통역지원을 할 수 있는 통역시설을 비치할 필요가 있음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1330 관광 안내 서비스 등 기존의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재 **월드인(World Inn)을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통역지원 시설을 북촌 민박 가옥에도 도입,** 이를 통해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필

요한 정보를 손쉽게 구득할 수 있게 함

◦ 한편, 예약시설의 경우 **공항, 시내 곳곳의 관광안내소, 안국역 문화쉼터, 여행사, 이태원, 홍대 등의 외국인 집결 장소에 'Direct Call'을 설치(북촌 민박 대표 예약번호확보가 우선)**하여 손쉽게 북촌 민박가옥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함

◦ 우선적으로 현재 이용이 가능한 온라인 상의 예약페이지와 연계시키는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함. 서울시문화관광 사이트내의 숙박예약(www.visitseou.net), 월드인닷컴(www.worldinn.com), 라보나 렉스등 민간단체의 민박 예약 홈페이지에 민박 가능 가옥들의 정보를 올리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장기적으로는 가칭 북촌민박조합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전 세계 및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예약과 기타 기반서비스를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원스톱방식의 예약 체제를 구축해야 함. 또한 이미 운영 중인 웹상의 다양한 문화 관광 홈페이지(서울문화관광사이트 등)와 월드인닷컴, 건축지도과에서 구축하여 올해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북촌 홈페이지등 기존 및 신규 홈 사이트들과 적극적으로 링크하도록 함

나. 전통문화생활체험관 구축

◦ 현재 가회동은 여관, 호텔 등의 숙박시설이 입지할 수 없는 주거지구로 설정되어 있음.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전향적으로 사고하여 **숙박개념이 가미된 '전통문화생활체험관' 구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체험관의 구축은 단순한 유적 답사나 도심경관 답사 등의 스펙터클 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 장소성을 느끼고 서울의 문화와 전통을 체험·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

◦ 손스홈, 남산골 한옥마을, 예지원, 한산기획 등의 기존 유관기관이나 시설이 존재하지만, 이들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 공급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 이를 수용하기 위해 전통문화체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에 대해 한국 전통가옥이 밀집해 있는 가회동이 최적의 지역이 될 수 있음

◦ 전통문화생활체험관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점적 문화시설로 머무르기보다는 **이곳을 '핵'으로 하여 가회동 '장소'에 포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시설과 장인 공방 등이 연계되는 '장소'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이 지역에 문화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

◦ 현재, 서울시에서 매입한 한옥 여섯 채 중 한 채를 이와 같은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월드컵 개최 전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1) 매입 주체

◦ 전통문화생활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해 한옥을 매입할 경우, **매입 주체를 서울시에 한정하기 보다 민간 매입을 유도**하여 위와 같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001년 현재 서울시의 한옥 매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므로, 민간 매입을 유도함으로써 한옥을 멸실을 방지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 한옥을 매입하여 전통생활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주체로는,

외국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학교〉

해외동포 교류사업을 벌이고 있는 〈재외동포 재단〉

여대생들의 예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대 생활관〉

외국 바이어 및 클라이언트들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민간기업〉

등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음

◦ 한편, 개별 기업 및 기관 자체 목적 외에 전통문화 육성과 대안적 전통숙박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업메세나'** 전략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음

○ 기업메세나 전략을 통한 체험관 조성

◦ 메세나(Mécénat)는 '예술, 문화, 과학에 대한 보호와 원조'를 의미하며, 현재는

주로 **문화예술 후원을 통해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기업활동**을 의미함. 유럽에서 널리 쓰이며 한국에서 이 용어가 통용되게 된 계기는 1994년 출범한 한국 기업메세나 협의회(Korea Business Council for the Arts)의 설립을 통해서임

◦ 메세나 형식의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기업은 기업이미지 고양, 신규고객의 창출, 새로운 사업분야 개척 등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음[17]. 이의 대표적인 예로는 '쌈지 아트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홍대지역에 쌈지스페이스를 마련한 쌈지기업이 있음. 쌈지스페이스는 작가들에게 작업공간을 마련하고 대안문화를 하는 이들의 공연장을 제공해 주는 등 아방가르드와 대안문화의 메카로 성장하게 되었음

◦ 한국에서는 미술, 종합, 음악, 문학, 영화, 연극, 무용 순서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통문화에 대한 투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이에, 북촌의 한옥 멸실을 방지하고 운영 및 재정상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기업메세나 전략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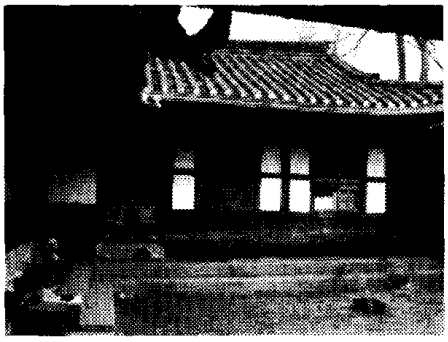
17) 양현미, 양지연, 1995, 기업메세나 활성화 방안, 문화정책개발연구원 정책연구 95-11

(2) 운영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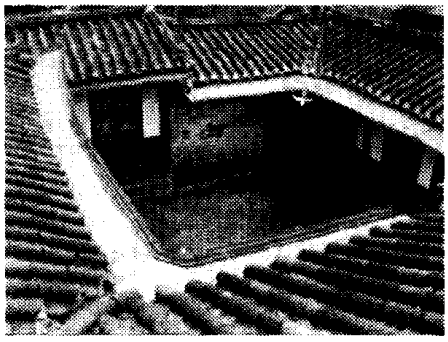
◦ 현재 서울시에서 매입한 한옥 중 전통문화생활체험관으로 용도가 잠정 지정된 가옥(135-1번지)에 대한 운영주체는 크게 *1) 지역 거주 주민 및 장인, 예술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주민단체'와 2) 기존에 체험관 및 전통 여관을 운영해 왔던 기관 및 업체*들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체험관으로 지정될 한옥의 상태는 다음 사진과 같음[18]

<그림 89> 외관



<그림 90> 정원



<그림 91> 위에서 내려다 본 사진 1

<그림 92> 위에서 내려다 본 사진 2

18 아래의 사진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북촌환경 정비팀의 협조를 받았음

○ 지역주민단체[19]

◦현재 북촌에는 이 지역의 모습을 지켜나가려는 다양한 주민단체 - 북촌가꾸기회, 한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한사모), 한옥을 아끼는 사람들의 모임(한아모) - 등이 존재함

◦한사모의 경우, 2000년 초에 한옥을 좋아하는 주민들이 한옥 보존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자연스럽게 모인 동호회로서 삼청동 및 가회동 일대에 거주하는 20여 명의 주민들과 장인 및 예술가가 중심이 되어 전국의 한옥을 아끼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함

◦이들 주민들이 생각하는 북촌 활성화의 방향은, **기업중심의 상업적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본 체험장을 **살아 숨쉬는, 평범한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열린 한옥으로 유도**하여 한옥을 전통문화의 생활체험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임

① 지역주민단체의 경쟁 우위

◦첫째, 지역주민단체를 한옥 전통문화체험관의 운영자로 선정할 경우, 이 단체들을 구성하고 있는 장인 및 예술가들이 체험 프로그램에 순환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단순한 체험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통문화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음

◦이런 장인들이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생옻칠, 전통염색, 전통다식, 한복, 생활공예, 목조각, 전통악기 제작 등이 있음

◦둘째, 회원으로 등록된 장인들의 생활가옥 및 예술가들의 공방과 전통문화생활체험관을 연계시킨 투어를 발전시킴으로써 **범지역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19) 정석(2000), 전게서

있을 것임

◦ 셋째, 앞으로의 북촌지역 문화관광활성화를 발전시켜 나갈 핵심 주도 주체가 지역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내발적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

② 지역주민단체의 경쟁 열위

◦ 아직 체계적 조직력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기존에 체험관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 정보나 노하우 축적이 떨어짐

◦ 지역주민 모두를 대변하는 대표성을 지니는 단체가 없어 한 단체만 선정될 경우, 지역내 다른 주민조직의 반발이 우려됨

○ 기존 기관 및 업체

◦ 체험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기존 기관은 손스홈(Son's Home), 유스패밀리(Yoo's Family), 한산기획 등을 들 수 있음 (각 업체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부록 참조)

◦ 이들은 한국에서 제공하는 전통문화 상품의 부족과 질적 저하에 대응하여 대안적인 '체험'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음. 실제로 손스홈의 경우 이와 같은 전통체험 상품을 공급한 최초의 성공적 시도로 평가되고 있음

◦ 각각의 업체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는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북촌 한옥매입 추세에 힘입어 봉착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고 있음

◦ 하지만 각 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손스홈 :

- 한옥이 아닌 양옥에서 체험 프로그램이 이루어 짐
- 공간이 협소하고, 운영 인력이 부족하여 원하는 손님을 모두 다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임

◦ 유스패밀리 :

- 관리 상태가 매우 우수한 가회동 한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하드웨어적 우수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의 부족으로 이용객들의 수가 많지 않음
-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독창성이 부족

◦ 한산기획 :

- '양반 문화' 체험 상품으로 특화하여 가격이 비싼 편임
-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안동의 종가집 등을 임대하여 한시적으로 공급하여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짐(현재 중단된 상태임)

① 기존 업체의 경쟁 우위

◦ 첫째, 그 동안의 체험상품 개발 및 운영의 경험으로 인해 이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탄탄하게 축적**하고 있음

◦ 둘째, 비교적 자본 동원력이 갖추어져 있고, 기존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으로 **외국인들 사이에 인지도가 높음**

② 기존 업체의 경쟁 열위

◦ 첫째, 손스홈이나 유스패밀리의 경우, '김치담그기, 장구치기, 한복 입어보기' 등 프로그램의 참신성이 떨어지고 이를 보완할 대안이 없다는 점임

◦ 둘째, 이들 업체가 채택될 경우 선점 우위에 의해 독점력을 지닐 수도 있음

◦ 셋째, 지역에 뿌리를 두지 않은 까닭에 지역적 네트워크와 유리된 채 하나의 '점적 문화시설'로 남을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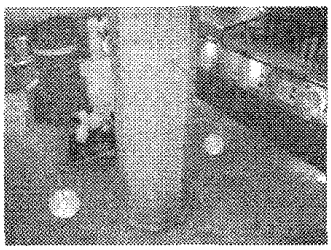
다. 안국역 문화쉼터

◦ 현재 인사동 위주로 홍보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안국역 문화쉼터'에 북촌 홍보공간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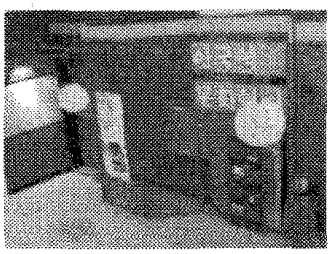
◦ 안국역 문화쉼터는 지난해까지 서울시 문화과의 지원하에 인사동의 홍보와 이벤

트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에서 운영을 해왔으나, 현재는 운영이 중지되었으며, 서울시특별시 지하철공사의 관광안내소만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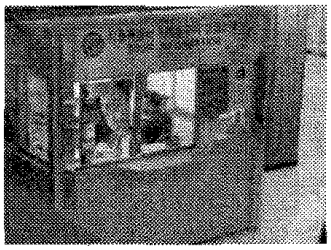
◦ 현재는 세 벽면에 사진자료를 포함, 인사동에 관련된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컨텐츠 변경등 유지/관리는 중단된 상태임



<그림 93> 안국역 문화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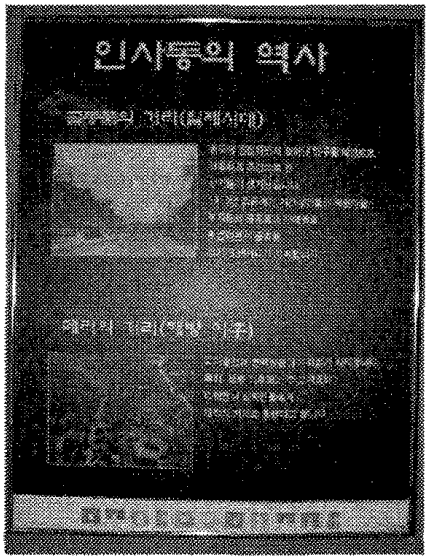
<그림 94> 안국역 문화쉼터



<그림 95> 문화쉼터내 안내센터

◦ 또한 다소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지나치기 쉬우며, 장소 자체가 매우 어두운 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임

◦ 따라서 관계기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안국역, 서울시 문화과)등과 협의를 통해, 이곳의 운영방식과 지역주민들의 참여 가능성, 시민단체의 협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림 96> 문화쉼터에서 제공하는 인사동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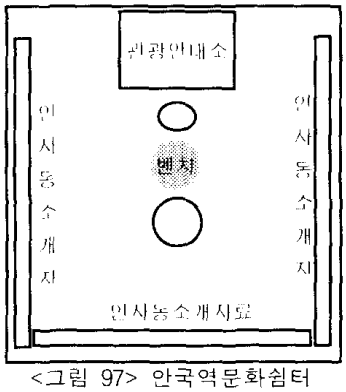
◦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존의 인사동 정보의 계속적 제공, 관광안내센터의 위상 설정 등 합의된 기준에 따라, 북촌지역의 역사문화적 사적과 문화시설 및 방문할 수 있는 장인들의 공방 등에 대한 사진 및 지도자료를 중심으로 북촌지역안내장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외부인들이 북촌지역의 문화역사자원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북촌의 다양한 자원들을 소개한 **'장소지도'를 부착**하고 그들의 모형을 설치하고 안내도를 제공하여 북촌에 대한 흥미도를 높여 주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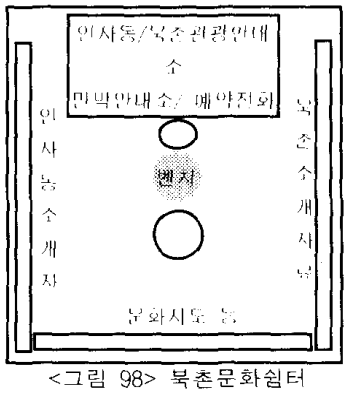
◦더 나아가 북촌지역에 민박 및 전통문화생활체험관에 직접적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Direct Call'**을 설치하여 예약의 편의성을 높임

◦원활한 지원 및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지하철 역사 가꾸기 운동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현재 안국역 쉼터의 구조(왼쪽)와 이를 보완한 (가칭) 북촌 문화 쉼터의 예상도(오른쪽)는 다음과 같음



<그림 97> 안국역문화쉼터



<그림 98> 북촌문화쉼터

3. '선(Line)'의 활성화

가. 흩어진 문화인프라를 연계하는 투어 코스의 개발 :

북촌도보여행 - Walking in the Past

◦기존의 서울시 '역사문화탐방로'와 마찬가지로, 모델 관광코스를 설정함으로써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고하며 동시에 북촌지역의 인지도를 향상하여 지역전체의 관광자원화를 도모함

◦다각적으로 여행자의 입맛이나 일정에 맞게 북촌 일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테마별로 몇 가지 코스들을 제안함. **특히, 북촌지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문화적·심**

미적 가치가 높은 인프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이들 코스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여 문화관광적 효과를 높이며 효율적인 동선을 유도하여 방문자들의 편의를 도모함

◦ 상세루트는 **'문화지도화'**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 **향후 이들 코스들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사동 학교[20]'를 참조하여 <창덕궁-인사동-가회동-경복궁-삼청 · 성북동>의 전통문화라인을 형성**해야 할 것임

◦ 지난 7월 28일 한 시민 단체의 주최로 북촌 일대의 탐방 투어가 실시되었음. 이 투어는 향후 계속될 북촌의 '문화 알아가기' 투어의 파일럿 투어의 성격으로, 북촌의 문화인프라 개발 방향에 좋은 지침서가 되었음(자세한 사항은 부록 참조)

◦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는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나, 「관광」이라기보다는 '체험'과 '이야기'로 이루어진 바람직한 투어, 탐방 코스의 좋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벤치마킹(자세한 사항은 부록 참조)

○ Seoul Mystery Walk(서울 신비 찾기 여행)

◦ 서울 미스터리 워크는 1995년 캐나다 출신의 스티브 로니(Steve Roney)가 "Seoul Mystery Tour"란 이름으로 시작한 테마투어로, 개인 여행자들을 위한 이렇다할 여행 프로그램이 없는 서울에 "이야기가 있는 관광"을 처음 도입하였음

◦ 외국인들과 서울시민들에게 서울의 숨겨진 매력을 직접 걸어 다니며 체험하는 코스를 제공해줌으로써, 일반적 관광코스에서는 찾을 수 없는 "나만의 서울"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코스로 인정받고 있음

◦ 투어 코스 개발의 주요 원칙은 1) 지하철에서 가까울 것, 2) **흥미롭고 신비로운 미스터리의 특징이 있을 것**, 3) **다른 투어에서 소개된 적이 없는 코스일 것**으로서, "무료로(5,000원의 기부금), 도보로, 영어로" 진행됨

---

20) 자세한 사항은 부록 참조

◦현재 25개의 코스가 마련되어 있는데, 각각의 관광 코스들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의미 없이 지나치기 쉬운 서울의 여러 문화자원들을 세심하게 발견해 낸 것이 특징임**

◦그가 개발한 투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자세한 사항은 부록 참조)

- Earth Magic : 개천절 기념, 왕조의 제례의식을 둘러보는 코스
- Road to Beheading Rock : 절두산 성지 코스
- Seoul of Saints and Scholars : 대학로 코스로 유교사당과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를 둘러봄
- In Search of the Goddess : 홍제동 여신상이 놓인 계곡 투어 코스
- Hidden Insadong : 선(禪)과 차(茶)의 인사동 발견

◦미스터리 워크는,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에 앞서 **서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역사·문화적 자원의 재발견과 조직화만으로도 얼마든지 흥미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함

○ Beijing Hutong Tour : 뒷골목을 관광상품으로

◦중국 베이징의 독특한 관광 상품인 "후통투어(胡同遊)"는 관광가이드들을 따라 인력거를 타고 골목길과 전통가옥을 돌며 있는 그대로의 중국 서민들의 생활상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임

<그림 99> 중국의 전통 가옥인 사합원으로 이루어진 마을, 후통은 이들을 이어주는 골목길로 문화와 소통의 공간

◦후통은 원(1206-1341), 명(1368-1628), 청(1644-1908)시대를 이어온 골목길로서 베이징 시내에 약 50km가 이어져 있으며 이중 10km가 관광코스로 이용되고 있음

◦후통마다 중국 서민들의 생활이 꾸밈없이 펼쳐지며, 전통 가옥의 역사와 풍속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음

◦베이징의 후통 관광코스는 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하드웨어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하는 대신,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사람이 살아가는 자연스러**

운 모습"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소프트적 아이디어 상품이라 할 수 있음. 이는 가회동에 '골목길' 투어를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 줌

○ 보스톤 프리덤트레일(Freedom Trail) 투어[21]

◦"Red line"으로 알려진 보스턴의 유명한 관광루트인 프리덤트레일(Freedom Trail)은 미국 역사 초기의 애국자들이 걸어온 "역사적 길"을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효율적으로 보여 주는 역사탐방로 투어 프로그램임

<그림 100> 프리덤트레일의 레드라인이 시작되는 보스턴 관광안내센터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자유를 쟁취하게 되는 역사적 사건인 보스턴 차 사건과 관련하여 보스턴항구와 그 주변지역에 흩어져 있는 **역사적 흔적들을 보전**하면서, 지역을 내방하는 **관광객들이 보스턴시의 이미지를 보다 잘 이해하도록 마케팅**하고 있음. 이를 통해 **교육과 흥미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음

◦가장 특징적인 것은 주요한 유적지들을 이어주는 붉은 색 라인은 관광객들의 이동 효율성을 높여 줌.

◦또한, 프리덤트레일의 표식인 메달리온과 관광 안내판을 곳곳에 배치하여 지역의 특징적 경관을 만들어 냈으며, 코스 중간중간에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쇼핑 및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음

◦기존의 역사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변에 편의시설과 안내시설을 늘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비교적 단순한 과정을 통해 세계적 관광명소로 인정받고 있는 프리덤 트레일은 역사 문화 자원이 풍부한 북촌 지역의 관광소프트 개발에 상당한 시사점을 줌

---

21) 자세한 사항은 〈www.thefreedomtrail.org〉 참조

(2) 북촌 도보여행 제안

○ 북촌 시간여행 : 북촌의 사적 둘러보기

◦ 북촌의 역사를 반영하는 현존 유적이나 터를 주로 찾아다니는 코스임. 주로 '문화유산답사'를 즐기는 국내외 여행자들과 수학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함

◦ 동십자각, 광화당, 삼축당, 윤보선가, 정독도서관, 종친부, 번사창, 백록정, 중앙고등학교, 인촌기념관, 관천대, 송진우 집터 등이 코스에 포함될 수 있음

○ 한옥 및 골목길 투어

◦ 북촌에 입지해 있는 한옥의 외관과 그 안에서의 생활을 탐방해 볼 수 있는 코스임. 미국 워터포드의 하우징 투어[22]처럼 특별한 역사를 가진 집들을 돌아보면서 그 집이 가진 시간과 문화를 느껴보는 체험 코스임

◦ 윤보선가, 백인제가 등의 사적지정 한옥뿐 아니라 일반 거주민들의 개방 한옥을 방문하는 것으로 함. 이를 통해, 북촌의 훌륭한 문화자원 중 유명한 사람들이 거주했던 집들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OOO가(家)'를 둘러보는 투어나 베이징의 후통투어처럼 골목길을 돌아보며 북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적 모습들을 둘러보는 투어 등을 구상함

○ 장인의 길 투어(Craft Tour)

◦ 북촌에 거주하고 있는 장인들의 공방과 그들이 살고 있는 가옥을 방문하여 한국의 전통장인예술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

◦ 북촌의 공인들의 작품 제작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스스로 만들어도 볼 수 있도록 함. 투어의 마지막에는 소규모 아트샵을 배치하여 이들 장인들이 직접 수작업한 공예품들을 파는 것도 좋은 연계방안이 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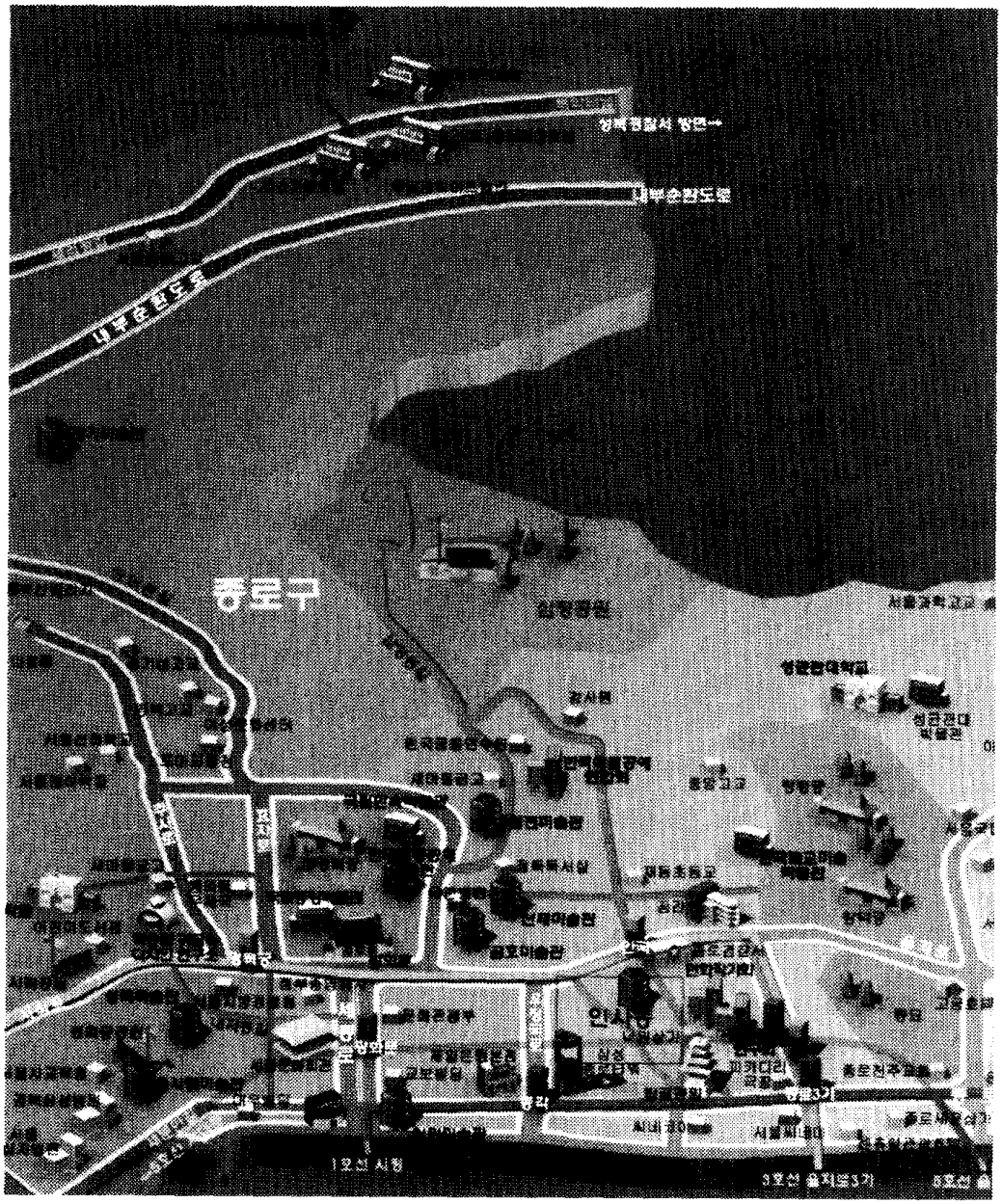
22) 자세한 사항은 부록 참조

◦ 인사동의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이나 경복궁의 한국전통공예미술관[23]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등 주변의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공예문화진흥원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장인들의 공방과 전통문화공예품 제작업체, 갤러리 등 문화자원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지역별 Craft Map을 제작하였는데, 종로구의 경우는 다음 그림과 같음

◦ 북촌의 장인들은 주로 상업용 공예품을 제작하기보다는 전문적 기능을 보유하여, 전통을 지켜나가는 문화적 고집을 보유하신 분들임. 따라서 그분들의 솜씨와 공예품의 예술성 등을 테마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탐방코스의 개발과 이를 적절히 뒷받침해 주는 재미있는 문화지도의 작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북촌의 '장인의 길' 코스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

23) 나무, 대나무, 나전, 금속, 화각 등 중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와 전수자들이 만든 420여 점의 전통 공예품들이 7개의 전시실과 12개의 공방에 전시되어 있음. 공방에서는 공예품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기도 함



<그림 101>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의 Craft Map

○ 선(Zen) 혹은 불교문화체험

◦ 북촌의 불교 문화 자원들(한국불교미술박물관 - 법련사 불일미술관 - 선원 - 성북동의 길상사)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서울의 불교문화 및 역사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임

◦현재 조성중인 조계사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2002년 11월에 건립될 예정)' 및 외국인 참선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거나, 인사동의 사찰음식전문점등과 연계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신비한 문화인 한국의 불교에 대한 호기심, 최근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채식주의와 '선(禪) 스타일'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인기를 끌 수 있는 아이디어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음

○ 궁중문화 체험 : Walking like a King

◦양 궁의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한국의 왕족 문화를 체험하게 해 주는 투어 프로그램으로, 경복궁과 창덕궁, 비원, 운현궁 등의 역사를 이야기로 엮은 투어를 개발함

◦양 궁 중 한 곳에서 시작해 북촌의 일정 코스(다양한 사적 및 궁중음식전수관, 전통병과교육원, 한복전시관 등)를 가마를 타는 등의 방식(특별한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주거지역의 성격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가 필수적임)으로 둘러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덕수궁 내의 궁중유물전시관과 연계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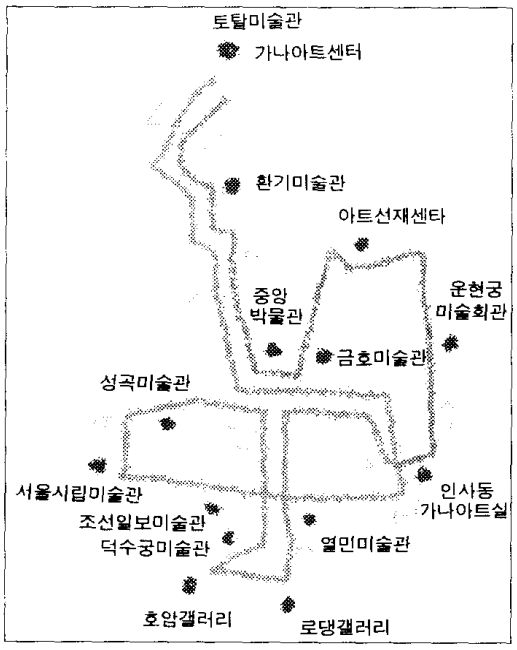
○ 갤러리 투어

◦최근 인사동의 이름난 화랑들이 사간동, 재동, 화동으로 이전하면서, 이 지역이 화랑거리로 거듭나고 있음. 또한, 삼청동·성북동·평창동 인근에 갤러리들이 점점이 입지함에 따라 사간동에서 삼청동, 성북동, 평창동을 아우르는 화랑·갤러리 벨트가 형성되고 있음

<그림 102> 미술관 순회버스

◦따라서 이 지역과 인사동을 연계해 민간에 의해 운행되고 있는 '미술관순환버스'를 행정에서 일정정

도 지원하여, 북촌지역 갤러리 투어를 정규 프로그램으로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임



<그림 103> 미술관순회버스노선도

<그림 104> 미술관순회버스 정류소 표시

◦ 이밖에도 삼청동의 카페, 음식점, 성북동의 다양한 문화 자원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관광 프로그램의 제안이 가능함

나. 문화의 거리 조성

(1) 삼청동 테마 거리

◦ 사간동 화랑 거리를 지나 삼청동 길에 들어서면 흥미롭고 특별한 분위기를 지닌 다양한 테마카페와 맛으로 정평이 나 있는 식당들이 연이어 자리잡고 있음. 이곳을 찾는 이들은 주로 주말저녁 30-40대층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특히, 이들 카페와 식당들은 독특한 외관으로 이미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자연 환경 및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공방 및 전시장과 어울려 문화적이고 심미적인 경관을 형성함

◦ 그러나, 일반인이나 외국인이 찾아가기에는 접근성이 좋지 않고 이 지역내 인도

도 좁아 도보 통행이 매우 불편함

◦ 따라서 이 지역의 독특한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편의시설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역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지닌 인도를 확장하고, 지역의 마을버스를 방문객들을 위한 목적으로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2) 계동길 문화상품의 거리[24]

◦ 현재 근린상업시설들을 줄지어 있는 계동길을 **장기적으로 전통문화 상품의 거리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를 북촌 테마 투어와 관련시켜 프로그램의 종반부에 배치함으로써 북촌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문화 및 예술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또한, 한옥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한옥 개보수 업종, 한옥인테리어 업종 등 **전통생활에 필요한 근린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함

◦ 특히, 한옥 인테리어와 건축에 필요한 자재 및 소품을 취급하는 한옥백화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 이를 한옥 인테리어를 취급하는 회사나 한옥건축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한옥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북촌 탐방을 마친 방문객들의 소비를 유도함

◦ 앞서 제안하였던 북촌의 브랜드를 상품화하여, 한국의 전통이 담긴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음

◦ 이를 계기로 기존에 서울시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한옥 관련 업종 및 장인들을 북촌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입지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3) 비원 담장 거리

◦ 비원은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그 경관이 수려하고 예술적 가치가 높음. 그러나 비원 담장은 현재 불법건축물들의 난립으로 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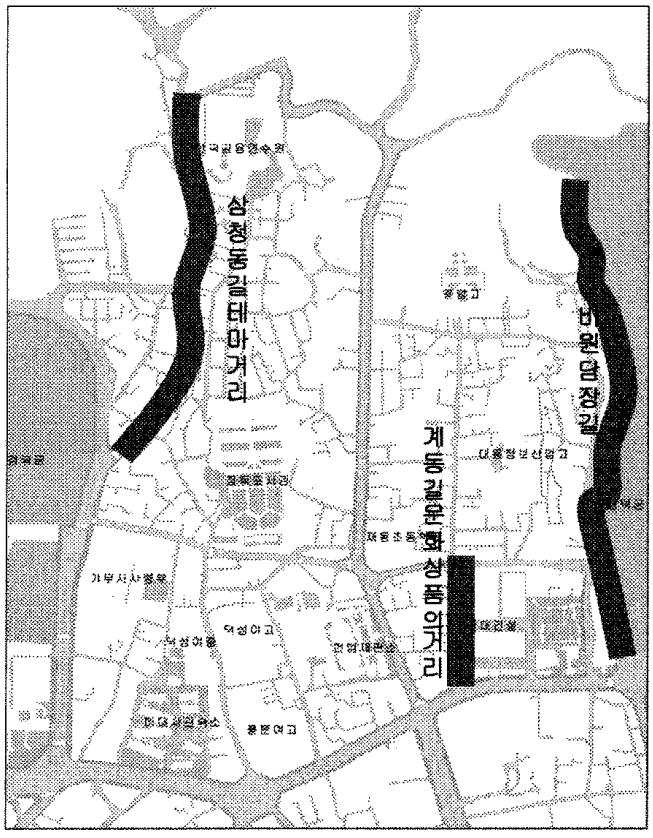
24: 계동길 문화의 거리는 한사모의 제안임

손되어 궁궐 담장으로서의 역사성과 심미성을 상실해 가고 있음

◦ 따라서 비원 담장과 그 인근지역에 대한 장기적 재개발에 의해 이 지역을 시간이 남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는 역사의 거리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그림 105> 훼손된 비원 담장길

◦ 이러한 북촌의 문화의 거리들을 지도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그림 106> 문화의 거리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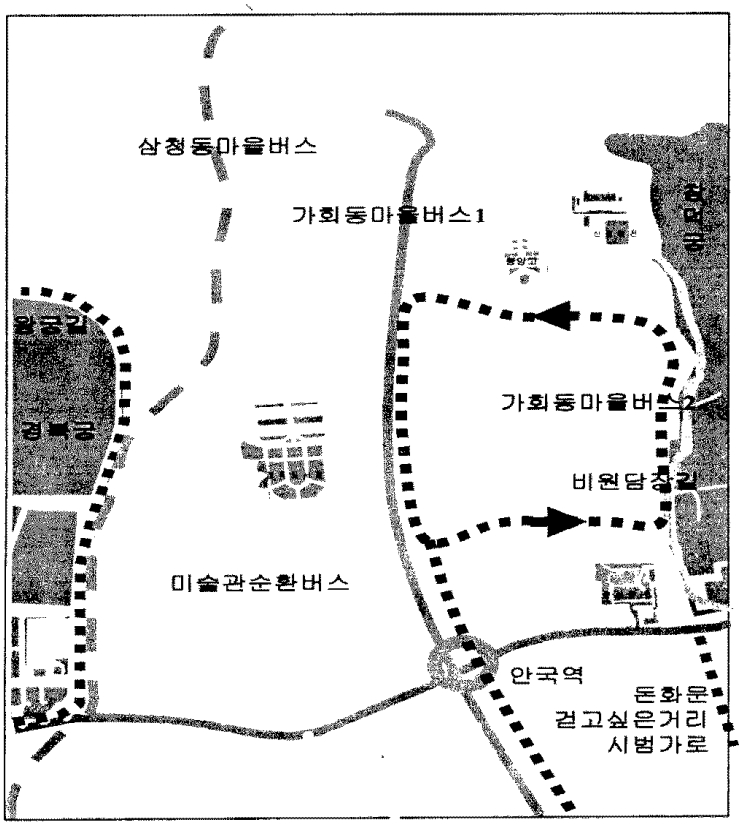
다. 시티투어 코스의 확대

◦ 현재, 시티투어는 경복궁-청와대-창덕궁으로 한정되어 그 사이에 있는 북촌지역은 외부와의 접근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음

◦ 따라서, 시티투어를 가회동, 성북동, 삼청동까지 확대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인사동-창덕궁-가회동-성북동-삼청동-경복궁의 북촌라인의 연계성을 높여야** 할 것임. 이는 **향후 북촌라인의 문화벨트화를 지원**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시티투어 운영은 적자 상태로 노선 확대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그 대신 **기존에 이 지역에서 운행되는 마을버스와 미술관 버스를 시티투어 버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 지역에서 운행되는 마을버스 및 미술관 버스 노선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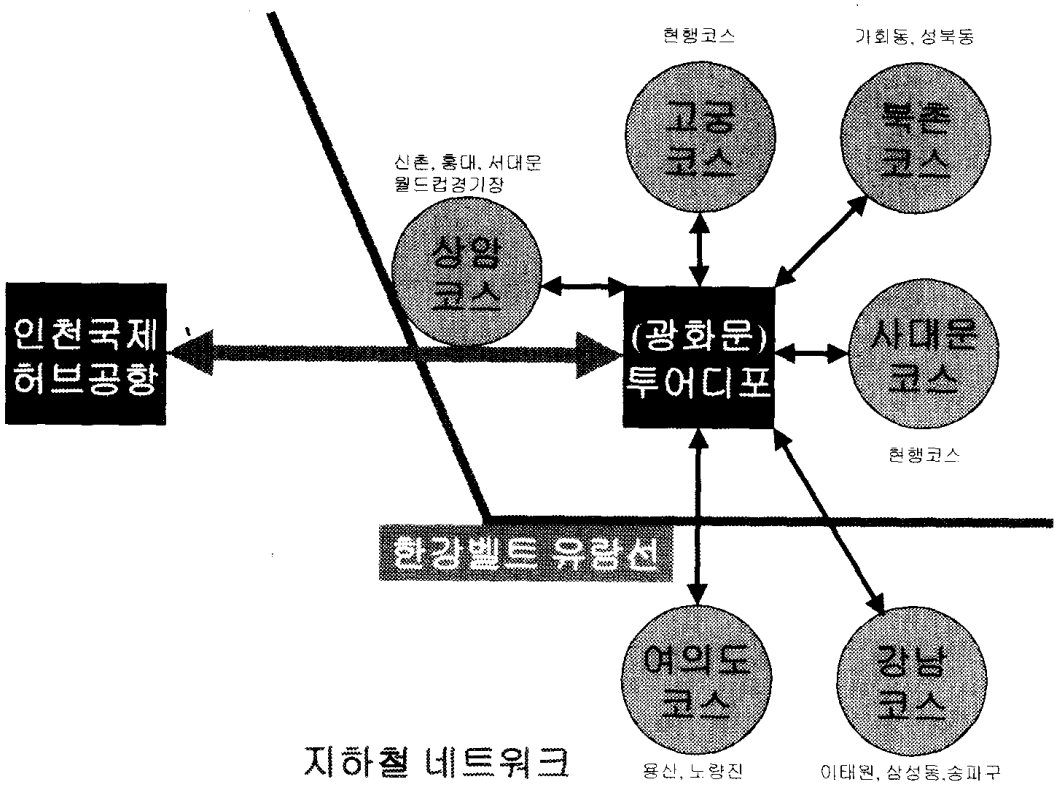


<그림 107> 북촌일대의 마을버스 및 미술관 순환버스 노선

◦현재 있는 마을버스(삼청교통, 석촌운수) 노선을 형간 변경하여 운행하는 것을 고려함. 관광용도와 더불어 종전의 근린대중교통 기능을 존속시키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고시한 마을버스 최고 요금수준(400원)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티투어 승차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차량은 우선적으로 현행 마을버스를 그대로 사용하되, 점진적으로 차량의 도색변경, 영어방송장치, 안내도 설치 등 최소한의 비용내에서 개조함. 개조비용은 시에서 보조를 하며, 향후 이용실태를 감안하여 특별사양 차량 투입여부를 결정함

◦이와 같은 북촌의 시티투어 코스를 포함하면 장기적으로 서울시 전체의 시티투어 연계라인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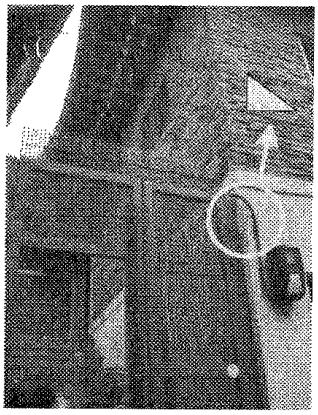


<그림 108> 서울시 전체 시티투어 모식도(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월드컵지원연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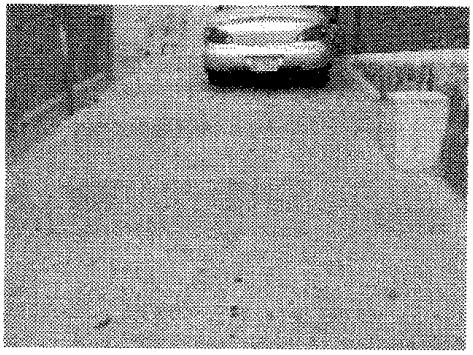
4. '면(Surface)'의 활성화

가. 빌리지드레싱(Village Dressing: 마을 꾸미기)의 구현

◦북촌지역의 문화관광자원, 민박, 체험관, 탐방로 등이 표기된 **안내판 및 안내소**를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이곳에서 북촌 안내 지도를 배포하고 탐방코스를 안내하는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



<그림 109> 노란색 상징물을 이용한 서울게스트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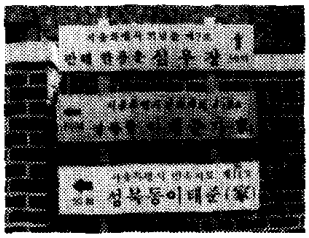
<그림 110> 북촌의 전통 문화와 어울리지 않으며, 진부하기까지한 가회동의 바닥

◦또한, **야외홍보게시판을 설치, 운영**하여 북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전통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제안함. 게시판에 담길 홍보내용으로는 북촌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자원의 가이드 맵, 홍보 포스터, 공연·전시 정보 소개 및 투어 프로그램, 추천 탐방코스 등이 가능함

◦민박가옥에는 **특별한 디자인의 간판이나 표시물을 이용**하여 이들이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할 것, 민박 브랜드를 제작할 경우, 이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민박가옥을 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다만, 이러한 야외 조형물을 제작,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의 전통적 경관을 헤치

지 않고 주변 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통일적 **'Village Dressing'**의 관점을 견지해야 함. 프랑스의 안내관이나 간판, 광고물, 벽보 등은 그 자체가 예술성을 지닌 조형물 기능을 겸할 정도로 심미성을 살리고 있음



<그림 111> 단순히 정보전달의 역할만 수행하는 성북동 전통 명소 안내표지판

<그림 112> 전체적으로 통일된 디자인을 견지하는 영국 버밍햄

<그림 113> 보스턴프리덤트레일의 상징인 도로바닥의 메달리온

나. 문화지도 작성

◦ 북촌지역의 Hard/Soft/Humanware들을 담은 문화지도를 작성하여 관광안내소 등에 부착하면 북촌의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북촌의 풍부한 문화·관광 인프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남, 실제로 어떠한 관광 안내지도에도 북촌지역의 문화자원에 대한 소개는 없음

◦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문화지도를 만들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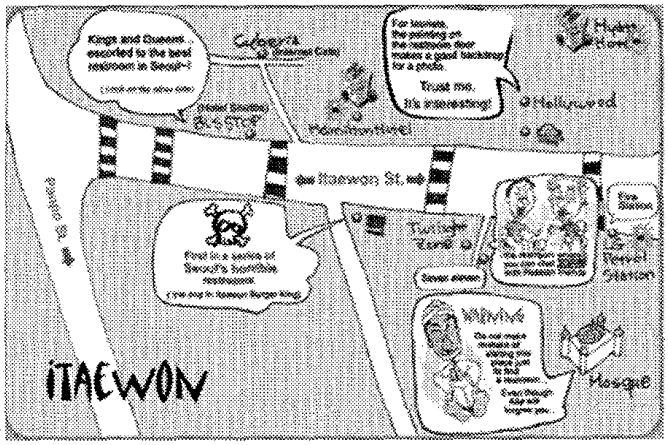
◦ 특히 인사동과 경복궁, 창덕궁 등 주변의 역사적 장소들과 연계시켜 이야기가 있는 문화지도가 제작된다면, 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져 교육적 효과도 배가될 수 있음

◦ Click Culture에서 제작한 화장실 문화지도는 디자인이 흥미롭고, 컨텐츠가 알차며, 휴대도 간편하게 되어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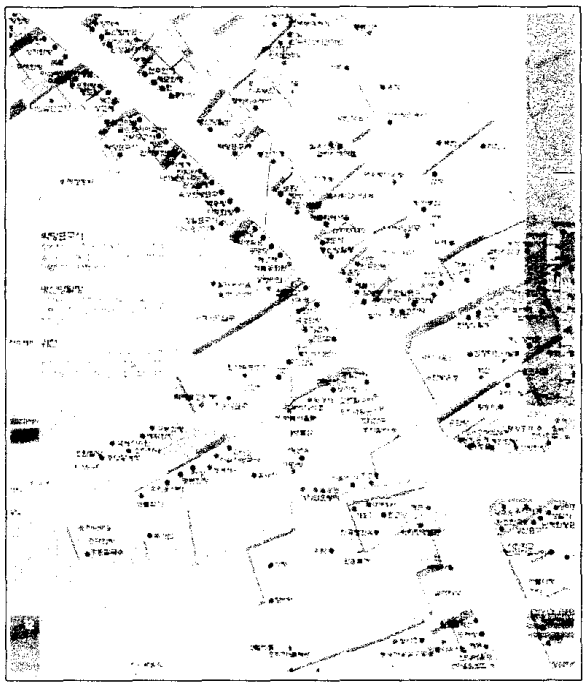
◦ 서울 시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안내하는 이 지도는 컨텐츠의 참

신성과 다소 파격적 디자인에서 많은 점수를 얻고 있으며, 문화지도의 제작 방향을 보여주고 있음

◦ 북촌의 문화지도 제작에 있어서도 기존의 백화점식 정보 나열의 형태에서 벗어나 흥미로운 정보와 이야기를 동시에 제공하는 「재미있는」 자료집 형태의 제작이 요구됨



<그림 114> Click Culture에서 제작한 화장실 문화지도



<그림 115> 도시연대에서 제작한 인사동학교의 <인사동·북촌 살펴보기> 지도. 각 지점이 가진 역사와 이야기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놓았다.

5. 홍보(Channel) 활성화

◦북촌 지역은 그 **문화적 컨텐츠의 다양성과 진정성(Authenticity)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디어나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음**. 지역의 문화관광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정의 홍보 지원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홍보지원은 크게 **사이버, 지면, 지하, 지상 홍보**의 네 가지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음. 이 네 가지 공간이 상호 결합된 홍보전략을 통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방문객들의 북촌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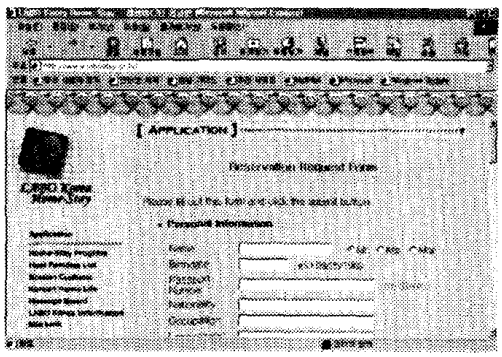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옥 민박의 고유한 브랜드 네임을 제작하여 One-Voice화**해야 할 것임.

(1) 사이버 공간 홍보

◦현행 서울시 민박에 대한 사이버 홍보는 서울시에 의해 직접 운영되는 대신 민박주선전문단체인 라보(Labo)와 렉스(Lex)에 위탁 운영되고 있음. 위탁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민박가구의 변동사항 수시 확인 및 자료관리
- 민박가구주 대상 워크샵 실시(연 2회)
- 민박가구의 외국인 민박 예약 및 운영

<그림 116> 민박주선업체 라보의 홈페이지



<그림 117> 라보의 온라인 예약 화면

◦ 북촌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컨텐츠내에 전통민박 및 체험관에 대한 홍보 및 예약 서비스를 포함시키거나, 전통 숙박만을 다루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이를 외국인 네트워크 망을 확보하고 있는 라보와 렉스 홈페이지에 연결함

◦ 아울러 2001년 8월 1일 월드컵 지정 중저가 숙박 업소인 월드인의 예약 시스템인 http://www.worldinn.com가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함

◦ 한국어를 포함, 영어, 중국어, 일어로 서비스되는 worldinn.com은 월드컵 10개 개최도시의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서비스는 물론 교통, 관광, 쇼핑, 레스토랑 등 다양한 유관 컨텐츠 및 날씨, 월드컵 뉴스 등 부가 정보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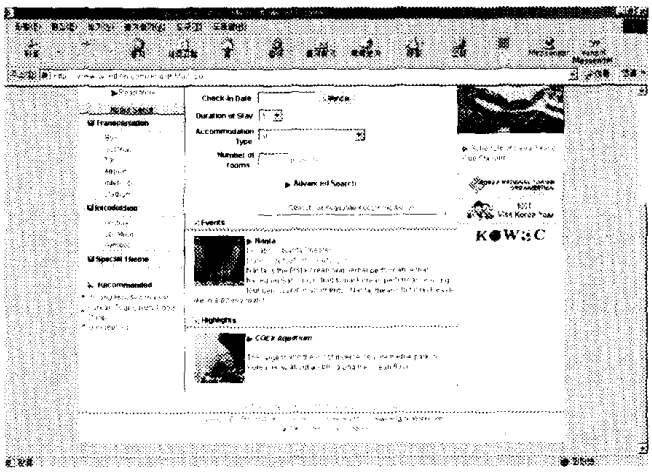
◦ worldinn.com은 지난 3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정보통신(주)이 4개월여동안 예약 시스템 개발 및 컨텐츠 구축을 동시 진행, 기존 숙박 시설의 온라인 예약 차원에서 한발 나아가 다양한 부가정보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소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예약 서비스는 언제 어느 곳에서든 on-click으로 실시간 예약 및 조회가 가능하며,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든 고객을 위해 콜센터(02-3279-5690)도 함께 운영(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등 총 7개 국어를 지원)하고 있어, 간단한 통역 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이 사이트는 기존의 중저가 숙박 업소 예약의 포털사이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하에 서울 디렉토리 내에 북촌의 민박 가구들에 대한 예약 시스템을 별도로 갖추어, 중저가 숙박 시설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전통과 삶의 모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민박에서의 숙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월드인닷컴의 홈페이지 구성은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118> 월드컵 대비 중저가 숙박업소인 월드인의 홈페이지



<그림 119> 영어 메인 화면, 온라인 예약이 가능함

◦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장기적으로는 가칭 북촌민박조합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전 세계 및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예약과 기타 기반서비스를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원스톱방식의 예약 체제를 구축해야 함. 또한 이미 운영 중인 서울시 홈페이지, 월드컵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및 웹상의 다양한 문화 관광 홈페이지(문화관광부, 서울문화관광사이트 등)와 건축지도과에서 구축하여 올해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북촌 홈페이지등 기존 및 신규 홈 사이트들과 적극적으로 링크하도록 함

◦ 우선적으로 건축지도과의 홈페이지내에 북촌의 민박 예약 홈페이지를 통합시킬 것인지,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이에 대한 합의와 병행하여 우선은 서울포커스, 서울문화관광, 서울포커스내 서브디렉토리인 건축지도과 관리의 한옥 홈페이지, 월드인닷컴, 라보, 렉스 등 웹상의 모든 숙박업소 페이지에 북촌 민박을 홍보하고, 실질적 예약을 통해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후 합의를 통해 북촌 민박의 메인 홈페이지가 구축된다면, 이를 모든 홈페이지에 링크하는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이 효율적임

(2) 지면 홍보

◦ 전통한옥 민박은 서울시가 내세울 수 있는 독특한 테마문화상품이 됨. 앞으로 민간이나 지역, 구청에 의해 추진될 '문화지도' 제작을 행정적으로 적극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제작된 '문화지도'를 서울의 관광명소를 외국인 및 내국인들에게 알리는 관광가이드 북이나 관광홍보팜플렛, 관광지도, 관광홈페이지 등에 북촌의 하드/소프트/휴먼/라이프웨어를 표기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여야 함

◦ 특히, 2001년도에 발행되는 숙박업소 종합안내책자에 양식 민박가옥과 더불어 한옥 민박가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독자적인테마상품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을 실행해야 함. 가회동의 서울게스트하우스의 경우, 문화관광부의 사이트나 홈페이지 홍보보다는 「Seoul Walker」라는 일본 여행 안내 잡지에 실린 후 붐을 이뤘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제작된 홍보물은 관광안내소 및 공항, 안국역 문화쉼터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북촌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각종 문화기관, 숙박시설, 민박 시설 등의 정보가 빠짐 없이 수록되도록 자료 수집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3) 독자적 브랜드(TM) 제작

◦일본의 전통여관은 'Rhokan(료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전세계적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펼치고 있음. **단일한 브랜드를 제작하여 일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높은 인지효과와 상품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 주목할 것**

<그림 120> 프랑스 민박 브랜드「지트 드 프랑스」

◦북촌지역의 민박가옥 역시 이와 같은 브랜드 구축을 통해 상당한 상품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를 위해 **Gahoe™**, **Bukchon™**, **Minbak™** 등을 개발하여 홈페이지나 각종 홍보물과 북촌의 「장소지도」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와 같은 민박 브랜드 개발은 (가칭)민박조합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 하에 만들어 가야 할 것임

6. 민관 파트너쉽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의 구축

가. 북촌 네트워크 형성

◦북촌은 1990년대 초 한옥보존지구 해제를 계기로 "전통문화 보전"이라는 대의와 "재산권 확보" 등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주민과 행정, 보존과 매각을 둘러싼 주민들간의 갈등이 공공연하게 표출되어 온 지역임

◦이 지역을 「전통과 문화가 구현된 거주와 문화 생산의 공간」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 주체는 바로 지역 주민들임. 이들이야말로 북촌의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 가는 문화생산자이기 때문임. 현재, 북촌과 관련된 단체로는 북촌가꾸기회, 한사모, 한아모 등이 존재하며, 한옥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상당수는 한옥이 만들어 내는 문화를 아끼고 지키나가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된 테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고 행정과 전문가의 지원을 발판삼아, 관련 민간 주체들의 참여가 결합된 북촌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함**

◦ 이러한 북촌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나. 북촌 네트워크의 역할

◦ 북촌 네트워크 조직은 앞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할 북촌지역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할 것임

◦ 이를 이루기 위한 북촌 네트워크의 가장 큰 과제는 **각 구성원들간에 '지역의 미래상'에 상호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그에 따른 '발전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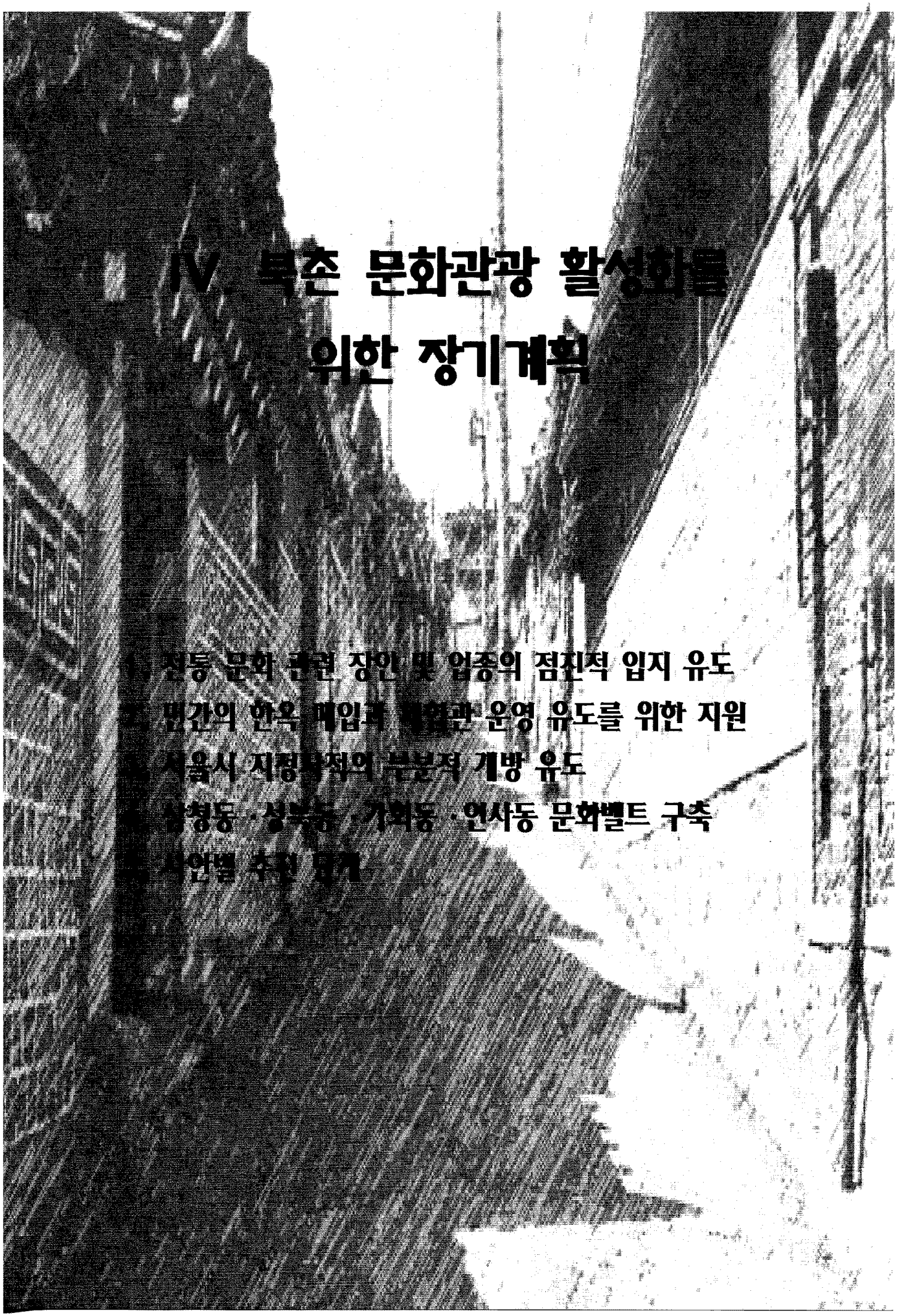
◦ 합의된 북촌의 미래상과 문화를 지켜나가기 위해 각 구성원들이 현안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협의하며 동의를 얻어 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함

◦ 이를 통해 북촌의 문화관광적 장소성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수반되어야 함,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보전가치가 있는 한옥을 철거하고 빌라를 건설하거나, 빌딩을 세우는 등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범지역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임

◦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자본의 무차별적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임

◦ 전문가 집단 역시 지역의 장소성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 창구를 열어 놓을 것이며, 라운드테이블 등의 공식적 토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개발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임

◦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문화를 몸으로 느끼며 살아 온 주민들이야말로 이 지역의 희망적 미래상과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가장 잘 도출해 내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주민들은 스스로의 잠재력을 창조적으로 개발하며, 전문가 집단은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행정은 이들의 구상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임



Ⅳ. 북촌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기계획

1. 전통 문화 관련 장인 및 업종의 점진적 입지 유도
2. 민간의 한옥 건립과 활용과 운영 유도를 위한 지원
3. 서울시 지정문화재의 부분적 개방 유도
4. 삼청동 · 성북동 · 가회동 · 인사동 문화벨트 구축
5. 지역별 추진 방향

빈 면

Ⅳ. 북촌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기계획

1. 전통문화관련 장인 및 업종의 점진적 입지 유도

◦북촌지역의 전통적인 지역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으로서 전통문화관련 장인 및 업종의 점진적 입지 유도를 제안함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한옥의 보전 상태가 우수한 북촌의 일부지역에 '북촌 장인 마을' 혹은 '북촌 예술인 마을' 등을 형성한다는 목표로, 전통 공예 전문인들의 입지를 유도하는 것임. 장인들은 북촌의 전통성으로부터 그들의 작품 활동을 위한 영감을 얻고, 장인들간에는 상승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북촌의 입장에서도 전통적 장소성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이주를 희망하는 장인들과, 서울시 지정 전통 기능 보유자들의 입지 지원 등 다양한 방향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지역주민 및 장인들과의 협의하에 작품의 전시나 홍보, 판매를 원하는 장인들에게 (가칭) 북촌 문화센터나 가회동 사무소 등 정기적 혹은 상설적인 홍보 공간을 마련하고, 이곳을 문화교류의 장소로 성장시켜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이러한 휴먼웨어와 공예품 생산 및 판매 산업이 결합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지해야할 것은 이들이 거주와 생산의 장소로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친 상업화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즉, 장인들이 이 지역에 입지하는 과정과 그들의 작품 활동과 이후의 홍보 과정에서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나친 과열과 상업화로 오염되지 않도록 행정의 주시가 필요함

◦ 질적으로 저하된 전통 문화의 상품화는 우리의 전통 제품들을 흉내낸 값싼 중국산 공예품들로 가득한 인사동 골동품가게를 옮겨 놓는 일에 지나지 않음, 따라서 북촌의 전통성이 만들어 낸 장인들의 생산 의욕과 그들이 생산한 작품들이 진정한 전통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행정과 지역주민이 함께 고민해야 함

◦ 이미 외지에서 전통 음식점이나 전통 화랑 등 우리의 것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의 개발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한옥을 구입하려는 움직임도 있음, 이렇듯 외부인들이 주도하는 전통 문화의 지나친 상업화를 지양하도록 행정 당국과 주민이 함께 나서야 함

2. 민간의 한옥매입 및 체험관 운영 유도를 위한 지원

◦ 민간이 한옥을 매입하여 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이들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함

◦ 이는 '관련 세제의 정비 및 보완'과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음

-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한옥을 취득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함

- 둘째, 인센티브제,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메세나 시상부문 마련,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서울대학교, 재외동포 재단 등)의 메세나 활동 의무화 등을 통하여 공기업,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구함. 또한, 기업이 문화시설을 운영할 경우 세제 혜택을 강화함

3. 서울시 지정 사적의 부분적 개방 유도

◦ 백인제가, 윤보선가, 성락원 등 현재 서울시의 지정 사적은 개인 사저로 공공 개방

이 불가능함

◦ 독립운동 33인 중의 한 사람, 윤보선씨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들의 자취가 배어있는 역사과 운치가 살아있는 한옥에서 「이야기가 있는 문화 자원」을 함께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조치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적인 부분에서 해결점을 마련하여 부분적 개방을 통해서 역사탐방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구체적 방법으로는, 하루 2회 일정한 시간에만 개방, 혹은 탐방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한 일정 요일 개방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보조금 지원등이 이루어져, 거주자들의 주거 권리를 확보해 주어야 함

◦ 서울시 지정 사적에 대한 원활한 관리와 적극적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서울시가 매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임

4. 삼청동 · 성북동 · 가회동 · 인사동 문화벨트구축

◦ 문화 예술적 인프라가 풍부한 삼청동 · 성북동의 문화성과 심미성을 가회동과 인사동의 전통성과 결합하여 문화벨트화해야 함. 기능을 상호 차별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북촌지역을 찾는 이들이 다양한 문화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즉, 삼청동과 성북동의 성락원, 삼청각, 간송미술관, 길상사를 통해 고급전통문화를 경험하고 가회동을 통해 서민적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며, 또한 삼청동 길의 테마카페 및 공방 집적을 이용하여 30~40대의 소비를 유도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삼청동 · 성북동의 자연환경은 이 지역의 문화인프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배경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함

5. 사안별 추진 단계

◦ 각 사안에 따른 단계별 추진 사항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구분	사안	세부사항	추진일정										
			2001년					2002년					
			8	9	10	11	12	1	2	3	4	5	6
점 (point) 의 활성화	전통민박 활성화	가구모집/관리											
		운영지침수립											
		가칭:민박조합조직											
		예약·통역지원체계수립											
		홈페이지 구축											
	전통문화 생활체험관구축	매입주체선정											
		운영주체선정											
		운영·관리											
	안국역 문화쉼터	운영방향설정											
		운영단체선정											
		운영·관리											
선 (line) 의 활성화	투어코스개발	코스개발											
		운영주체선정											
		운영·관리											
	문화의거리조성	코스개발											
		운영주체선정											
	시티투어코스 확대	기존 노선 확대 여부 결정											
		마을버스활용방안확립											
		미술관순회버스활용결정											
면 (surface) 의 활성화	Village Dressing	게시판, 간판디자인											
		가로 도로디자인											
		브랜드 활용 방안 수립											
	문화지도 작성	제작주체선정											
		컨텐츠 개발											
홍보 (channel) 의 활성화	사이버공간홍보	독자홈페이지운영주체선정											
		타관련사이트링크											
	지면홍보	해외여행정보지등재											
	독자브랜드개발	북촌브랜드개발											
지역네트워크 확립	북촌네크워크구축	기존 단체들의 정보구축											
		네트워크 체계 확립											

V. 부록

1. 민박신청서
2. 한옥민박지침서
3. 라보의 민박사업
4. 중저가 숙박 시설의 서비스 기준
5.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 공급 업체
6. 문화체험관광 프로그램의 사례
7. 7/28 실시 북촌 문화 관광 프로그램 사례분석
8. 인사동 학술 프로그램

빈 면

부록 1. 민박신청서

(제출용)

민 박 참 가 신 청 서

Code No _____

성명	한글		한문		**성별**	남 / 여					
	영문			**연령**	세						
주소											
전화번호	집		사무실		핸드폰						
해외경험	국가		체류기간		**민박제공경험**	있음 / 없음					
가옥수준	총 평	방 개	안뜰	있음 / 없음	화장실 개						
민박 가능 방 개수	개	크기	약 평	**화장실 수준**	옥외( ) 옥내( )	시설수준	상 / 중 / 하				
원하는 게스트	국적	성별	연령층	기타							
숙식이외의 제공가능 서비스	음식만들기 / 민속놀이(윷놀이,제기차기, 공기놀이) / 태권도체험 / 한복입어보기 / 절하기 / 차마시기 / 관광안내										
	기타										
종교		**언어구사능력**	영어	상 ( ) 중 ( ) 하 ( ) 못함( )	일본어	상 ( ) 중 ( ) 하 ( ) 못함( )	중국어	상 ( ) 중 ( ) 하 ( ) 못함( )	( )어	상 ( ) 중 ( ) 하 ( )	

· 가족사항

성명	관계	성별	연령	직업	비고(언어능력 등)
(한글) (영문)					

· 기타 건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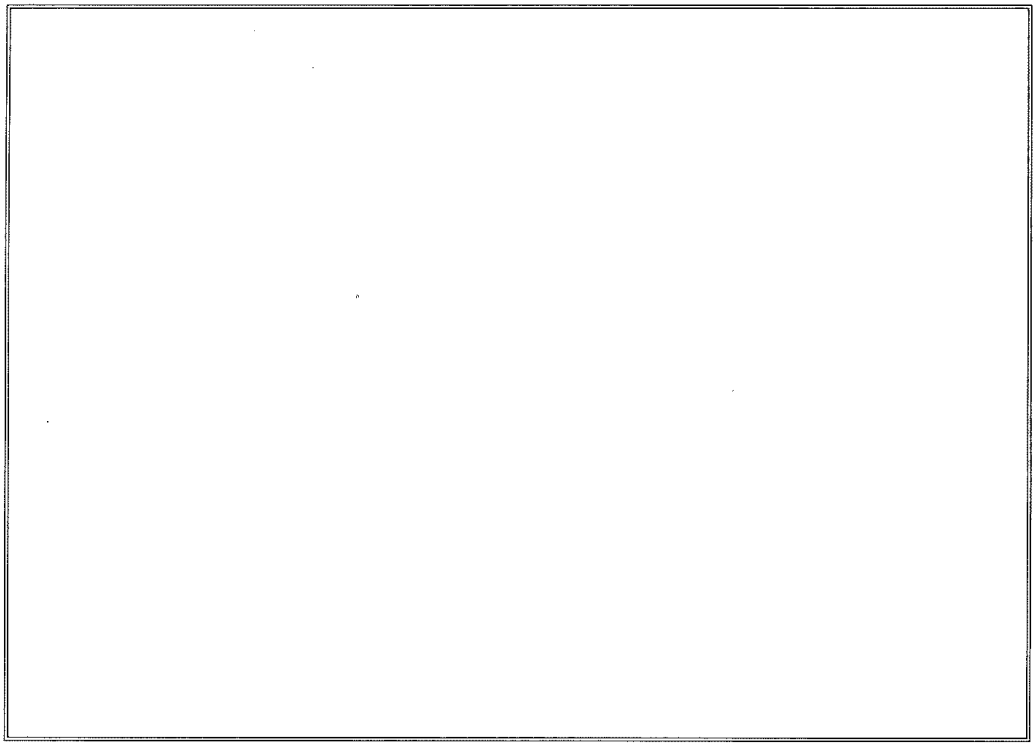
본인 및 가족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월드컵 대회등을 대비한 민박프로그램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2001년 월 일 신청인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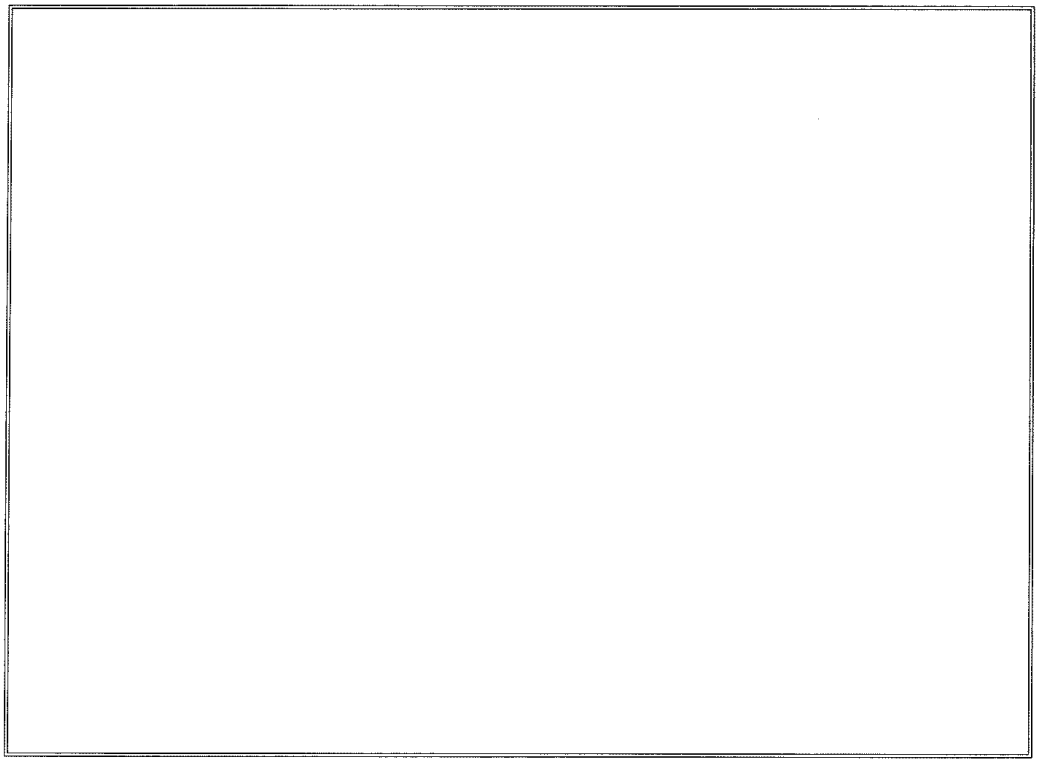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 집 전경 사진

· 화장실 사진



· 가족사진



부록 2. 한옥민박지침서

(보관용)

한 옥 민 박 지 침 서

우리나라의 정성스런 손님맞이는 예로부터 유명했습니다. 한옥을 이용해 민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외국인들에게 살아있는 우리 문화를 알리는 일입니다. 호스트패밀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외교관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외국인게스트들이 그들의 집에서 머무는 것처럼 서울에 대해 따뜻하고, 정겨운 인상을 가지고 가도록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대추나무집 민박」, 「등나무집 민박」, 「개성할머니집 홈스테이」 등 우리 집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이용해 이름을 짓는 것도 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박은 머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고, 지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소개시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서, 서울을 들를 때마다 우리 집을 찾도록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은 민박을 제공하는 호스트패밀리들을 위한 구체적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을 맞이하고 살아있는 우리문화를 알리고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1. 요금

○ 요금대 40,000원 (방 1개, 1박, 조식1식 기준)

○ 1인 추가시 15,000원 추가 (방 1개, 1박 조식1식 기준)

○ 추가식사 1식 5,000원

○ 어린이(7세이하) 15,000원

○ 기타 추가 프로그램 : 재료비 정도의 실비로 제공

(서울에서 홈스테이를 제공하는 호스트패밀리들의 경우 대부분 아침식사

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가격이 30,000원 ~ 35,000원 정도)

2. 숙박

○ 이부자리 : 재래 침구(요와 이불, 베개)를 청결하게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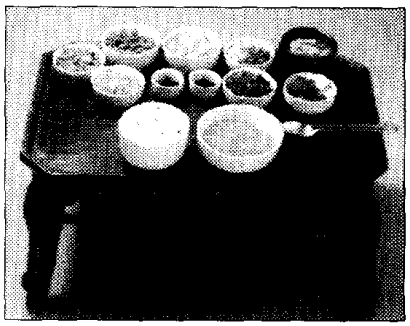
○ 게스트를 맞을 때마다 세탁을 새로한 전통식 침구를 준비해 둠

○ 전통식 자리끼(주전자와 대접)를 머리맡에 놓는 등 전통적 분위기 형성에 주의를 기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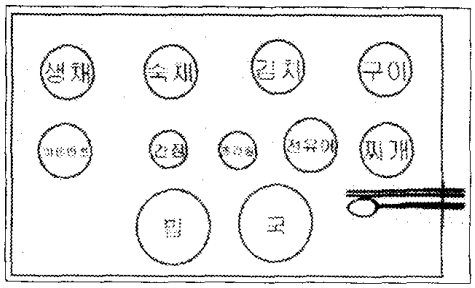
3. 아침식사

○ 조식 : 일상적 한끼 식사 (5첩 반상) : 1인용 상에 대접

· 전통적 식사 중 가장 일반적인 5첩 반상은 밥, 탕, 김치, 종지(간장,초간장) 두 개에 조치(바짝하게 끓인 찌개 종류) 한 그릇과 5가지 반찬, 숙채, 생채의 나물류와 조림이나 구이 중의 한 가지에 전류와 마른 반찬류가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차림



<그림 121> 한국의 일상적 5첩반상



<그림 122> 5첩반상의 메뉴

· 외국인들에게 일반적 가정에서 먹는 일상적 음식을 제공하고, 음식 준비에 대한 부담도 줄이기 위해 일반 가정의 일상식에 특별한 반찬 1~2가지 정도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게스트들이 양식을 원할 경우에는 간단한 토스트, 버터나 잼, 계란프라이, 시리얼과 우유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음. 이 경우, 전 날 저녁 외국인들에게 다음 날 아침식사에 대한 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식사 준비를 함

· 또한 일본인, 중국인의 경우 차(녹차, 자스민차 등)를 항상 준비하고, 서양인들을 위해 커피를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과 같은 식단이 예시될 수 있음

구분	종류
밥	흰밥, 잡곡밥, 현미밥 등
국	미역국, 콩나물국, 계란탕, 무쇠고기국, 된장국 등
나물	시금치, 콩나물, 고사리, 도라지, 달래, 냉이, 호박, 무, 버섯나물 등
무침	맛살무침, 해초무침, 상추무침, 등
전	생선전, 동그랑땡, 소시지전, 호박전 등
구이	각종 생선 및 야채 구이
※ 김, 김치, 고추장 및 간단한 밑반찬 등은 항상 준비	

· 위의 식단은 예시일 뿐이며. 각 가정의 일상적 식사에 외국인들에게 별 무리가 없는 햄, 샐러드, 김, 소시지 등으로 상을 차리는 것이 좋음

·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의 경우, 된장국이나 청국장 등 냄새가 특이하거나, 마늘 양념을 많이 사용한 매운 음식, 각종 젓갈류 등에는 불쾌한 반응을 보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게스트들이 추가 식사를 원할 경우, 가능하다면 1인당 5,000원 정도의 추가 요금을 받고 추가 식사를 준비할 수 있음. 점심식사의 경우, 비빔밥, 각종 면류(칼국수, 냉면 등),수제비, 삼계탕 등 특별식을 준비하면 외국인들이 좋아함

4. 호스트 지침서

○ 다음은 외국인 게스트을 맞이하기 위해 호스트 패밀리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다.

1. 청결을 최우선으로 한다. 특히 잠자리와 화장실의 청결에 최대한 주의

를 기울인다. 침구류는 항상 청결하게 세탁해 두고, 화장실은 자주 청소하여 게스트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2. 식사 준비시 외국인들의 입맛을 배려한다. 양념이나 간은 너무 강하게 하지 않는다. 특히 외국인들이 묵고 있는 중에는 가족들의 식사 준비시에도 냄새가 강하거나 외국인들이 꺼리는 음식은 삼간다.

3. 외국인들의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간단한 회화를 준비하고,, 한국관광공사의 "1330"서비스(통화료만 지불)나 피커폰 통역서비스(유료)를 이용한다.

4. 특히 <살아가는 모습>을 상품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특별한 이벤트 - 민속놀이, 전통음식 만들기(삼계탕, 김치전, 두부 등) -를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외의 특수 재능이 가능한 가정은 실비(재료비)만을 받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이 경우에는 개별 가정의 별도 홍보가 필요하다.

   예 : 김치전 만들기, 삼계탕 만들기, 부채만들기, 서예쓰기 등

5. 특히 장기적으로 북촌 지역 내에서 한옥을 이용하여 민박을 하는 가구들이 가칭 「민박조합」등을 결성하여, 체계적 운영기준을 확립하여야 한다.

6.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첨의 "한국 라보 민박 지침서"를 참고로 한다.

부록 3. 라보의 민박 사업

1. 민박(Home-Stay)이란

민박이란 외국인이 한국인 가정에 가족의 일원으로 머물면서 손님이라기 보다는 한가족처럼 받아들이면서 평소처럼 생활하는 것이다.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의 풍습, 습관, 또한 민족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 진정한 의미의 한국인을 만날 수 있으며, 또 살아있는 언어를 익히며 다른 나라의 문화와 습관을 이해함과 동시에 세계인으로 열린 마음을 지닐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기회를 통해 인종과 국경을 뛰어 넘는 "마음의 문"이 서로간에 생기며 이것이야말로 세계의 평화와 또한 국제화된 감각을 배우게 된다.

민박의 경험은 외국의 환경과 문화를 접하여 산 지식을 얻게 되며 이와 같은 장점 외에도 진정한 우정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진정한 한국인의 삶과 한국을 알리는 좋은 기회로써 관광진흥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2. 민박수수료(1박, 조식포함, 1달러 = 1,400원 기준)

구분	금액
성인 1인1박	US$ 25.00 저녁 식사시 추가 US$ 5.00
성인 2인 1박(부부 및 형제, 자매)	US$ 45.00 저녁 식사시 추가 1인당 US$ 5.00
성인 1인 1박 자녀(7세 미만) 1인 1박 자녀(12세 이상) 1인 1박	US$ 35.00 US$ 25.00 (성인과 동일) 저녁 식사시 추가 1인당 US$ 5.00
성인 1인 4주 US$ 500.00	

3. 민박지침서

■ 민박을 받을 때의 마음가짐

◀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필요하겠으나 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좋으며, 무엇보다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 어색함을 누그러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보기를 함께 하거나 요리 등을 함께 해보는 것도 좋으며, 가족의 사진첩을 보면서 화제를 이끌어 나가면 우리나라의 풍습을 알릴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나라의 풍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손님의 일정표를 보면서, 어느 곳을 가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를 의논하며 상세한 일정을 계획해 봅니다.

◀ 나이, 수입 등 개인적인 질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민박을 시작하기 전

◀ 가정에서 원하는 주의사항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일러줍니다..

- 금연문제
- 화장실 사용 문제
- 전화사용은 가급적 받는 것만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라 할지라도 전화를 걸 경우에는 민박가정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합니다. 국외로 전화를 걸 경우가 있을 때는 요금의 문제에 대해 사전에 확실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세탁물은 원하는 요일을 의논하여 시간을 배려해 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세탁을 하도록 합니다.
- 식사 시간을 미리 의논합니다.
- 손님이 혼자 외출할 경우에는 다니는 곳의 지리적 위치와 교통편 등을 미리 알아두어 상세히 알려줍니다. 집을 찾아오는 방법도 알려주며 너무 늦은 귀가에 대해서는 곤란함을 말해 줍니다.
- 손님을 특별히 안내할 경우에는 교통비, 점심식사비, 입장료 부담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확실히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기피하는 특별한 음식이 없는지 사전에 물어 봅니다.

■ 민박가정에서의 한국소개

◀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좋습니다.

- 윷놀이, 제기차기, 공기놀이, 연날리기 등 가르치기
- 한복 입는 법 알려주기

- 절하기 등 한국인의 인사 풍습 알려주기
- 불고기, 김치, 삼계탕 등 한국요리 가르치기
- 씨름 및 태권도 소개
- 한국 관광명소에 대한 소개와 안내책자 구해주기(관광공사 비치자료, 지하철 노선표, 서울 관광지도, 각종 안내서 등)

■ 민박 중 또는 민박이 끝난 후

◀ 불편하게 느끼는 점 등 솔직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사후 처리를 함과 아울러 다음 민박시에 참고하도록 합니다.

◀ 본인이 응할 경우, 주소 등을 알아두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 민박을 하고 간 후 감사편지, 생일축하 또는 크리스마스 카드 등을 보내면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한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마중 및 배웅(Pick-up)

1. 단체나 여행사 등을 통한 단체 민박의 경우에는 특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대면식(對面)을 통해 마중(Pick-up)을 하게 됩니다. 손님이 기다리지 않도록 정해진 시간보다 대면장소에 미리 도착하여 기다리는 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간혹 단체 민박팀 전체가 대면장소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비행이나 이동시간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하는 경우입니다. 민박이 끝나는 날에는 다시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손님을 모셔다 드리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늦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급하는 민박비에는 Transportation Charge라고 하여 마중 및 배웅 (Pick-up)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개별적인 민박 손님의 경우에는 손님 스스로 주소를 들고 민박가정을 찾아오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기 전에 자세한 교통편과 약도 등 찾아오는 방법을 팩스나 E-mail 등을 통해 미리 전해주면 좋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손님이 공항에 도착해서 전화를 하게 하고 이 때 자세한 교통편과 약도를 알려주면 됩니다.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손님의 이름을 적은 피켓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3. 여자 손님인 경우에는 짐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예의며, 남자 손님인 경우에는 도와주지 않아도 실례가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도움이 좋습니다.

4. 마중 및 배웅이 아닌, 민박기간중에 손님이 원해서 안내를 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비용문제를 확실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물을 하게되는 경우

◀ 값이 너무 비싸지 않은 것으로 가급적 한국적인 것이 좋으며 김, 김치, 말린 안주거리 등 먹을 것도 훌륭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먹어 본 음식중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 법 등을 적어 준다든가 요리책을 구입해 선물로 하는 것도 주는 것도 좋습니다.

◀ 선물을 할 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인에게 선물을 할 때는 흰 종이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일본인은 흰색을 죽음의 색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칼은 일본인에게 자살을 상징하므로 선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 일본인들은 짝으로 된 것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여기므로 짝을 이룬 SET 선물을 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4개는 피합니다. 미국 등 서양인이 13 이라는 숫자를 싫어하듯이, 4 라는 숫자는 불행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중국인에게는 괘종시계를 선물하지 않습니다. 괘종시계라는 단어에 장례식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홍콩사람은 두 가지의 선물을 받는 것이 한가지 선물을 받는 것보다 좋아 합니다. 많아서가 아니라 두 개는 행운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라틴 아메리카 사람에게 칼을 선물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칼을 선물하게 될 경우에는 동전을 함께 선물하면 됩니다.
- 중동인에게 손수건 선물은 이별을 의미합니다. 또한 몸의 일부라도 노출시킨 여인의 사진 또는 애완동물 사진 등은 선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 프랑스인에게 향수를 선물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 환경, 문화, 관습 차이에 대한 이해

1. 손님의 호의를 받게되는 경우나 손님에게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고맙습니다" 또는 "미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이나 표정, 경우에 따라서는 그림, 손짓, 한국어 등으로 상대방이 알아들을 때까지 의사 전달을 하지 않으면 엉뚱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짧은 기간에 한 나라의 문화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무리지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예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두고 실천해야 합니다.

3.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의 동남아국가에서는 머리를 신성시하므로 남의 머리를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동반 자녀가 있을 경우, 어린아이가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특히 민박가정의 자녀들이 동반자녀와 함께 놀 경우, 우리나라 어린이들끼리 흔히 장난치듯이 머리를 툭툭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4. 태국은 불교국가로서 불상(佛像), 승려를 매우 신성시하며, 왕실(王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5. 국교(國敎)가 이슬람인 중동지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온 손님에게는 물건을 건네거나 받을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해야 하며, 돼지고기와 술을 권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6. 중국인은 자기가 사용한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7. 홍콩에서는 시계가 죽음을 상징하므로 시계선물을 하는 것은 실례가 되며, 중국에서는 청색과 백색은 장례식의 색깔로 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8. 손가락 O.K 사인이 프랑스인에게는 '가치없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브라질에서는 매우 상스럽고 외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9. 불가리아에서는 머리를 앞뒤로 끄덕이면 'No'의 뜻이며 좌우로 흔들면 'Yes'를

나타냅니다.

10. 멕시코 인디언의 경우에는 사진을 찍으면 영혼을 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진 촬영은 신중해야 합니다.

11.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손님에 대한 세심한 마음 씀씀이입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와 관습 차이를 모두 알고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민박을 원하는 외국손님은 일반적으로 호텔 등에서 머무는 외국 손님에 비해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기나라의 관습이나 풍습과 서로 다른 우리의 그것을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 그러나 '로마에 가면 로마인이 되라'는 말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외국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그 나라의 역사, 환경, 문화, 풍습이나 관습 등을 미리 공부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서점이나 그 나라 대사관 등을 이용하면 많은 자료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박가정의 가족 여러분은 그야말로 민간외교관의 선봉입니다.

■ 민박 제공자가 지켜야 할 유의 사항

1) 가정은 깨끗함을 유지 시킬 것. 손님이 도착하기전 자는 방과 침구를 세탁 정돈한다. (침실에는 주전자. 개인물컵, 휴지, 꽃 한송이 등을 준비한다.)
2) 손님이 사용할 서랍장을 비워둔다.(밑의 한, 두칸)
3) 아이들이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4) 손님이 현관에 들어서면 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서로간의 소개를 한다. (방문앞에 손님의 이름을 써준다든가 환영의 의미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집안 안내를 한다. 먼저 화장실에 안내하여 화장실 사용법과 목욕탕 사용법(샤워기 사용법, 세면기의 냉온수기 사용법 등)을 알려준다.
6) 기기 사용법(세탁기, 냉장고, 전기스위치, 전기코드 등)을 안내하여 기기가 손상되어 상호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한다.

7) 식사때는 한송이 꽃을 장식하여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며, 가정에서 늘 상 먹는 것으로 준비하고, 외국인의 종교와 습관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단, 아침식사 시간은 Host 가정시간에 맞춘다. 또한,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침 메뉴를 말해준 후 식탁에 내놓고 혼자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
8) 저녁 시간에는 한국적인 프로그램으로 즐겁게 하며 이를 통하여 국제적인 이해 증진과 외국어를 익히도록 한다.
9) 외국인이 보는 곳에서 어린이를 심하게 야단치거나 때리지 말도록 한다.
10) 버스, 전철 등 대중 교통을 이용할 때 밀치고 타거나 새치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1) 함께 외식을 할 경우에 주문 후 빨리 가져오라고 독촉하거나 큰소리로 종업원을 부리지 않도록 한다.
12) 식사중 흡연은 절대 금한다.
13) 식사중 트림을 하거나 입에 물을 넣고 소리내어 입가심을 하지 않도록 한다.
14) 외국인을 함부로 대하거나 우리말을 모른다고 우리말로 험담, 욕설을 하지 않는다.
15) 유료 민박은 전문인으로서의 철저한 준비를 하되 가정으로서의 사랑을 담는 것이 필수이다. 일주일이상 머무는 경우 필요한 수칙을 적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부록 4. 중저가 숙박시설의 지정 기준

근거 법명 :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별표 1

〔별표 1〕〔개정 99·8·5〕

지정숙박업자의 지정기준(제10조제2항관련)

1. 숙박업의 개설통보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의 영업소 개설사실을 통보한 자일 것

2. 영업소의 위치 : 다음 각목의 지역에 위치할 것

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지역

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다.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특구

라.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관광객의 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지역

3. 건축구조 및 주위환경 :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고유의 한옥으로서 외관상 깨끗할 것

나. 주위에 유해가스·악취·먼지·연기 및 소음공해를 발생하는 유해업소가 없을 것

다. 진입로는 포장되어 있고, 주위는 나무를 심거나 화분등으로 조경이 가꾸어져 있을 것

라. 건물의 내·외벽은 잘 도색되어 있을 것

마.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을 것

바. 자체식당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식당이 있을 것

4. 객 실 :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객실에는 침대가 비치되어 있거나, 방석이 충분히 비치되어 있을 것

나. 옷장·전화·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식수·컵·메모지·항공봉투·필기류 등

이 비치되어 있을 것

다. 출입문의 자물쇠는 자동 또는 반자동 폐쇄장치가 되어 있고, 출입문에는 안전 폐쇄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라. 창문에는 커텐등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을 것

5. 객실내 욕실 :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욕조·샤워시설·세면대·수세식 변기 및 거울이 설치되어 있을 것

나. 냉·온수를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을 것

다. 수건은 용도별로 2장이상 비치되어 있을 것

6. 삭제 〔99·8·5〕

7. 현관로비 : 이용객이 대기할 수 있는 의자가 비치되어 있을 것

8. 난방시설 : 중앙집중난방식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것

9. 기타사항 :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종업원은 명찰(국·영문)을 부착한 제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을 것

나. 시트는 매일 갈아 끼울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을 것

다. 객실등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는 체제가 구비되어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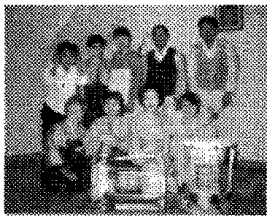
라. 국·영문으로된 이용약관은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되어 있을 것

부록 5.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공급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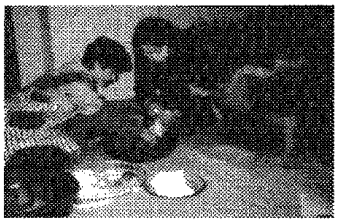
가. Son's Home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손스홈(Son's Home)은 두 명의 모녀가 외국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기획하여 1999년부터 운영된 문화체험관광형태의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꼭 참여해야 할 코스로 인기를 얻고 있음

<그림 123> 서예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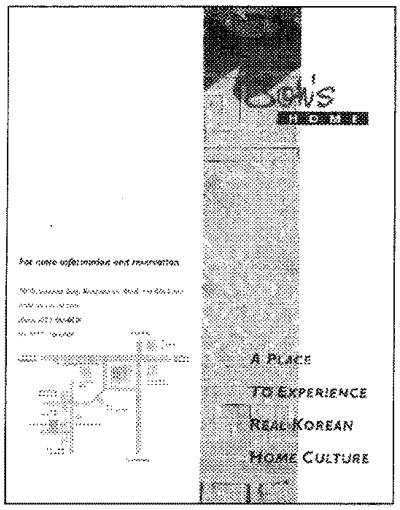
<그림 124> 장구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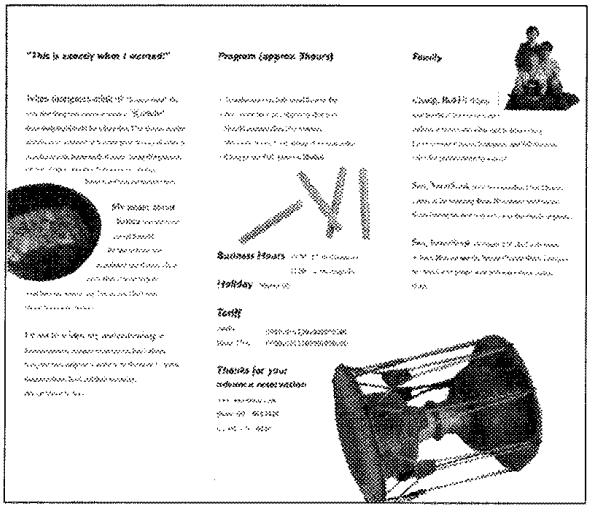
<그림 125> 김치담그기

◦ 손스홈의 방문객들은 입구에서부터 따뜻한 안주인들의 미소와 함께 한복으로 갈아입고, 여러 체험 프로그램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따뜻한 온돌에 앉아서, 김치를 담그어 보고, 서예도 써보며, 장구치기, 윷놀이 등의 전통 문화를 체험함

◦ 예약은 홈페이지와 전화, 팩스로 가능하며, 서울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루트를 통해 효율적 홍보를 하고 있음



<그림 126> 손스홈의 홍보 팜플릿



<그림 127> 프로그램과 이용안내(영어/일어)

◦ 한국의 다양한 전통문화체험을 본격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시도였으

나. 공간이 비교적 협소해 예약 손님을 모두 다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한옥이 아닌 양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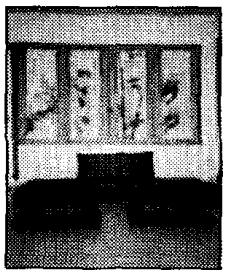
코스A	시간	10:30 - 13:30	
	요금	어 른	USD70/JPY7,000/KRW70,000
		15세 이하 어린이	USD60/JPY6,000/KRW60,000
	- 전통다과를 곁들인 코스 안내 - 김치 만들기 (김치 옹기 포장 : KRW 30,000) - 한복 입어보기 - 장고 등의 전통 악기 또는 놀이 체험 - 가정식 식사		

코스B	시간	17:00 - 20:00 (5인 이상 예약 가)	
	요금	어 른	USD70/JPY7,000/KRW70,000
		15세 이하 어린이	USD60/JPY6,000/KRW60,000
	- 전통다과를 곁들인 코스 안내 - 사군자 그리기 체험 (부채그림은 가지고 갈 수 있음) - 한복 입어보기 - 장고등의 전통악기 또는 놀이체험 - 가정식 식사 * B코스에는 별도 요청이 있을 시 가야금 연주 등 국악 공연 감상이 가능 (1인당 3만원씩 추가)		

나. Yoo's Family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의 한옥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전된 지구인 11번지의 한옥을 이용하여, 한국생활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가정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갖는데 도움을 준다는 취지아래 2001년 시작한 프로그램임

◦ 3대가 함께 사는 전통적 대가족의 생활 모습을 체험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을 제공함, 대략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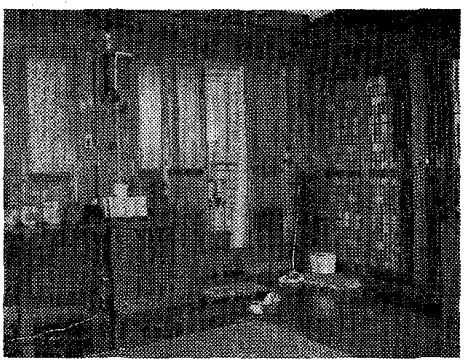
<그림 128> 전통을 살린 내부 인테리어

◦ 관리 상태가 매우 우수한 한옥을 이용하여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하여 이용객들의 수가 많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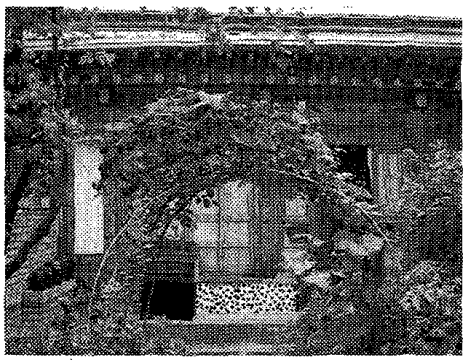
한국 가정생활 체험	시간	오전 10:00-13:00, 오후 16:00-19:00	
	요금	어 른	KRW70,000
		15세 이하 어린이	KRW60,000
	- 집 구경, 가족 소개, 차 한잔 - 김치 만들기 (또는 단, 서예) - 한복 입기와 전통 절 배우기 - 다도 - 전통 놀이 (윷놀이, 바둑, 장기 등) - 가정식 식사		

한국음식 만들기	시간	오전 10:00-13:00, 오후 16:00-19:00	
	요금	어 른	KRW70,000
		15세 이하 어린이	KRW60,000
	- 전통 시장에서 장보기 - 김치와 잡채 만들기 - 가정식 식사		

◦ 앞으로 가회동의 풍부한 문화자원들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다면, 가회동의 좋은 관광 코스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임



<그림 129> 전통을 살린 대청과 깨끗이 정돈된 수세식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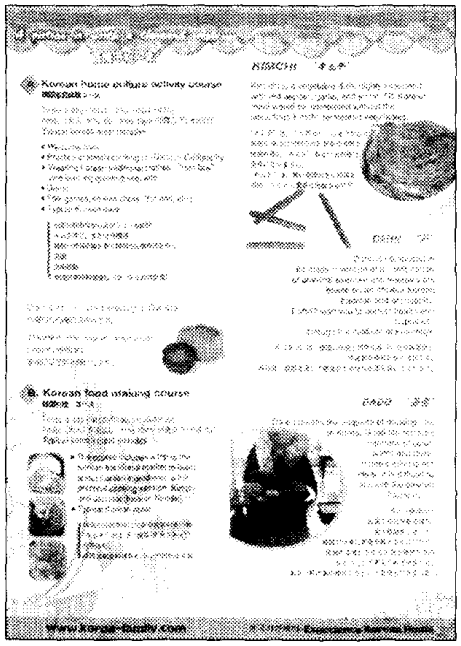


<그림 130> 아름답게 가꿔진 안뜰과 장독대 등 전통적 요소들이 풍부함

◦ 잘 가꿔진 안뜰, 관리가 우수한 가옥 상태, 전통을 느낄 수 있는 내부 인테리어와 장독대 등의 하드웨어와 3대가 가 함께 사는 꾸밈없는 전통적 대가족의 생활방식이라는 소프트웨어가 효과적으로 어울어진, 주거와 관광이라는 목적을 동시

에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체험 관광 상품 형태라고 할 수 있음

<그림 131> 2개국어로 된 홍보 팜플릿



<그림 132> 제공 프로그램 및 이용방법 안내

다. 한산기획 : 숙박이 포함된 고급 한국 전통 문화 체험 관광

◦일본의 '전통 료칸', 유럽의 '고성투어'와 같이 그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느낄 수 있는 한국적 전통 양반 문화 체험과 고택 여행을 목적으로 기획된 관광 상품이나 현재는 운영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임

<그림 133> 누각위에서 가야금 연주를 들으며 동동주를 마시는 프로그램으로 일본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음풍농월」을 상품으로 만든 아이디어 관광

◦한국의 전통 가옥 고택에서 숙박 숙식을 하면서 한국 조선시대의 '양반 문화'를 체험하며 우리 선조들의 풍류를 느끼게 한다는 취지아래, 고급 여행객들을 타겟으로 하여, 400년된 문화재 고택과 우리의 한복, 깨끗한 한국식 이부자리, 7첩 반상기에 정갈하게 차려진 한국식 밥상을 받고, 강과 산을 품에 안고 누각에 앉아 동동주를 마시며 가야금연주, 대금연주 등 주연을 제공함. 문화재 탐방 관광도 포함됨

○ 전통 체험 가옥 소개

- 하회마을 종가댁

◦400년 된 전형적인 사대부 고택으로 옛 선비의 기품과 전통을 살려 7년에 걸쳐 현대생활에 맞게 개조 복원하였음

◦특히 이 곳은 1999년 4월 21일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순방코스로 방문하여 생일상을 받은 곳으로 유명해졌음

- 소재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 수량 : 2동
- ㄱ조 : 'ㄷ'자형 목조 와가
- 주변의 가볼곳 : 하회마을, 봉정사, 병산서원

- 의성김씨 종가댁

◦1663년(현종 4년)건립된 의성 김씨 자촌 김방걸 선생의 종택으로 1989년 임하땜 건설로 임동면 지례리 625에서 현 위치로 이전되었음

- 소재 : 경북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 수량 : 20동
- 구조 : 'ㅁ'자형 목조 와가
- 주변환경 :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산속에 위치한 지례 예술촌은 집 앞으로 임하호가 있으며 뒷편으론 산이 있어 등산, 낚시, 삼림욕, 샘물 목욕 등을 즐길 수 있음
- 주변의 가볼 곳 : 도산서원, 민속촌, 용계은행나무

- 독락당

◦회재 이언적 선생의 종택으로 현재는 17대 종손인 이해철씨가 살면서 관리 보존하고 있다. 독락당은 보물 413호로 지정될 만큼 중요한 문화재임

- 소재 : 경주시 안강읍 옥산1리 1600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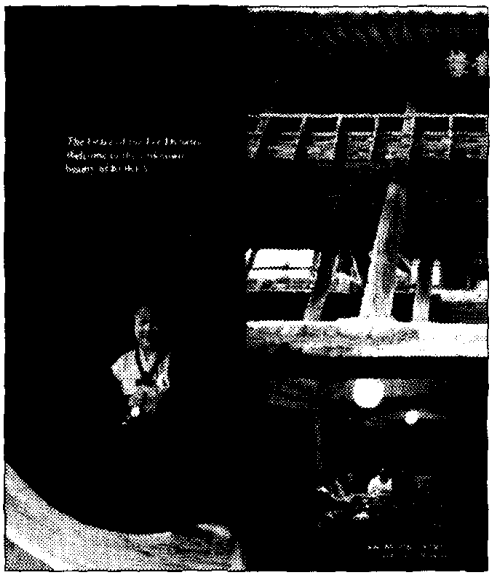
- 수량 : 6동(99칸)
- 구조 : 'ㅁ'자형 목조 와가
- 주변의 가볼 곳 : 옥산서원, 양동민속마을

- 황토방 사등이요

◦도예작가 최차란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곳으로서 우리 몸에 좋은 황토를 재료로 집을 만들어 생활하며 그 지역에서 나는 무공해 재료로 만든 토속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몸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곳임

◦소우주의 축소판을 원리로 황토방을 제작했으며 굼불을 지펴서 태양의 원리인 양기를 흡수함. 산소 보급 창고인 황토방은 병든 세포는 죽게하고 생기가 돋아나는 세포를 만들어 줌

- 소재 : 경주시 마동 328번지
- 수량 : 5채
- 주변의 가볼 곳 : 불국사, 석굴암, 천마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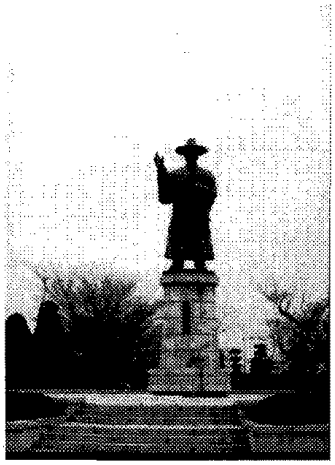
<그림 134> 한산기획 팜플렛, 전통 체험 관광을 경험하고 감동을 받은 일본인사업가의 후원으로 제작

<그림 135> 한산기획의 홍보 타겟은 고급문화를 향유할 줄 아는 중산층 이상의 관광객으로 주로 일본 관광객이 주요 고객임

부록 6. 문화 체험 관광 프로그램의 사례

가. Seoul Mystery Walk (서울 신비 찾기 여행)

◦서울 미스터리 워크는 1995년 캐나다 출신의 영어학자 스티브로니(Steve Roney)[25]가 "Seoul Mystery Tour"란 이름으로 시작한 테마투어로 개인 여행자들을 위한 이렇다할 여행 프로그램이 없는 서울에 "이야기가 있는" 관광을 처음 도입한 것으로, 외국인들과 서울시민들에게 서울의 숨겨진 매력을 직접 걸어 다니며 체험하는 코스를 제공해줌으로써, 일반적 관광코스에서는 찾을 수 없는 "나만의 서울"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코스로 인정받고 있음



<그림 136> 미스터리워크의 장소 중 하나인 절두산성지 내 김대건 신부의 동상

◦그에 의하면 서구사회에 한국은 정말 미스터리임. 사실 서구인들은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대부분 명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에 대해 정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음. 또한 비합리적이거나 미신이라는 이유로 경시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적 자원들이 서울거리의 곳곳에 숨어 있음

◦그는 이러한 틈새를 파고 들어,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영어 교사, 미군, 엔지니어 및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주말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함

◦1995년, 스티브가 처음 계획한 4개의 코스는 다음과 같았음

1. Visits to the Seoul witches(인왕산의 국사당 코스)
2. The last imperial palace
3. The old foreigners' cemetery
4. Beheading Rock(절두산 성지)

25) 중앙일보 1996년 11월 23일, 37면

◦ 투어 코스 개발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음

1) 지하철에서 가까울 것

2) 흥미롭고 신비로운 미스터리의 특징이 있을 것

3) 다른 투어에서 소개된 적이 없는 코스일 것

◦ 투어는 "무료로(5,000원의 기부금), 도보로, 영어로"로 진행됨

◦ 모든 코스는 참여자들이 이용하기 쉽고 찾아오기 쉬운,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시작함

◦ 첫번째 투어에는 여덟 명이 참여하였으나, 곧 한 회에 30~40명의 참여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함

◦ 현재 25개의 코스가 마련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은 일년을 주기로 반복됨

<그림 137> "광화문 해태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라는 테마 투어의 주인공 해태

◦ 각각의 관광 코스들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의미없이 지나치기 쉬운 서울의 여러 문화자원들을 세심하게 발견해 낸 것이 특징임

◦ 지난 해에 이루어진 관광코스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EARTH MAGIC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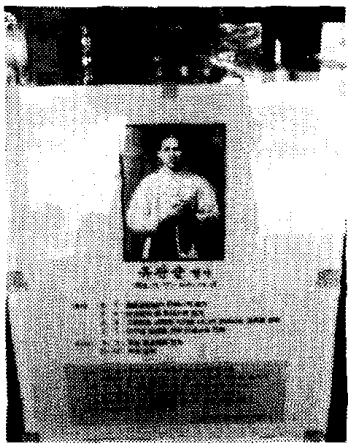
개천절을 맞이하여, 왕조를 중심으로 한 제례의식을 둘러 보는 코스, 광화문, 사직공원, 단군사당등이 포함됨(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

HOW TO READ A BUDDHIST TEMPLE (10/14)

세계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한국의 사찰들 중 특히 서울의 봉은사는 특히 이름이 높음. 한국에서 가장 높은 돌로 만든 조상과 수도승들에 대한 그림(Rasputin figure)으로 유명한 한국의 옥외화장실을 체험해볼 수 있는 코스(2호선 삼성역 1번 출구)

THE ROAD TO BEHEADING ROCK (10/22)

절두산성지 코스, 순교자 Julia Ota에 대한 이야기, True Cross의 파편들, 신앙을 지키려던 8,000명의 신도들의 피로 한강을 붉게 물들었던 이야기를 들어봄. (2호



<그림 138> 유관순기념관도 이야기가 있는 훌륭한 관광자원임

선 합정역 1번 출구)

THE SEOUL OF SAINTS AND SCHOLARS (10/28)

대학로 코스, 서울의 가장 유명한 유교 사당과 국립 서울대학교의 구 캠퍼스가 위치한 곳, 서양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한국의 유학자들과 유교 윤리에 대해 알아보는 투어.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SOKKURAM: THE TWO-PENNY TOUR (11/5)

서울에서 가장 큰 비구니들의 사찰인 보문사 코스, 석굴암의 거의 완전한 복제건축물. 이 코스에서는 이 곳이 정말 성배가 간직된 사찰인가에 대한 숨겨진 신비를 찾아 봄. (1호선 신설동역 1번 출구)

IN SEARCH OF THE GODDESS (11/18)

25분 동안 분주한 재래시장길을 빠져나오면, 1,000년 동안 숭배되어 왔던 10m 높이의 바위 여신상이 우뚝선 비밀의 계곡에 도달하게 됨. 좌우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물의 여신을 맞이하는 여행 (3호선 홍제역 1번 출구)

HIDDEN INSADONG (11/26)

성탄절 쇼핑의 시즌, 서울의 예술과 지성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 지역인 인사동을 방문. 한국 고유 종교인 천도교의 본산을 방문해 보고, 바쁘게 움직이는 서울의 한 가운데에서 고요함을 맛보는 코스. 새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찻집에서의 차한 잔, 다도에 대해 배워보기 : "선(禪)" 과 "차(茶)"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SEOUL OF THE BARGAINS (11/2)

서울은 "비싼 도시" 일까? 이 여행에 참가하고 나면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서울에서 가장 큰 일명 도깨비 시장인 동대문시장을 둘러보고 이것저것 쇼핑을 하려면 약간의 현금을 준비해야 함. 중국의 토속 종교와 붉은 얼굴의 전쟁의 신이 모셔져 있는 신기한 사당도 둘러 봄. 크리스마스 쇼핑에 안성맞춤 (1호선 동대문역 1번 출구)

EVERYTHING STOPS FOR TEA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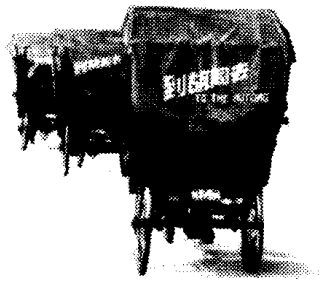
차도(茶道)의 전통을 맛보는 투어, 한국의 약초로 만든 차를 음미하고 그들의 숨

은 뜻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 모든 차들은 한약적 효용가치가 있음, 에너지를 높이고, 기억력과 지능을 향상시키며,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장수하는 데 도움을 줌, 이 사랑의 묘약을 맛보십시오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5번 출구)

◦ 서울미스터리워크(http://www.crosswinds.net/~sroney/)는 언론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 있음. 현재 스티브의 메일링리스트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관광객만 300명에 달하며, 날로 인기를 더하고 있음

◦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보다는 서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역사 문화적 자원의 재발견과 조직화만으로도 얼마든지 흥미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음

나. Beijing Hutong Tour : 「뒷골목을 관광상품으로」



<그림 139> "후통행"이라고 쓰여진 관광객용 인력거

◦ 중국 베이징의 독특한 관광 상품인 "후통투어(胡同遊)"는 관광가이드들을 따라 인력거를 타고 골목길과 전통가옥을 돌며 있는 그대로의 중국 서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베이징 후통 투어리스트 에이전시」(Beijing Hutong Tourist Agency)에 의해 조직·운영되고 있음

◦ 관광 코스는 계절과 소요시간에 따라 다양함. 일례로 동계 후통 투어 코스 중의 하나는 "Guanghua Temple Drum Tower - Typical Hutongs - Prince Gong's House"로 이루어져 베이징의 역사자원과 골목길 서민들이 이루어온 문화자원들을 흥미롭고 효과적으로 둘러 볼 수 있게 함(3시간 정도의 투어에 소요되는 비용은 180위안/매일 9시부터 2시까지 매 시간 출발

◦ 후통은 원(1206-1341), 명(1368-1628), 청(1644-1908)시대를 이어온 골목길로서 베이징 시내에 약 50km가 이어져 있으며 이중 10km가 관광코스로 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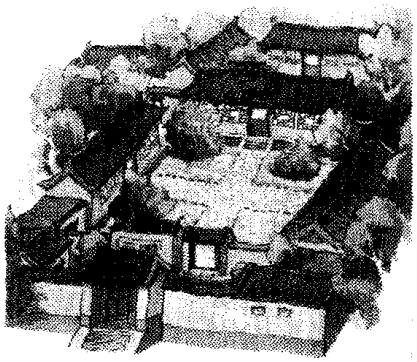
◦ 후통의 가옥들은 대부분 사합원이라는 중국의 전통 가옥 형태를 띄고 있는데, 명료한 위계질서를 가진 중국의 전통주거 유형으로, 원자(院子)라고 불리는 정원을 둘러싸고 건물들이 배치되는 형태임, 안뜰을 중심으로 ㄱ, ㄷ, ㅁ자 등으

<그림 140> 중국의 전통 가옥인 사합원으로 이루어진 마을, 후통은 이들을 이어주는 골목길로 문화와 소통의 공간이다.

로 가옥이 둘러싼 한옥의 가옥 형태와 매우 유사함

◦그러나, 사합원의 경우, 우리나라의 한옥과는 달리 그 규모가 매우 커서, 한 채에 5~10 가구가 거주할 수도 있으며, 일부 사합원은 그대로 초등학교로 이용되는 정도의 규모를 갖춘 것도 있음

◦후통마다 중국 서민들의 생활이 꾸밈없이 펼쳐지며, 전통 가옥의 역사와 풍속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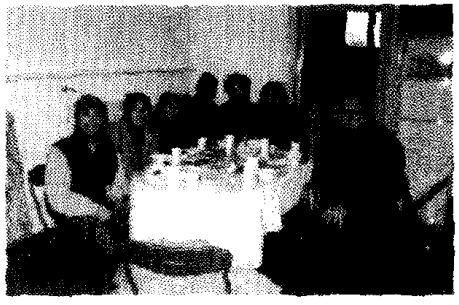
<그림 141> 중국 전통 가옥(사합원)의 구조

<그림 142> 꾸미지 않은 후통의 모습

<그림 143> 베이징 거리거리를 연결하는 후통

◦본격적인 관광 코스를 운영한 지 5년째 되는 2001년 현재, 3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2000년 한해동안에는 1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을 뿐 아니라, 갈수록 인기를 더하고 있음

<그림 144> 중국서민들의 삶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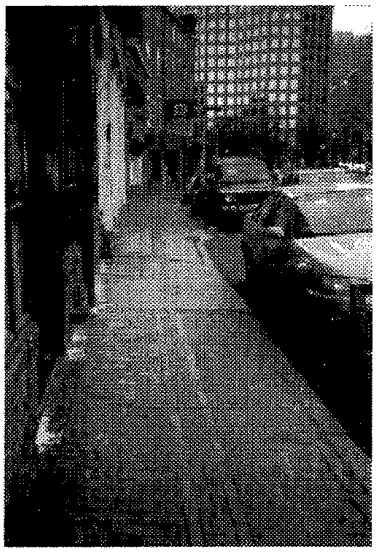
<그림 145> 후통에 위치한 가정에서의 중국식 식사

◦베이징의 후통 관광코스는 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하드웨어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하는 대신,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사람이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소프트적 아이디어 상품이라 할 수 있음

◦특히 후통투어는 중국의 독특한 이동수단인 인력거, 꾸미지 않은 중국 서민들의 진솔한 삶, 그리고 서양인들에게 매력 요소로 작용하는 중국의 전통문화가 효과적으로 어울어진 관광 상품으로, "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드웨어적 요소의 신설과 개보수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관광 상품 개발 방식에 좋은 사례를 제공해 주고 있음

다. 보스톤 프리덤트레일(Freedom Trail) 투어

◦www. thefreedomtrail. org



<그림 146> 역사적 현장을 이어주는 단순한 「라인」이상의 전략상품, 프리덤트레일의 레드라인

◦"Red line"으로 알려진 보스턴의 유명한 관광루트인 프리덤트레일(Freedom Trail)은 1958년 지역신문기자인 William Schofield가 개발해낸 관광상품임, 그는 미국 역사 초기의 애국자들이 걸어온 "역사적 길"을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효율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역사탐방로를 고안해 냈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자유를 쟁취하게 되는 역사적 사건인 보스턴 Tea사건과 관련하여 보스턴항구와 그 주변지역에 흩어져 있는 역사적 흔적들을 잘 보전하면서, 지역을 내방하는 관광객들이 그 유적들의 의미와 보스턴시의 이미지를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돕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효율적 관광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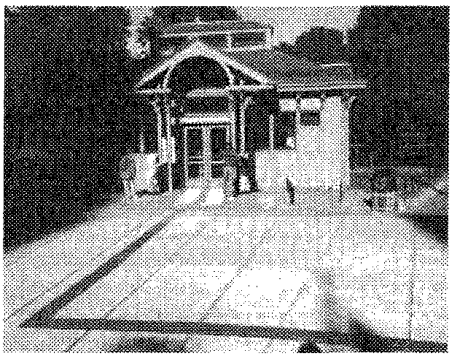
◦주요한 유적지들을 이어주는 붉은 색 라인과, 프리덤트레일의 표식인 메달리온, 눈에 띄게 디자인된 관광 안내판 및 안내자료 등을 풍부하게 설치, 제공하고 있으며,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연결해주는 코스 중간중간에 소규모 휴게공원과 공중화장실을 적절히 배치하고, 서점이나 기념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쇼

핑시설과 음식점도 구비하여, 관광객들에게는 보스턴의 역사를 손쉽고 즐겁게 알려주며, 지역에는 지속적 관광수입을 가져다 주고 있음

◦ 3마일에 걸친 미국 혁명과 관련 역사 유적지를 돌아보는데, 보스턴코먼(Boston Common)에서 시작하여, 찰스톤 소재 벙커힐기념탑을 끝으로 총16개 지역이 포함됨

◦ 소요시간은 얼마나 자세히 보느냐에 따라 최소 90분에서 3시간 정도까지 다양함

<그림 147> 프리덤트레일의 상징



<그림 148> 프리덤트레일의 레드라인이 시작되는 보스턴 관광안내센터

<그림 149> 레드라인만 따라가면 보스턴의 역사유적을 효과적으로 둘러볼 수 있음

◦ 트레일이 시작되는 파크 스크리트 지하철역 근방의 보스턴 컴먼 관광안내소에서는 지도와 각종 관광 안내서를 얻을 수 있음, 여기서 시작되는 붉은 안내표시선을 따라 다운타운 상업 중심가와 쇼핑센터들, 역사깊은 파뉴일홀과 노스엔드를 지나 유서깊은 찰스타운등을 둘러보다 보면, 교육과 흥미의 두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음

◦ 기존의 역사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변에 편의시설과 안내시설을 늘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비교적 단순한 과정을 통해 세계적 관광명소로 인정받고 있는 프리덤트레일의 사례는 보석처럼 묻혀있는 역사 문화 자원이 풍부한 북촌 지역의 관광소프트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줌

라. 지례 예술촌의 전통가옥 민박체험

◦영국여왕의 방문으로 유명세를 탄 경북 안동의 전통과 자연을 활용한 전통 문화 체험 및 숙박 프로그램

◦경북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에 위치한 지례예술촌의 한옥 중 총 14개의 방을 이용한 민박 프로그램으로 〈빗장문 활짝 열고 이방인 맞는 별천지〉라는 타이틀로 손님을 맞고 있음

◦임하호 조성시 수몰될 위기에 있던 한옥들을 옮겨와 총 125간이나 되는 가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으며,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서당마루와 한옥객실 14실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1663년 숙종 때 지어진 이후 이어온 340여년의 역사)

◦예술인들을 비롯해 정치인, 경제인들이 자주 찾으며, 한국을 체험하고 싶은 외국인들도 물론 이곳 생활을 좋아해 현재 한해 이용자는 약 5,000명 가량임

<그림 150> 지례예술촌의 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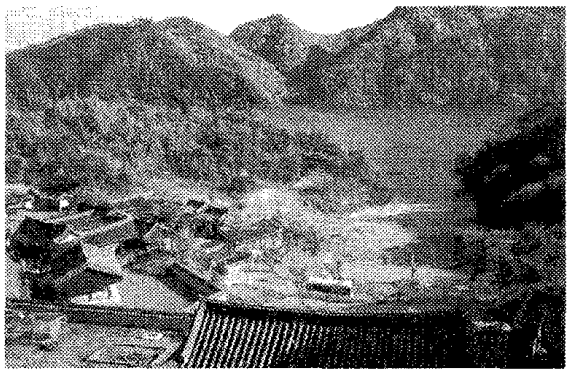
◦사방으로 나 있는 방문을 통해 보는 임하호와 천혜의 자연경관도 훌륭한 관광상품의 역할을 하고 있음

◦한옥의 가장 불편한 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전통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한옥 각 채마다 정자의 지붕을 덮은 수세식 화장실과 욕조, 샤워실을 구비함

◦ '지산서당(芝山書堂)'이라는 현판이 걸린 가장 큰 규모의 집에서는, 서당을 중심으로 좌우에 숙소가 위치하는데, 서당은 단체객들의 세미나실로 사용됨, 서당문은 사방에 모두 4쪽짜리 문으로, 더위를 피하기 위해 문을 열어 천장에 매다는 고유의 풍속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내부 장식은 한옥의 미를 살려, 최소한의 장식만을 하였음. 이불과 거울, 낮은 책상이 전부임(전통을 살리고자 장작불을 사용했었으나, 최근에는 관리상 어려

움으로 보일러로 대부분 대체)



<그림 151> 지례예술촌의 전경

◦ 앞마당에서는 국악과 하회탈춤 공연, 동동주와 바비큐 파티를 엮은 캠프파이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함

◦ 집주인이 직접 마련한 한정식 식사는 산나물무침과 참죽장아찌, 송이버섯, 당귀, 산더덕, 도토리묵 등에 훈제민물고기 매운탕 등으로 한국의 전통식을 살리려 하고 있음, 안동소주와 직접 빚은 농주 및 전통차도 항상 구비하고 있음

◦ 이용 비용은 일인당 1박 2식에 3만원이며 10일전 사전 예약이 필요함

◦ 주변에는 도산서원, 하회마을, 병산서원, 안동민속촌, 태조왕건 세트장, 봉정사, 주왕산국립공원, 청량산도립공원 등의 관광명소가 있으며, 특히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장 한국적인 곳을 보고 싶다"며 방문한 안동 하회마을은 경상북도가 최근 '엘리자베스여왕 로드'를 지정, 하회마을의 충효당 등 여왕의 각 방문지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방문코스마다 여왕이 경험했거나 관람한 내용들을 소개해 외국인들을 맞이하고 있음, 지례예술촌은 안동 하회마을의 관광코스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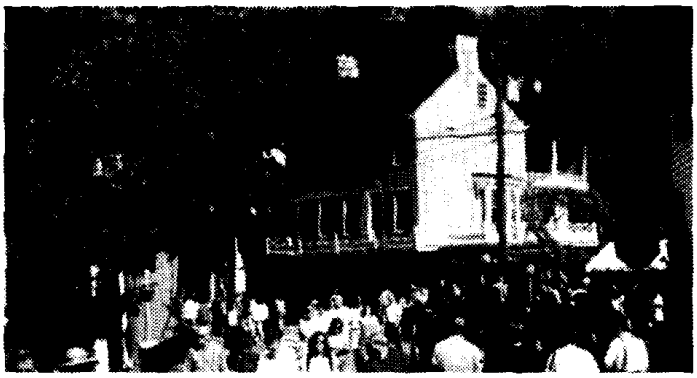
◦ 지례예술촌 이외에도 안동 지역에는 고가를 활용한 민박이 몇 채 더 있는데, 수애당(안동시 임동면 수곡리, 방10개), 경덕제(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방9개) 등임

◦ 특히 한옥을 기반으로 한 숙박과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가회동 지역의 민박과 전통체험 프로그램 개발 방식과 운영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마. 워터포드 페어(Waterford Homes Tour & Crafts Exhibit)

◦ Welcome to Waterford !

The mission of The Waterford Foundation is to preserve the historic buildings and



<그림 152> 워터포드페어의 모습

the open spaces of the National Historic Landmark District of Waterford, Virginia; and through education, to increase the public's knowledge of life and work in an early American rural community

(http://www.waterfordva-wca.org)

◦ 워터포드(Waterford)는 워싱턴DC에서 자동차로 약30분 거리에 있는 버지니아주 북부, 인구 2백여명의 조그만 마을로 평상시에는 미국의 전통적 가옥을 지키는 평화로운 마을이지만(Historic Waterford, Virginia), 워터포트 페어(waterford fair)가 열리는 매년 10월 첫 주말이면 이 마을은 온통 인파로 뒤덮임

<그림 153> 마을의 집들을 돌아보며, 그집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일종의 하우징 투어도 포함

◦ 1943년부터 매년, 워터포드재단은 「Waterford Homes Tour & Crafts Exhibit (Waterford Fair)」를 운영해왔음, 백여명의 수공업공예인들이 이 페어에 참가하여 그들의 기술과 작품을 전시하고, 매년 30,000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 페어를 지켜 봄

◦ 이 페어는 워싱턴 지역 내에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이 축제 기간동안 이 작은 마을에서는 미국 전통 수공예품과 미술품, 장식품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큰 장이 서는데, 하프를 켜는 민속음악가들이 길거리 공연을 갖고 백파이프를 든 취타대가 행진을 벌이며, 1백~2백년의 역사를 가진 옛 주택들을 방문객들에게 공개함

◦ 워터포드는 19세기 초반 농부들이 모여들면서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농가가 많아지자 대장간을 비롯해 양초, 마차, 총포, 의류 등을 만드는 수공업자들이 하

나 둘 생겨나 마을이 나날이 번창해갔으나, 1871년 미동부 지역에 철도가 놓이면서 개발에서 소외되고 침체의 길을 걷기 시작함

◦개발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워터포드는 마을의 원형을 그대로 지키는 쪽을 택함, 방앗간을 중심으로 옛 주택과 건물들을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개발로는 찾을 수 없는 전통을 지키기로 했으며, 예상은 적중함

<그림 154> 스스로 공예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

◦이를 위해 1943년 마을에서는 워터포드재단(The Waterford foundation)을 설립하였으며, 마을 보전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을 거두게 됨

◦재단설립과 함께 워터포드 마을은 재단기금을 늘리기 위한 사업에 착수했는데, "워터포드 페어"가 그것임

◦이 축제는 마을안에서 대를 이어온 수공업자들을 비롯하여, 인근지역의 수공예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일년에 한 차례 매년 10월 첫주 금,토,일 사흘동안 수공예품을 위한 큰 장을 열고, 아울러 집집마다 가옥이 가진 역사를 이야기로 만들어 관광객들로 하여금 'Walking Tour'를 즐기게 함, 실제로 워터포드의 모든 집은 각각 집의 이름과 역사를 가지고 있음

◦마을에 들어가는 입장료는 성인 한사람당 9-14 달러씩 받고 있으며, 이 입장권은 신분증처럼 가슴에 달고 마을을 관람할 수 있으며, 책갈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짐

<그림 155> **Leslie Myers House**
The lot on which this house sits was a cornfield, and conveyed with the Steer-Divine house at 15655 High Street for much of its history. In 1924 this dwelling was built for Mr. Leslie Myers. It is an American four-square, a very popular house style in the early 20th century with box-like form and four nearly equal size rooms per floor.
워터포드의 모든 집에는 이름과 역사와 이야기가 있음

◦입장권과 함께 "제 몇 주년 워터포드 주택관광 및 수공예품 전시회'라는 제목이 인쇄된 소책자가 제공되는데, 이 소책자는 마을의 집한채한채마다 서려있는 전통과 옛이야기과 흑인 자유인이 많았던 마을의 독특한 역사를 전해주며, 길거리에서 파는 수공예품들의 진정한 가치도 알려주는 등, 워터포드 관광의 재미를 두배 세배 키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함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 창고에서는 드라이플라워, 태피스트리, 직물공예품으로 가득 차있고 길거리 양쪽에 즐비한 노점에는 닥나무 껍질을 벗겨서 만든 바구니 제품, 목공예품, 가죽공예품, 주석을 두드려 만든 금속장식품, 도자기 장식품 등 무려 1백가지를 헤아리는 수공예품들이 즐비함

◦워터포드 페어에 참가한 수공예가들은 그 제조기술은 물론, 수공예품에 대한 지식, 역사적 중요성등을 감안해 미국 전역에서 선발된 명인들로, 수공예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르치는 페어라는데 특징이 있음

◦수공예가들은 길거리에 직접 나와 앉아 관람객들의 질문에 자상히 대답해주고, 또 원하는 관람객에게 인형을 만들거나 닥나무 껍질을 벗기는 방법들을 친절히 가르치기도 함

◦이런 친절하고 전문적인 설명을 위해 워터포드 재단에서는 참가 수공예가들이 페어기간동안 최소 50%이상의 시간을 전시현장에서 반드시 자리를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음

◦모든 홍보와 운영은 the Waterford Virginia Citizens Association에서 전담함

바. 낙안읍성 민속마을

◦성과 마을이 함께 국내 최초로 사적 제 302호로 지정된 낙암음성 민속마을은 전남 순천시 낙안면, 68,000여 평의 넓은 평지에 지어진 읍성

<그림 157> 마을의 전경

◦성곽이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으며, 성내에 있는 동내리, 남내리, 서내리에 아직도 100여 가구의 주민들이 대를 이어 생활하고 있어, 남부지방의 독특한 주거양식과 부엌, 토방 등을 볼 수 있음. 동헌, 객사, 낙민루, 임경업 장군 비각,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9채의 가옥을 비롯하여 서민들이 살던 초가집이 그대로 들어서 있음, 남부지방 독특한 주거양식인 툇마루와 부엌, 토방, 지붕, 섬돌위

의 장독과 돌담, 담쟁이와 호박넝쿨등이 정겹게 어우러져 있음.

<그림 156> 낙안객사

◦특히 민속촌같은 사람이 살지 않는 전시용마을이나 안동하회마을과 같이 양반마을이 아닌 우리 서민들이 살아왔던 옛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 큰 의미가 있음

◦소장문화재 : 성곽(1,410m)과 마을 객사1동, 임경업군수 비각 1동, 노거수 15주, 중요민속자료 가옥9동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가격은 다음과 같음(단위 :원)

어른		군인, 학생		어린이		경로증소지자		주차료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소형/대형
1,100	900	600	500	450	350	무료	무료	무료

◦축제 및 이벤트 : 음력 정월대보름이면 임경업장군의 비각에서 제를 올리고 널뛰기 그네타기 성곽돌기등 민속행사가 열리며, 5월에는 낙안민속문화 축제가 벌어지며, 매년 10월 「남도음식문화축제」를 열림(행사내용 : 전통 개발 음식 전시, 전시음식 판매, 향토 식당, 농수특산물 판매/경연행사 : 관광객을 위한 즉석 음식 만들기, 성곽돌기, 줄다리기, 윷놀이, 떡치기/공연행사 : 고산농악, 날뫼북춤, 공옥진공연, 대동굿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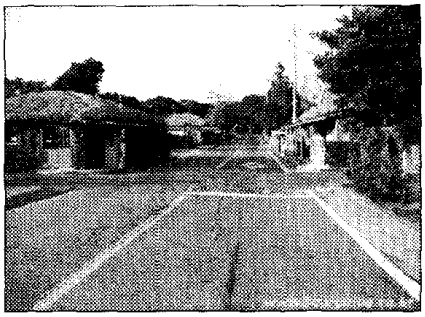
◦읍성 내 민가 17가구에서 민박 가능(낙안읍성 민속마을 보존회 사무소에서 알선)

사.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에 위치하는 대표적인 민속마을, 주민들이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옛날 '정의현'이라는 현청이 있던 곳으로 마을의 규모는 큰 편이며, 성문과 성터, 현청 건물인 일관헌(日觀軒), 향교 건물, 전통가옥, 수령이 수백년 넘는 느티나무, 팽나무 등도 잘 보전되어 있음

◦하지만 경관면에서는 몇가지 부조화가 보이는데, 마을을 지나는 도로가 모두 아스



<그림 158>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

팔트로 포장되어 있고 마을 군데군데 현대식 가옥이 눈에 띄기도 함, 또한 하지만 성읍민속마을의 보존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듯한데, 마을 가옥들은 식당을 운영하거나 특산품을 파는 집들이 많고, 가끔 여행사와 함께 여행자들에게 특산품을 강매를 하는 듯한 인상을 풍김, 낙안읍성과 같이 입장료를 받더라도 좀더 체계적인 보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마을을 지나는 도로가 모두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고 마을 군데군데 현대식 가옥이 눈에 띄는 것이 보전의 어려움을 느끼게 해줌

<그림 159> 마을 내부

<그림 160> 갈옷

◦ 국내의 대표적 민속 마을인 낙안읍성과 성읍민속마을은 보전의 측면에서는 성읍마을의 아스팔트 도로나 현대식 가옥과 같은 몇 가지 심각한 훼손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는 것은 호기심에 찾는 일회성 관광객들의 단발적 방문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상품이나(낙안읍성의 경우, 외부 여행사에 의해 도자기 빚기 체험 상품이 운영 중임) 축제/ 이벤트의 계속되는 개발과 변화가 필요함

부록 7. 7/28 실시 북촌 문화 관광 프로그램 사례분석

◦ 본 연구진은 한 시민단체(도시연대)와 북촌 주민 단체가 함께 기획한 북촌 문화 투어 「Bukchon Culture Tour」의 자료집 제작과 가이드 지도 제작에 협조하였음

◦ 2001년 7월 28일에 실시된 이 투어에는 외국인 50여명이 함께 참가하여, 인사동과 가회동/삼청동등 북촌 일대를 '걸으며' 한국의 전통 문화와 있는 그대로의 살아가는 모습을 '몸으로 느끼는' 여행이었음

◦ 향후 지속적인 투어 코스의 개발과 실시를 통해 북촌의 문화 관광 인프라의 우수성과 효용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그림 161> 한복전시관에서 한복을 입어보고 기뻐하는 외국인들(동아일보 7/30)

<그림 162> 전통목공예 전문가 신명덕선생댁을 찾은 외국인들

◦ 투어에 참가했던 외국인들은 지금껏 어느 투어 프로그램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한국의 전통이 보여주는 진솔한 삶의 아름다움에 감동하며, "Wonderful!"을 연발하였음

◦ 투어의 성공으로, 도시연대는 중앙정부 산하기관의 지원을 약속 받았으며, 앞으로 북촌의 전통 문화를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흥미로운 투어 코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본 연구진도 자료와 코스 개발에 협조할 것임

◦ 「Bukchon Culture Tour」는 인사동과 가회동, 삼청동, 안국동, 계동 일대의 북촌의 전통 문화 자원들을 직접 보고, 만지고, 듣고, 느끼는 "체험관광"의 형태로 그 코스는 다음과 같음

- 조계사 - 예나르 - 동서표구 - 예목 - 우리세계 - 문우서림 - 한지차향가 - 마더뱀부 (이상 인사동)
- 이리자 한복 전시관 - 전통 한옥 - 서울게스트하우스의 전통부채만들기 - 전통매듭 연구가 조일순 선생님의 전통 염색 실습 - 금현국악원 - 신중현 선생님의 옻칠 공예 체험- 반야로/끽다거의 차도 체험 - 전통 목공예 신명덕 선생님댁 (이상 북촌)

<그림 163> 외국인들에게 자연염색에 대해 설명하고 계신 조일순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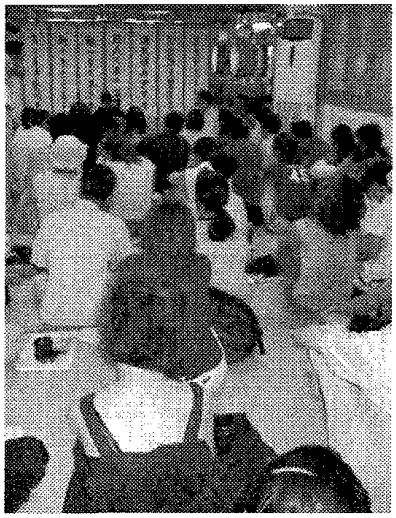
<그림 164> '쪽'을 이용하여 전통 염색을 체험해 보는 외국인 참가자들

◦ 본 투어의 자료집에는 각 탐방코스에 대한 흥미로운 뒷 얘기와 장소를 만들어가는 정겨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탐방코스 지도가 실려 있음

<그림 165> 한지부채에 먹과 붓으로 수묵화를 그려보는 외국인 참가자들

<그림 166> 가야금과 대금, 해금이 빚어내는 국악의 매력을 감상하는 참가자들

◦ 이번에 실시된 북촌의 문화탐방 코스는 외국인들뿐 아니라 내국인조차도 체험하기 어려웠던 옻칠이나 자연염색 등의 전통 문화를 지역 주민 및 장인들의 능동적 후원과 자원 봉사자들의 적극적 협조에 힘입어 가능했음



<그림 167> 오전 10시에 시작한 탐방은 오후 5시 국악 감상을 끝으로 아쉬운 막을 내렸다

◦실제로 탐방도중 많은 외국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알찬 프로그램과 가이드(외국인 5~6인 한조에 한국인 자원봉사가이드 1인, 통역가이드 1인 동행)가 가능하냐고 의아해하며, 정부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는지의 여부를 묻기도 했음

◦미디어의 관심도 상당했으며, 동아일보 및 MBC 「한국에 가고싶다」(2001/8)에 탐방코스와 외국인들의 반응이 실리기도 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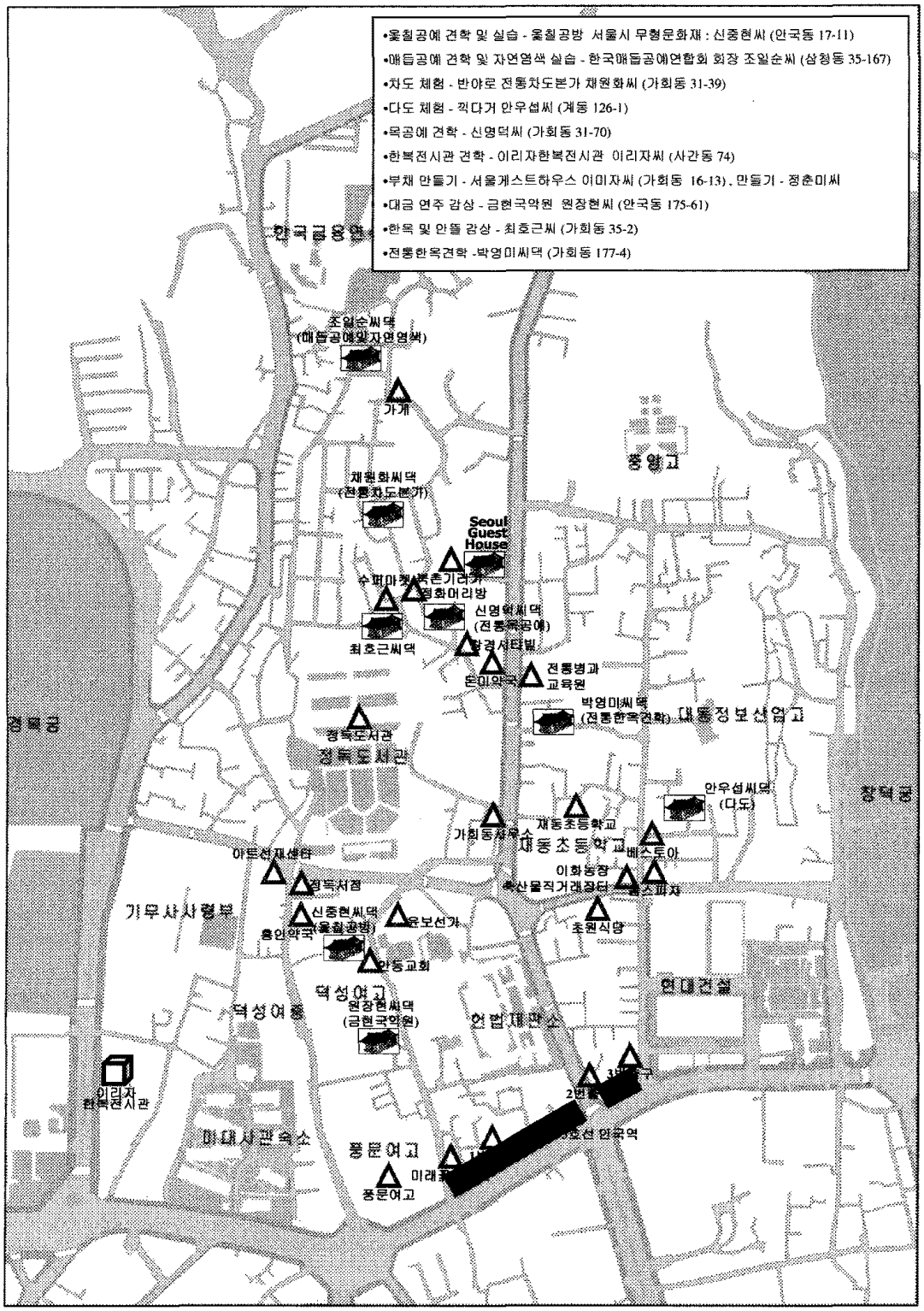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국가별 특성에 맞는 탐방코스의 설정(일례로 조계사나 차도와 같은 코스는 중국인들이 매우 지루해 했음), 외국인 참가자의 반응과 관심도에 대한 지속적 피드백 수집과 이를 반영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효율적 탐방코스 설정(도보로 하는 투어코스로, 동선이 길면 지루해 할 우려가 있음), 참가자들의 효율적 모집 방안과 지속적 데이터 관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의 실시 등임

◦외국인들이 참여한 이번 탐방 코스를 통해 북촌이 가진 전통 문화의 잠재력의 가치와 효용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게 되었으며, 향후 북촌의 문화 관광적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른 길을 확인할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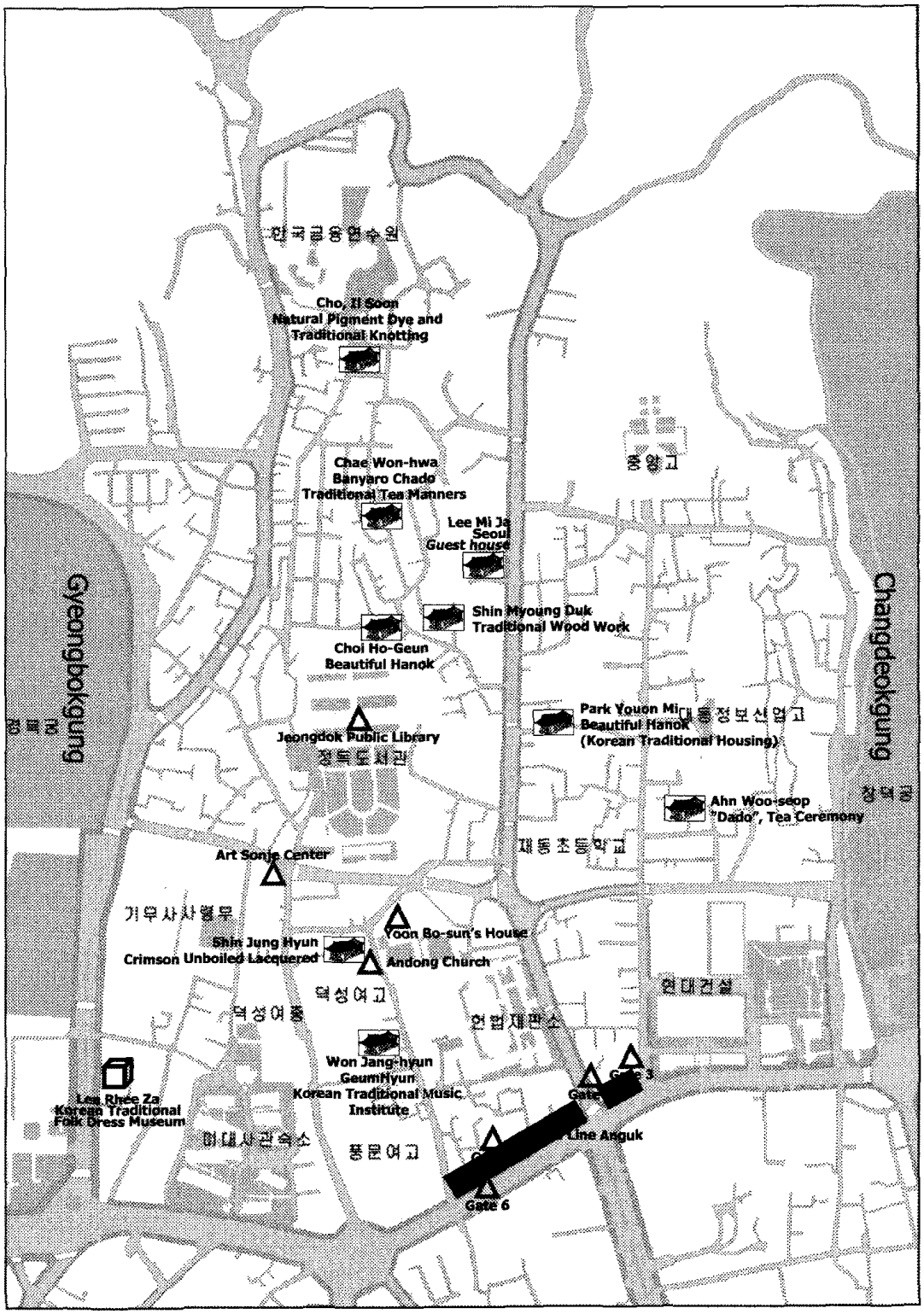
◦본 연구진의 협조로 제작되어 자료집의 순서 및 탐방코스 지도는 다음과 같음

◦ 자료집의 순서

▷ 종로 북촌을 걸으며	▷ Walking through Bukchon
▷ 도심속의 청정 기도도량 조계사	▷ The pure seminary for praying in the City, Chogye Sa
▷ 선조의 예술을 전달하는 예나르	▷ 'Yenar' carrying ancestors' art
▷ 문화의 가치를 높여주는 동서표구	▷ 'Dongseo Pyogu' enhancing the worth of culture
▷ 땀과 정성이 느껴지는 여목	▷ 'Yemok' Sweet and Heart
▷ 전통 공예 전문점 우리세계	▷ 'Urisegae : Our world' Traditional Craft Shop
▷ 시간이 머물러 있는 곳 문우서림	▷ 'Moonwoo Old Bookstore' Where time stands still
▷ 향기가 있는 만남 한지차향가	▷ 'Hanji Tea Incense Ceramic House'
▷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이 함께 머무는 마더 뱀브	▷ 'Mother Bamboo' where Traditional Hanbok and modernized one coexist
▷ 아름다운 옷, 이리자 한복 전시관	▷ 'Lee Rhee-za Korean Traditional Folk Dress Museum' Beautiful traditional Dress Museum
▷ 맛과 멋의 건축 - 한옥	▷ 'Hanok' A tasty and Stylish Architecture
▷ 한지 부채에 마음을 담는 정춘미 선생	▷ Affection toward Korean Tradition with Hanji(Korean Traditional Paper) Fan
▷ 한국을 체험하는 게스트하우스	▷ Feel the Tastes of Korea in the 'Seoul Guest House'
▷ 한국의 빛깔- 자연염색과 전통매듭 조일순 선생	▷ Discovering Pure Korean Colors Through Natural Pigment Dye and Traditional Knotting
▷ 국악 한마당, 금현국악원	▷ Korean Classical Music, 'Guem Hyun Gook-Ak Institute'
▷ 신중현 선생의 옻칠 공예	▷ Crimson Unboiled Lacquered
▷ 차를 통한 깨달음	▷ Awakening Through Tea
▷ 되살아나는 전통 목공예, 신명덕 선생	▷ Traditional Wood Work



<그림 168> 북촌 문화 탐방 코스 국문판 지도



<그림 169> 북촌 문화 탐방 코스 영문판 지도

부록 8. 인사동 학교 프로그램(도시연대기획)

◦ 도시연대에서 기획한 '인사동 학교'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 알아가기 문화 코스로, 인사동을 중심으로 종로 북촌 지역의 소중한 가치를 시민들이 바르게 알아가고, 느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인사동교실을 수료한 시민들은 스스로 인사동 전통문화환경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도시연대 북촌문화센터의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인사동 학교」는 할머니로부터 듣던 옛날 이야기처럼 도란도란 모여앉아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고 시민 스스로가 직접 참여하는 작은 소풍으로, 인사동의 역사와 유래, 현실, 특색 있는 문화 등을 전달하는 교실강좌와 인사동 현장(역사유적지, 한옥, 골목길, 문화업소)탐방강좌로 구성됨

◦ 인사동 거리를 구석구석 다니며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체험학습의 장이 될 것이며, 특히, 인사동 상인들로부터 직접 듣는 지역에 살아 숨쉬는 이야기는 『인사동 학교』가 제공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임

◦ 2001년 '인사동 학교' -인사동 바로 알기 그리고 느껴보기의 세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1. 기간 : 2001년 5월 ~ 10월(인사동학교는 1기부터 4기까지 모집하며, 각 기수별로 4일간 강의)

   제1기 : 5월 15일 (화요일), 19일, 26일(토요일)

   -제2기 : 6월 12일 (화요일), 16일, 23일(토요일)

   -제3기 : 9월 11일 (화요일), 15일, 22일(토요일)

   -제4기 : 10월 9일 (화요일), 13일, 20일(토요일)

2. 시간 : 1강좌 화요일(저녁 7시 30분-9시) / 2강좌,3강좌 토요일(오후 3시-6시)

3. 장소 : 건국빌딩 5층 민예총(민족예술인총연합) 중강의실와 인사동거리

4. 인원 : 1기당 30명

5. 접수처 : 도시연대

6. 접수방법 : 전화 및 도시연대 홈페이지 통해 선착순 접수(인터넷 가입 가능)

7. 접수기간 : 5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접수

8. 참가비 : 1기당 10,000원(3강좌후 식사비가 포함)

9. 문의처 및 주최: 도시연대

10. 후 원 : 국정홍보처

11. 세부 프로구램

주제	구분	교실강좌	탐방	
			전체탐방	주제별 탐방
인사동 알아보기	1기	인사동의 역사와 유래, 변화과정 - 이상구(경기대 건축학부 교수)	인사동	인사동 역사문화 유적지
	2기	인사동의 문화적 특성과 현실 - 김영복(문우서림 대표)		인사동 문화업소
인사동 가꾸기	3기	인사동 작은가게 살리기 운동의 과정과 성과 - 나정수 (동서표구사 대표)		인사동 작은가게
	4기	바람직한 인사동 만들기		인사동 가로, 골목과 한옥

12. 일정표

날짜	시간	내용	장소
첫째날 (5/15, 6/12, 9/11, 10/9)	19:30~19:40	입학식	민예총 중강의실
	19:30~19:40	교실강좌	
	19:30~19:40	질의 응답 및 공지	
둘째날 (5/19, 6/16, 9/15, 10/13)	19:30~19:40	전체탐방 오리엔테이션	민예총 중강의실
	9:30~19:40	전체탐방	인사동
셋째날 (5/26, 6/23, 9/22, 10/20)	9:30~19:40	조별모임	민예총 중강의실
	9:30~19:40	주제별 탐방	인사동
	9:30~19:40	수료식 및 저녁식사	섬진강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서울역사지도", 2001, 월간조선 2001/03

강신겸, 1999, "관광활성화를 위한 소프트 경쟁력 강화방안 -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

박기홍, 2000, "월드컵마케팅은 관광마케팅이다",한국마케팅학회 월드컵마케팅 심포지움

박흥식, 2000, "도시마케팅의 전략과 의미", 중앙행정논집 14(2), pp.239-258

서울시정개발연구원월드컵지원연구단, 2000, 「월드컵 진략지역 장소마케팅」 : 홍대지역문화활성화방안

서울특별시, 1994,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계획 자료집 : 4대문내 역사문화 유적」

----------, 2001, 「2002년 월드컵 계기 서울 홍보 전략에 관한 연구」

양현미,양지연, 1995, 「기업메세나 활성화 방안」 문화정책개발연구원 정책연구 95-11

오충섭, 1998,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박(Homestay)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경영대학원

이동범, 2000, "역사·문화 관광의 활성화 방안", 국토연구원, 월간 「국토」 2000/05

이소영, 1999, 「지역문화의 장소마케팅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인사동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두식, 2000, "삼청동길 산책" 국토연구원, 월간 「국토」 2000/09

장서희, 2000, 「민박의 문화관광상품화 방안」, 한양대대학원

정석, 2000,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II)-북촌가꾸기 사례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특집 "도시와 문화", 국토연구원, 월간 「국토」 2001/05

한국관광공사, 1998, 「외국인 대상 민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움 자료집」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한국의 문화관광지도 작성 연구」, pp.46-49

한상린 외, 2000, "월드컵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이벤트관광 개발 전략 - 성곽 축제 아이템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2. 해외문헌

Yeong-Joo Hahn and Laam Hae, 2001, "The 2002 World Cup and City Marketing",17th Pacific Conference(Portland, Oregon, USA, June, 30 ~ July, 4, 2001),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International, The Pacific Regional Science Conference Organization 발표 논문

Zukin S., 1992, 「Loft Loving : Culture0 and Capital in Urban Change, London : Radius」

Kearns, G. & Philo, C.,1993, 「Selling Places : The City as Cultural Capital, Past and Present」, Pergamon Press

Tiesdell, Steven., 1996, 「Revitalizing Historic Urban Quaters / Steven Tiesdell : Taner Oc : Tim Heath」 Oxford : Architectural Press, an imprint of Butterworth-Heinemann

Rypkema, Donovan., 1995, 「Historic preservation and downtown renewal」 Washington, D.C. :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lanners,(엉상물)

3. 인터넷 사이트

o 북촌일반 / 전통문화 자원 관련 사이트

http://members.tripod.lycos.co.kr/fitzge : 서울의 민가 정원

http://my.dreamwiz.com/ahnryu : 가회동 개인 사이트

http://my.dreamwiz.com/aussih/library/w/sagan.htm : 사간동에서 인사동까지 이어 걷기

http://soback.kornet21.net/~jinfilm/inspection/city_tour.html : 도심여행, 문화관광유적지

http://www.archforum.com/main/korea/space/af-city/japil : 최재필의 도시문화읽기 (가회동 11번지 한옥촌)

http://www.arirang.seoul.kr : 성북동의 문화 자원

http://www.craftour.com :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제공 크래프트맵

http://www.food.co.kr : 한국궁중요리연구소

http://www.hanok.org : 한옥문화원

http://www.koreancrafts.com : 한국공예문화진흥원

http://www.metro.seoul.kr : 서울포커스

http://www.tourguide.co.kr : 서울의 명소 정보

http://www.visitseoul.net : 서울 문화관광

o 민박

http://www.gites-de-france.fr : 프랑스의 민박 조합 지트 드 프랑스

http://www.labostay.or.kr : 라보 민박 예약

http://www.lex.or.kr : 렉스 민박 예약

http://www.seoul10.com : 서울세스트하우스

http://www.worldinn.com : 월드인 예약

http://www.kyotoinn.com : 교토 민숙협동조합

o 체험관광

http://www.beijingtrip.com/attractions/hutong : 베이징 후통투어

http://www.travelchinaguide.com/cityguides/beijing/hutong : 베이징 후통투어

http://www.crosswinds.net/~sroney : 서울 미스터리 워크

http://www.knto.or.kr/english/etheme/E_theme01.htm : Historical and Cultural Tour : 한국 체험 관광

http://www.thefreedomtrail.org : 보스턴 프리덤트레일

http://www.waterfordva-wca.org : 워터포드 페어

o 전통문화 공급업체

http://hansan.joongang21.co.kr : 한산기획

http://www.korea-family.com : 유스 패밀리

http://www.sons-home.com : 손스 홈

o 기타 관광학 자료

http://myhome.netsgo.com/ecotour : 강신겸의 관광학연구 녹색관광&생태관광

http://www.dosi.or.kr : 도시연대

http://www.knto.or.kr : 한국관광공사

http://www.visitkorea.or.kr : 한국관광공사

시정연 2001-PR-05-01

2002 월드컵 계기

북촌 장소마케팅 방안연구

발 행 인 권 원 용

발 행 일 2001년 7월 31일

발 행 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http://www.sdi.re.kr

100-250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 4-5

전화: (02)726-1232 팩스: (02)318-4779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